

탄소중립, 가치사슬로 확장되다

CDP Korea Climate Change and Water Report 2021

Written on behalf of 669 investors with US\$131 trillion in assets



Report Sponsor



Korean Partner to CDP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KoSIF) www.kosif.org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Korea Sustainability Investing Forum·이하 KoSIF)은 사회책임투자(SRI)의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SRI연구·개발, 홍보·확산, 정책 개발·입법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을 확산하기 위해 CDP한국위원회를 주도적으로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다.

Partner to CDP Korea Committee



EY한영 www.ey.com/kr

EY는 회계감사, 세무, 재무자문, 경영자문 서비스의 글로벌 리더이다. EY한영은 EY의 국내 유일 회원법인으로서 약 1,900명의 전문가들이 강력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축적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공동의 가치관과 품질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EY CCaSS팀은 CSR/지속가능경영 수준 진단 및 전략 수립, EHS 체계 구축 등 글로벌 수준의 CSR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청정에너지, 국제개발 등의 글로벌 이슈에 대해 국내외 정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정책 자문 및 개발도상국 지속가능성장 프로그램 등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CDP Korea Climate Change and Water Report 2021

Writer: 권정현, 이다연, 이준희, 김태한, 이종오

Design & Publication: 화소

CONTENTS

| | |
|---|----|
| 발간사 - 장지인, 위원장 / CDP한국위원회 | 02 |
| CEO Foreword - Paul Simpson, CEO / CDP | 03 |
| Partner Commentary - 박용근, 대표이사/ EY한영 | 04 |
| Guest Commentary - 조용병, 대표이사 회장/ 신한금융그룹 | 05 |
| Guest Commentary - 윤종규, 대표이사 회장/ KB금융그룹 | 06 |
| 발간축사 - 이원욱, 국회의원 / 과기방통위원장 | 07 |
| 발간축사 - 이용우, 국회의원 | 08 |
| About CDP | 09 |
| 2021 Korea Leaders | 10 |
| CDP 평가시스템 | 12 |
| 1.5°C와 가치사슬 | 15 |
| 금융의 가치사슬, 포트폴리오 탄소중립 | 19 |
| 국내 기업의 감축목표 및 이행 진단 | 24 |
| Water | 31 |
| Climate Change & Water 주요통계 | 35 |
| 2021 CDP Korea Best Practice | 42 |
| 부록 1, 2021 CDP Climate Change Korea 그룹별참여현황 | 62 |
| 부록 2, 2021 CDP Water Korea 그룹별 참여현황 | 63 |
| 부록 3, 2021 CDP Climate Change Korea 기업별 현황 | 64 |
| 부록 4, 2021 CDP Water Korea 기업별 현황 | 69 |



2021 기업별 전체 응답내용 보기
www.cdp.net

Important Notice

본 보고서 내의 자료는 CDP Worldwide(CDP)에 통보 후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보고서 내의 CDP 또는 공저자의 자료를 이용한 재편집 또는 재판에 권한을 부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만약 본 보고서상의 자료를 재편집 또는 재판에 하기를 원할 경우, 반드시 CDP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본 보고서는 CDP 2021 정보공개요청에 대한 응답 데이터 및 분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KoSIF, EY한영 또는 CDP는 보고서상의 데이터에 대한 정확성 또는 완전성을 대변하거나 (명시적 또는 암묵적) 보증하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없이 본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만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을 권고하며, KoSIF, EY한영 및 CDP는 해당 행위에 대한 어떠한 주의 의무 및 이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가지지 않습니다. 보고서내의 모든 정보와 전망은 리포트 작성 시점의 KoSIF, EY한영 및/또는 CDP의 판단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경제, 정치, 산업 그리고 기업의 상황 변화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포함된 외부원고는 해당저자 및 기관의 개별적 의견이며, CDP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KoSIF, EY한영, CDP, 협력기관, 제휴 회사 및 해당기관의 주주, 구성원, 파트너, 임직원들은 본 보고서에서 언급된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보고서 내에 언급된 기업의 주식은 일부 주 또는 국가에서 구매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일부 유형의 투자자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업의 가치와 수익은 환율 변동에 따라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CDP' 및 'CDP Worldwide'는 자선단체(no. 1122330)와 보증책임회사(no. 05013650)로 영국에 등록되어 있는 CDP Worldwide 를 지칭합니다. 한국 내에서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이 CDP의 로컬 파트너로서 CDP 한국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무처를 맡고 있으며, EY한영이 CDP 한국위원회 파트너를 맡고 있습니다.

장지인

위원장, CDP 한국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에 2050년보다 2030년이 더 중요합니다. 2030년은 기후위기 방지의 골든타임입니다. 국제사회는 지금의 시기를 '행동해야 할 10년' Decade of action이라고 부릅니다. 기업과 금융기관은 기후행동의 핵심 주체입니다.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 1.5°C 제한은 지구 공동체의 공멸을 막기 위한 기후과학의 명령이자 상식입니다. 이를 위하여 인류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이상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합니다.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지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130개국 정상들이 참석할 만큼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COP26에서는 전통적인 기후협상 의제 이외에도 2030년까지 산림 파괴를 멈추고 토양회복을 위한 '산림·토지 이용 선언', 메탄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감축하는 '국제 메탄 서약' 등 다수의 국제적인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석탄 사용 종식 합의에는 끝내 실패했습니다. '글래스고 기후합의' Glasgow Climate Pact에 최초로 석탄을 직접 명시하기는 했으나 종식이 아닌 단계적 폐지로 후퇴하였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COP26에서 정한 목표가 준수된다고 해도 지구 평균 기온은 1.8°C 오를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COP26은 일부 의미 있는 진전에도 불구하고 약속은 남기고 고통은 미루어 버렸습니다. '기후재앙'을 막자면 서도 세계는 여전히 기후재앙의 문을 노크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절실한 건 이제 '웅변'이 아닌 '행동'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2050년보다 2030년이 더 중요합니다. 2030년은 기후위기 방지의 골든타임입니다. 국제사회는 지금의 시기를 '행동해야 할 10년' Decade of action이라고 부릅니다. 기업과 금융기관은 기후행동의 핵심 주체입니다. 선진 기업들은 자사의 사업을 탄소중립 사회에 부합하도록 재편하기 시작했고, 선진 금융기관들도 자본을 빠르게 지속가능금융으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환경 영역의 중점관리사안으로 '기후변화'를 지정하고 2022년부터 기업관계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선진적인 국가는 기후위기 대응을 핵심 축으로 하여, ESG 정보공개, 분류체계 Taxonomy 등 ESG 관련 법과 정책을 빠르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후 등 ESG 관련 정책들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정보공개는 기후행동을 위한 토대이며,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핵심사항입니다. CDP는 이를 자각하고 2000년대 초반부터 기후 관련 정보를 요구했고, 물, 산림자원으로 확대하면서 기업과 금융기관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CDP는 현재 총 운용자산 131조 달러에 이르는 전 세계 669개 금융기관이 동참하는 세계 최대 정보공개 이니셔티브로, 13,000여 개 기업이 기후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최대 플랫폼으로 성장했습니다.

CDP 한국위원회는 2022년부터 CDP의 기후정보공개 대상기업을 현행 시가총액 200대 기업에서 300대로 확대합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탄소중립 요구가 전면화 되고, 주요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급망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결정입니다. 더 많은 우리 기업들이 정보공개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온실가스-에너지목표 관리제 대상기업은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그리고 자사의 경쟁력을 위하여 CDP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도도 필요합니다.

실패한 사회에서는 모든 비즈니스도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 기업, 금융기관, 시민들의 기후행동만이 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후행동에 CDP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Paul Simpson

Chief Executive, CDP



과학은 명료합니다. 지금이 우리에게 울리는 마지막 경고 알람입니다. 기후 복원력이 경제와 사회의 최전선에 있어야 합니다.

2022년을 맞이하며 도전적이었던 지난 한 해를 되짚어 봅니다. 세계가 COVID-19 대응 행과 계속해서 씨름하고 있는 가운데,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는 지금까지 중 가장 파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가 더 이상 먼 미래의 현실이 아니며, 이미 우리 모두가 그 파장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세계적으로 심각한 산불과 홍수, 그리고 역대 최고 기온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식 하에 개최된 COP26 정상회의는 비록 상당한 진전을 보이긴 했지만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도달하려면 여전히 막대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COP26은 1.5°C가 그리는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했는지 모르지만, 이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IPCC가 “코드 레드(Code Red)”라고 묘사한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CDP는 2021년, 역대 최대 정보공개 수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시가총액의 64% 이상을 대표하는 1만3000여개 기업과 1,000여개 시·도·군이 CDP를 통해 환경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이는 2020년 이후 35%, 2015년 파리협정 체결 이후 141%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2016년에 700개 미만이었던 아·태지역의 응답 기업 수는 2021년에는 4배 가까이 성장하여 3,000개를 넘었습니다. 이들은 아·태지역의 21개국에 분포하고 있으며, 세계 시가총액의 14%를 대표합니다. 아태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경제이자 기후 리스크에 취약한 인구가 밀집해있는 있는 지역으로, 현재 전 세계 CDP 응답 기업의 약 30%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책 입안자들과 규제 당국도 파리 협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약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탄소중립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법제화 국가 대열에 합류하여 세계 기후 리더십의 선두에 서게 되었습니다.

역대 최대 응답 기업 수를 기록한 2021년, CDP는 새로운 2021-2025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CDP의 새로운 전략은 기업과 도시, 그리고 지역의 책임감 있는 기후 계획과 행동의 시급성을 바탕으로 수립되었으며, 기후 재앙과 돌이킬 수 없는 자연 및 서식지 손실이 상호 연계되어 있는 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향후 5년 동안 CDP는 더 많은 환경 문제를 다루고 기후 목표와 계획 및 그에 대한 성과 추적에 중점을 두기 위해 더 넓은 범위의 이해관계자 및 당국과 협력할 것입니다.

과학은 명료합니다. 지금이 우리에게 울리는 마지막 경고 알람입니다. 기후 복원력이 경제와 사회의 최전선에 있어야 합니다. CDP는 2021년 기록된 역대 최대 정보 공개 수치가 앞으로 경신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한편, 여전히 막대한 조치가 필요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향후 5년이 2050 탄소중립의 달성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국가와 지방 정부, 기업 및 자본 시장 등 우리 경제의 모든 주체들이 야심차고 긴급한 행동으로 단결되어야 합니다.

CDP는 한국이 자연 파괴 중단을 넘어 자연을 강화하는(Nature Positive) 공평한 세상으로의 전환,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을 선도하리라 기대합니다.

박용근

대표이사, EY한영



규제당국은 기후변화 리스크를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고, 에너지 기업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자산성이 없어진 자산에 대하여 수십억 달러 규모의 감액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산업 분야를 막론하고 기업들은 사업모델을 'Net Zero' 경제에 맞게 재편해야 하는 시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이어졌던 2021년에는 화재, 가뭄, 홍수, 허리케인 등 자연 재해로 인한 물리적 피해 또한 유독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영향은 각 해당 지역을 넘어서 전세계적인 산업 전반에까지 확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오늘날, 더 이상 기후변화를 기온이나 생물 다양성 문제만으로 국한하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기후변화는 산업 생태계, 자본 투자의 기준, 더 나아가서 인류의 근본적인 사고와 행동 양식마저 바꾸고 있습니다.

규제당국은 기후변화 리스크를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고, 에너지 기업들은 기후변화로 인하여 자산성이 없어진 자산에 대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감액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산업 분야를 막론하고 기업들은 사업모델을 'Net Zero' 경제에 맞게 재편해야 하는 시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EY가 전 세계 19개국 투자기관 임원 3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1 EY 글로벌 기관 투자자 Global Institutional Investor Survey, GIIS' 설문조사 결과, 최근 대규모 자본을 운영중인 글로벌 투자자들은 투자 포트폴리오 및 투자 대상 전반에 걸쳐 ESG 리스크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응답자 중 77%는 향후 2년 동안 기후 변화가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제공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리스크에 대한 분석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응답했으며, 이는 2020년 조사 결과 (73%) 대비 4%p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투자자의 80%는 Net Zero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영향력을 미치는 '전환' 리스크를 더욱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투자 판단이 더 이상 기업의 환경정책이나 홍보성 발

표의 확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대적 변화 속에서, EY는 2021년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을 마이너스로 만드는 '탄소 네거티브^{Carbon Negative}'를 실천하겠다고 선언하며 목표 달성을 위한 '7대 액션 플랜'을 발표했으며, 2025년에는 탄소 순 배출량 '제로화^{Net Zero}'를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CDP 보고서는 투자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에게 Net Zero를 향한 우리의 길을 제시하는 매우 의미 있는 보고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CDP Korea Report 2021 발간을 축하하며, '기후변화 대응' 부문과 '물 경영'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수상 기업들에게도 진심을 담아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용병

대표이사 회장, 신한금융그룹



금융은 기후위기에 있어 특히 친환경 '전환'과 '가속화'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고탄소 산업에 친환경 전환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산업 전환의 물줄기를 만들고 확산시키며, 탄소 감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신기술 영역과 투자 기회 등을 분석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친환경 가속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021년은 기후변화 관련 가장 뜨거운 한 해였습니다. 8월 IPCC 6차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과학자들이 지구가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과학적으로 증명했을 뿐 아니라, 11월에는 제26차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전 세계 정상들이 모여 지구 온도를 1.5°C 이내로 억제해야 한다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제 기후변화는 지구를 살아가는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과학자뿐 아니라 경제학자들의 얘기도 뜨겁습니다. 작년 3월 세계적인 재보험사 스위스리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온도가 2도 상승하면 전 세계 GDP가 11%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특히, 아시아와 중동 지역은 각각 14.9%와 14%로 그 피해가 대단히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기후 문제는 이제 '변화'라는 단어가 붙지 않고 '위기'라는 단어가 함께 합니다. 이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산업이 모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하며, 범국가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작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제26차 UN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파인스 데이에 초청 받아 신한이 탄소중립금융에 대해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때 저는 금융이 이러한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한 '키플레이어'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금융은 기후위기에 있어 특히 친환경 '전환'과 '가속화'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고탄소 산업에 친환경 전환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산업 전환의 물줄기를 만들고 확산시키며, 탄소 감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신기술 영역과 투자 기회 등을 분석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친환경 가속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신한은 올해 이러한 실질적인 친환경 전환을 위한 금융 활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0년 신한은 국내를 넘어 동아시아 최초로 '탄소중립 금융' 선언을 통해, 국내 탄소중립금융을 향한 시작을 알리고, 국내 금융 기관의 참여를 이끌어 왔습니다. 올해 역시도 환경부에서 발표한 K-Taxonomy를 기반으로 기업의 친환경 전환 금융(Transition Finance)를 확대해 나가며, 친환경 금융 선도 금융으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전환이 필요한 국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ESG관련 컨설팅 및 친환경 정보 공개 확대 등을 지원하는 등 고객 인게이지먼트 활동 또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더 많은 기업이 CDP 기반의 환경정보 공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과학적 시나리오 기반의 SBTi 감축 목표 수립에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올해 신한금융그룹은 'CDP Climate Change' 부문에서 국내 금융사로서는 최초로 명예의 전당 플래티넘에 선정되었습니다. 신한이 오랜 기간 CDP와 함께해온 역사가 국내 최고의 친환경 금융그룹이 될 수 있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장지인 CDP 한국위원회 위원장님과 Paul Simpson CDP CEO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신한은 작년 9월 지주회사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Do the Right Thing for a Wonderful World'라는 ESG 슬로건을 발표하였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올바른 일을 하자'는 의미의 슬로건의 첫 번째는 Do the 'Green' Thing입니다. 신한에게 'Green'은 곧 'Right'입니다. 앞으로 녹색금융을 통해 신한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돕는 일에 보폭을 더 넓혀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규

대표이사 회장, KB금융그룹



KB금융그룹은 과학적 기반의 감축 목표를 수립·승인받은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기업 고객들이 탄소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최근 국제사회의 가장 큰 화두 가운데 하나는 기후 변화이며, 지구의 온도 상승으로 인한 위기가 점차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IPCC는 최근 6차 보고서를 통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가 1.5℃ 상승하는 시기가 이전에 예측했던 2052년에서 2040년으로 10년 이상 앞당겨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지구 평균기온이 지금의 추세로 상승할 경우 폭염, 폭우, 가뭄 등 이상 기후 현상이 급속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지난해 개최된 COP26에서 국가들은 '글래스고 기후 합의'를 채택하였으며, 각국 정부 및 민간 부문은 온실가스 감축과 탈탄소 투자에 관한 선언을 발표하며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은 자본의 흐름이 친환경 부문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Green Financing 활동을 통해 저탄소 중심의 산업구조 정착을 촉진하고 우리 사회의 기후 복원력을 제고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KB금융그룹도 이러한 금융의 역할을 통해 인류가 직면한 기후변화 위기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넷제로 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리딩 금융그룹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진지하게 고민하며 실천하고 있습니다.

ESG경영을 선도하고 있는 KB금융그룹은 기후변화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KB GREEN WAVE 2030'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ESG 상품·투자·대출 규모 50조 원 달성'이라는 중장기 목표를 수립하고 ESG금융상품과 투자·대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및 글로벌 차원의 탄소중립 전환에 발맞추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앞장서기 위해 'KB Net Zero S.T.A.R.'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KB Net Zero S.T.A.R.'는 친환경 기업을 지원(Support)하여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Transform)을 가속화하고, 파리협약의 적극적인 이행(Align)을 통해 환경을 복원(Restore)하고자 하는 KB금융그룹의 탄소중립 중장기 추진 전략입니다.

KB금융그룹은 SBT^{Science Based Target Initiative}에서 제시하는 최신의 감축 목표 방법론을 활용하여 내부 탄소배출량 뿐만 아니라 자산 포트폴리오의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금융회사로서 국내는 물론 아시아 지역 처음으로 SBT로부터 탄소 감축 목표에 대한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KB금융그룹은 과학적 기반의 감축 목표를 수립·승인받은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기업 고객들이 탄소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KB금융그룹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은행간 연합체인 NZBA^{Net Zero Banking Alliance}의 아시아-태평양 대표은행으로 선정되어 글로벌 은행들과 협력을 통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탄소배출량 감축 지원, 금융지원 확대 등 글로벌 기후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KB금융그룹은 2021년 'CDP Climate Change' 부문에서 금융권에서 유일하게 Leadership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KB금융그룹은 앞으로도 CDP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정보를 공개하고, 지속가능한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기반을 만드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DP Korea Climate Change & Water Report 2021」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속가능한 친환경 사회 건설을 위해 애써주시는 CDP 한국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KB금융그룹은 지속가능한 녹색 성장을 위해 확고한 리더십과 책임감을 가지고 기후변화 위기 극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욱

국회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
세계의 움직임은 CDP의 지향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CDP가 추구하는 행동 양식은 지속 가능경영에 있고,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기후 금융의 확산은 선택이 아닌 공공을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CDP Korea Report 2021」 발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고서 발간에 힘써주신 장지인 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축하드립니다.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 어젠다 2022 주제는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한 국가의 변화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협력이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큰 해법입니다.

세계 유수의 기업, 경제학자, 정치인이 참여하는 국제 논의의 장에 기후변화 문제가 올라 오기 시작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닙니다. 세계시민은 기후 문제가 곧 경제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저성장·양극화 위기 국면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계층에게는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네트워킹을 우리는 모두의 협력네트워킹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바로 그 중심에 CDP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2021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열렸습니다. 세계 각국은 기후위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고, 같은 해 서울에서 열린 P4G 정상회의에서도 주요국 정상 및 국제기구가 함께 지구온도 상승 1.5도 이내로 억제하자는 뜻을 담은 서울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대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사회로의 대전환은 모든 전환을 이끄는 '바람'입니다. 세계 70여 개국 이상이 목표 시점을 정해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국가는 탄소중립을 법제화했습니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도 상향하여 탄소중립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에 힘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탄소중립은 세계가 나아가야 할 목표이자 동시에 국가경쟁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움직임은 CDP의 지향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CDP가 추구하는 행동 양식은 지속 가능경영에 있고,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기후 금융의 확산은 선택이 아닌 공공을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CDP의 역할을 통해 기업은 지구 환경을 고려한 경영관리를 하고, 투자기관은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는 기업으로의 투자 의사 결정에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CDP가 제공하는 정보는 지구를 살리고 인류의 번영을 이끄는 마중물이자 등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자 <국회 포용국가 ESG 포럼> 대표로서 과학계가 기술을 통한 지속성장에 이바지하고, 기업의 ESG경영 실천과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과 정책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대전환 시대를 맞아 새로운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입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에서도 깊은 관심과 실천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민주당은 기후위기시대에서 기후정의시대, 탄소중립시대에서 탄소제로시대로 뚜벅뚜벅 나아가고 있으며, 그 길이 곧 가장 고통받고 있는 청년과 어린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길임을 믿고 있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이루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CDP 한국위원회 보고서 발간에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늘 그랬듯이 CDP가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최대의 기후금융 플랫폼이자 기후금융을 선도하는 역할을 잘 수행해 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더불어 우수기업들 역시 오늘을 시작으로 올곧은 길을 외면하지 않기를, 그래서 혁신성과 미래기업의 중심에 우뚝 서기를 기원합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금융기관들이 “지속가능성”을 핵심투자지표로 두는 등 사회책임투자가 보편적 가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SG 정보공시가 새로운 국제질서가 됨에 따라 기업들에게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CDP Korea Climate Change & Water Report 2021』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 탄소 사회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써주시는 CDP 한국위원회 장지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무국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5년 파리기후협약 이후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에서 개최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선진국의 경우 2025년까지 기후변화 적응기금을 2배로 확대하기로 하는 ‘글래스고 기후 조약(Glasgow Climate Pact)’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을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겠다”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약속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성장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었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는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에 금융기관들이 “지속가능성”을 핵심투자지표로 두는 등 사회책임투자가 보편적 가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ESG 정보공시가 새로운 국제질서가 됨에 따라 기업들에게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추세에 있어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경영 정보는 사회적 책임투자에 있어 핵심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후변화, 물, 산림자원 등 환경 이슈와 관련하여 전 세계 금융투자기관이 주도해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CDP의 역할은 국제사회에서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CDP에 서명한 금융기관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CDP에 응답한 국내기업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CDP는 기업들이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 나가도록 촉구하는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금융기관이 저탄소, 그리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노력에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시는 CDP의 노력에 존경을 표합니다.

앞으로도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성장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이끌어가는 존경받는 기업이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About CDP

국내 CDP 서명 투자기관¹

- KB금융그룹
- 신한금융그룹
- 하나금융그룹
- 우리금융그룹
- DGB금융그룹
- BNK그룹
- JB금융그룹
- 기업은행
- NH농협은행
- 공무원연금공단
- 삼성생명
- 교보생명
- 삼성화재
- 한화생명
- 미래에셋증권
- 삼성증권
- 현대해상화재보험
- 키움투자자산운용

1. 금융 그룹, 은행, 보험, 증권사, 자산운용사에서 운용자산 순

CDP, 전 세계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기업에게 환경대응 정보공개 요청

CDP는 전 세계 투자 기관의 위임을 받아 각국의 주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환경 이슈(기후변화, 물 경영, 삼림) 대응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프로젝트이다. 2002년, 35개 금융기관(운용자산 4.5조 달러)으로 시작한 CDP는 2022년 현재 전 세계 600개가 넘는 금융기관(운용자산 113조 달러)이 서명기관으로 참여하는 프로젝트로 성장하였다. 2021년, 글로벌 시가총액 64%에 해당되는 13,000개 이상의 기업이 CDP를 통해 기후변화 정보를 공개했다. 국내에서는 총 18개 금융기관이 서명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CDP,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정보공개 요청 기업 선정

CDP는 매년 일정한 타임라인으로 운영된다. 정보공개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CEO와 작성 담당자에게 공식적으로 정보공개 요청을 담은 서한을 발송한다. 정보공개 대상 한국 기업은 매년 시가총액,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및 목표관리제 대상 기업을 고려하여 총 200개 기업이 선정된다. CDP 공식 평가를 받으려는 기업은 공지된 응답 마감일까지 CDP 자체 온라인 응답시스템(ORS)를 통해 준비된 환경 대응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글로벌 평가 점수는 연말 CDP 공식 홈페이지(www.cdp.net)를 통해 공개된다.

CDP 투자기관, 기업의 과학기반감축목표(Science-based Target) 수립 인계이저먼트 본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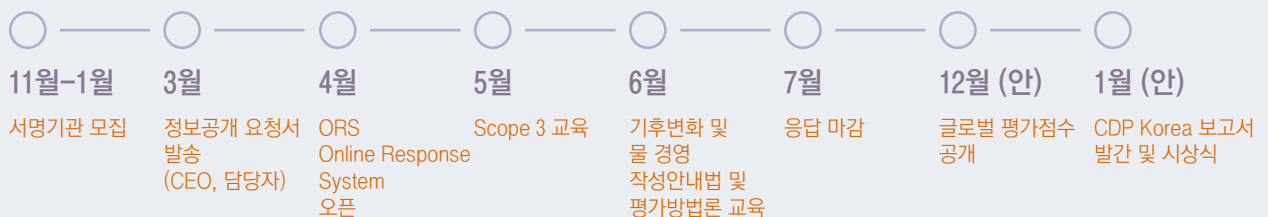
CDP는 투자자 서명기관을 대표하여 기업에 정보공개 요청하는 것을 넘어, 기업에 SBTi(Science-based Target Initiative, SBTi)의 기준에 부합하는 과학기반감축목표 직접 인계이저먼트를 시작했다. 과학기반목표 수립 캠페인(Non-Disclosure Campaign)은 캠페인 활동에 동의한 CDP 서명기관이 기업에 서한을 보내 SBTi의 기준에 부합하는 감축 목표를 수립할 것을 요청한다.

SBTi에 참여하는 투자 기관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1년, 137개의 투자기관이 참여하여 약 1,800개가 넘는 기업에 SBT수립을 요구하는 공식 서한을 보냈다. 이에 68개의 기업이 SBT를 2년 내 수립하겠다는 SBTi 선언에 동참하였으며, 31개의 기업은 SBTi에 감축목표를 제출하여 승인 받았다. CDP의 SBTi 캠페인에 참여하는 투자 기관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기업에 기후변화 대응을 요청하는 금융기관의 인계이저먼트가 본격화된 것을 증명한다.

2021 CDP SBTi 캠페인에는 국내에서도 CDP 서명기관 중 KB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이 참여했다.

2022 CDP 주요 일정

(아래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1 Korea Leaders

Climate Change

The Climate Change A List¹

현대글로벌비스
KB금융그룹
LG유플러스
SK텔레콤

CDP Korea 명예의 전당²

| 구분 | 수상기업명 ³ | 현액연도 |
|---------------|--------------------|------|
| Platinum Club | SK하이닉스 | 2013 |
| | 신한금융그룹 | 2014 |
| | 현대건설 | 2017 |

CDP Korea Awards Climate Change 수상기업

| 시상명 | 부문 | 수상기업명 ⁴ | 밴드 | 연속수상 ⁵ | |
|----------------|----------|--------------------|------------|-------------------|-----|
|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 | | 현대글로벌비스 | Leadership | A | 2년 |
| | | KB금융그룹 | Leadership | A | 1년 |
| | | SK텔레콤 | Leadership | A | 1년 |
| | | 하나금융그룹 | Leadership | A- | 2년 |
| | | 현대위아 | Leadership | A- | 1년 |
|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 | 금융 | KB금융그룹 | Leadership | A | 5년 |
| | | 하나금융그룹 | Leadership | A- | 3년 |
| | | DGB금융그룹 | Management | B | 1년 |
| | 산업재 | 현대글로벌비스 | Leadership | A | 5년 |
| | | 삼성엔지니어링 | Leadership | A- | 7년 |
| | | SK(주) | Leadership | A- | 1년 |
| | | GS건설 | Management | B | 1년 |
| | | 기아 | Leadership | A- | 3년 |
| | 선택소비재 | 현대위아 | Leadership | A- | 1년 |
| | | LG전자 | Leadership | A- | 1년 |
| | | 한국전력공사 | Leadership | A- | 6년 |
| | 에너지&유틸리티 | SK이노베이션 | Leadership | A- | 1년 |
| | | 롯데케미칼 | Leadership | A- | 1년 |
| | | 한화솔루션 | Leadership | A- | 1년 |
| | 원자재 | LG화학 | Leadership | A- | 1년 |
| | | 삼성바이오로직스 | Management | B | 1년 |
| | | LG유플러스 | Leadership | A | 8년 |
| | 통신 | SK텔레콤 | Leadership | A | 1년 |
| | | 아모레퍼시픽 | Management | B | 1년 |
| | 필수소비재 | 아모레퍼시픽 | Management | B | 1년 |
| IT | | LG디스플레이 | Leadership | A- | 6년 |
| | | 삼성전자 | Management | B | 13년 |
| | LG이노텍 | Management | B | 3년 | |
| 탄소경영 특별상 | 자발적참여 | SK에코플랜트 | Leadership | A- | 1년 |
| | | 코스맥스 | Management | B | 1년 |
| | | 한국동서발전 | Management | B | 3년 |
| | 신규참여 | 효성티앤씨 | Leadership | A- | 1년 |
| | | 한국남부발전 | Management | B | 1년 |
| | | SKC | Management | B | 1년 |

1. A-list 가나다 순
2. 명예의 전당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기업은 1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함. 단, 유예 기업은 당해 연도 모든 시상에서 제외되며, 다음 연도에 기준을 충족할 시 명예의 전당을 회복할 수 있음
3. 현액연도 및 가나다 순
4. 등급 및 가나다 순
5. 각 시상내에서의 연속수상을 의미

2021 Korea Leaders

Water

The Water Security A list¹

기아
삼성전자
포스코
LG이노텍

CDP Korea Awards Water 수상기업

| 시상명 | 부문 | 수상기업명 ² | 밴드 |
|-----|-----|--------------------|---------------|
| 대상 | | 기아 | Leadership A |
| 최우수 | | 삼성전자 | Leadership A |
| | | 포스코 | Leadership A |
| | | LG이노텍 | Leadership A |
| 우수 | | 롯데케미칼 | Leadership A- |
| | | 풀무원 | Leadership A- |
| | | 현대자동차 | Leadership A |
| | | LG디스플레이 | Leadership A |
| | | LG화학 | Leadership A- |
| | 특별상 | 신규참여 | 삼성디스플레이 |

CDP Korea Awards 수상기업 선정기준^{3,4}

Climate Change⁵

명예의 전당⁶

-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 5년 연속 편입기업
- CDP 제 3차 검증 받은 기업
- Platinum Club: 명예의 전당 4년이상 유지 기업
- Gold Club: 명예의 전당 1년 - 3년차 기업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

- Leadership A- 이상 획득하고 CDP 제 3차 검증받은 기업 중 상위 5개 기업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

- 섹터별 Management B 이상 획득 기업 중 상위 3개 기업 (단, 응답기업 5개 미만 섹터 상위 2개, 15개 이상 섹터 상위 4개)

탄소경영 특별상

▶ 자발적 참여 부문

- 대상: CDP Korea 200 샘플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CDP를 통해 정보 공개에 참여한 기업
- 기준: Management B 이상 획득기업 중 상위 3개 기업

▶ 신규참여 부문

- 대상: CDP에 단 한번도 응답하지 않은 기업
- 기준: Management B 이상 획득기업 중 상위 3개 기업

Water

대상

- Leadership A 획득기업 중 상위 1개 기업

최우수

- Leadership A 획득기업 중 상위 3개 기업 (대상 수상기업 제외)

우수

- Leadership A- 이상 획득기업 중 상위 5개 기업(대상, 최우수 수상기업 제외)

특별상

▶ 신규참여 부문

- 대상: CDP에 단 한번도 응답하지 않은 기업
- 기준: Management B- 이상 획득기업 중 상위 3개 기업

1. A-이하 가나다 순

2. 가나다 순

3. CDP Korea Awards는 글로벌과 동일한 평가방법론을 적용하여 산정된 평가 점수를 바탕으로 선정되며, 국내에서만 적용되는 시상제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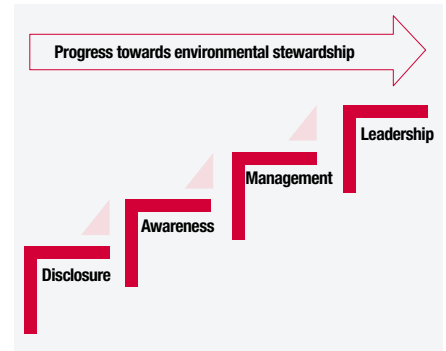
4. CDP Korea Awards의 수상기업은 CDP한국자문위원회 (명단: 보고서 후면 참조)를 통해 공정하게 선정됨

5. CDP를 통해 보고한 전체 응답내용에 대한 제3차 검증을 받은 기업은 수상기업 선정 시, 인센티브 (10%) 부여됨

6. 명예의 전당에 편입 후 유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며, 그 다음 해에 기준을 충족할 경우 명예의 전당을 유지할 수 있음

CDP 평가시스템

CDP평가시스템은 기업의 지속가능성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기업은 CDP평가를 경쟁사 혹은 섹터 내의 최우수 기업과의 비교를 통해 지속가능성 로드맵 수립의 초석으로 활용할 수 있다. CDP 평가방법론은 기업의 환경성과를 향상하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해에 걸쳐 개선되어 왔다. CDP평가시스템은 지속가능한 경제의 실현이라는 CDP의 미션과 원칙 달성을 위한 핵심이다.



CDP의 2021년 질의서는 3가지 영역- 기후변화(Climate Change), 수자원(Water Security), 삼림(Forest) 내에서 각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 샘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CDP는 활동, 활동그룹, 산업의 세 단계로 구성된 활동기반 산업분류시스템인 CDP-ACS(Activity Classification System)을 개발하였다. CDP-ACS는 기업이 매출을 창출하는 사업영역과 사업이 기후변화, 수자원 안정성, 삼림훼손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기업을 가장 적절한 섹터로 분류한다. 이를 통해, 환경과 리스크, 기회, 영향의 관점에서 기업의 활동에 대한 이해도와 데이터의 비교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섹터 별 접근방식은 섹터 별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각 기업의 환경 책무 이행 수준을 보다 유익하게 평가하고 기업간 벤치마킹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CDP평가는 내부 검증을 거친 평가파트너에 의해 수행된다. CDP평가팀은 평가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관리와 기업 간, 평가파트너 간 평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검증을 진행한다.

CDP는 기업의 환경책임을 다음의 4단계로 구분하여 기업의 응답을 평가한다.

- Disclosure:** 기업 응답의 완성도 평가
- Awareness:** 환경이슈, 리스크, 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업의 인식 수준 평가
- Management:** 환경이슈 대응을 위한 기업의 활동, 정책, 전략 평가
- Leadership:** 환경경영 관련 우수사례 Best Practice 및 리더십 평가

CDP의 기본적인 평가체계는 모든 섹터 및 질의서에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각 문항 별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섹터 별 질의서에 맞게 일부 수정되어 적용된다.

| | Climate Change | Water Security |
|-------------------|----------------|----------------|
| A | > 65% | |
| Leadership | | 1-64% |
| A- | | 45-75% |
| B | | 1-44% |
| Management | | 45-79% |
| B- | | 1-44% |
| C | | 45-79% |
| Awareness | | 1-44% |
| C- | | 45-79% |
| D | | 1-44% |
| Disclosure | | 1-44% |
| D- | | |

F: 기후변화대응 수준 평가를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F 부여¹

1. 모든 기업이 CDP로부터 정보공개 요청을 받지는 않음. 정보공개 요청을 받은 기업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F가 부여됨. 다만, F가 반드시 해당기업이 환경경영 또는 환경책무 이행에 실패하였음을 나타내지는 않음

각 질문 문항은 두개 이상 단계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 단계별 평가기준은 질의문항 전반에 걸쳐서 분포되어 있으며, Disclosure 단계 평가는 모든 문항에 적용된다. 반면, 일부 문항의 경우, Awareness, Management, Leadership 단계 평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평가 카테고리 및 가중치

CDP는 세분화된 기업평가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평가 카테고리 수를 늘렸다. 평가 카테고리는 2021 질의서 모듈의 하위 그룹으로, CDP의 프로그램(기후변화, 수자원, 삼림)별로 상이하거나 동일 프로그램 내의 섹터 간에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동일한 환경이슈라 하더라도 섹터별로 미치는 영향과 관리방법은 다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섹터별로 문항의 가중치는 다르게 적용된다.

가중치는 Management와 Leadership 단계의 카테고리 별 점수 산정에 적용되며, 점수 산정 방법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분자값/분모

값*100. 비율(%)로 산정된 각 단계의 카테고리 별 점수에 해당 카테고리의 부여된 가중치를 반영하여 재산정되며 (카테고리 가중치(%)/100 * Management/Leadership 점수(%)), 각 카테고리의 점수의 합이 최종 점수가 된다.

가중치는 Management와 Leadership 단계 평가에만 적용되며, 새롭게 도입된 문항이 포함된 카테고리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중치가 부여될 예정이다. 각 이슈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동일한 섹터라 하더라도 프로그램 별로 다른 가중치가 적용될 예정이다.

CDP점수는 CDP보고서, 블룸버그 터미널, 구글 파이낸스, 독일 증권소 Boerse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CDP는 평가와 관련된 이해관계 상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다음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cdn.cdp.net/cdp-production/cms/guidance_docs/pdfs/000/000/233/original/Scoring-Introduction.pdf?1639144388

공통^{General} Sector의 카테고리 별 가중치¹

| 카테고리 | Management 가중치 | Leadership 가중치 |
|-------------------------|-------------------|-------------------|
| 지배구조 | 11.0% | 11.5% |
|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 | 10.0% |
| 리스크 공개 | | 8.0% |
| 기회 공개 | 6.0% | 5.0% |
| 사업영향평가 & 재무계획평가 | | 9.0% |
| 시나리오 분석 | | 2.0% |
| 목표 | | 14.0% |
| 온실가스 감축활동 및 저탄소 제품 | | 5.0% |
| Scope 1 & 2 배출량 (검증 포함) | 12.0% | 13.0% |
| Scope 3 배출량 (검증 포함) | | 5.0% |
| 에너지 | 7.0% | 8.0% |
| 기타 기후관련 지표 (검증 포함) | | 0.0% |
| 탄소가격 | 2.0% | 0.0% |
| 가치사슬 인계이지먼트 | | 5.0% |
| 정책 인계이지먼트 | 1.0% | 0.0% |
| 커뮤니케이션 | 1.0% | 0.5% |
| SignOff | | 2.0% |
| 100% Disclosure 점수 획득 | 0.0% | 2.0% |
| 합계 | 100% | 100% |

1. 이 표는 공통^{General} 평가방법론에 적용된 카테고리 별 가중치 예시임. 섹터 별 평가 카테고리 및 가중치는 다음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s://www.cdp.net/en/guidance/guidance-for-companies>

Do the 'Green' Thing



국내 금융업계 최초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평가
7년 연속 리더십 A 획득

Zero
Carbon
Drive

동아시아 금융그룹 최초
탄소중립전략 발표

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국내 최초
기후변화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 가입

UN
environment
programme
finance
initiative

국내 최초
글로벌 탄소중립 은행연합
창립멤버

Together For Our Planet



아시아 민간금융그룹 최초
2021 유엔기후변화총회 탄소중립 전략발표



2021년 신한은 금융배출량에 대한 관리를 보다 더 정교화 하기 위해 기존 발표한 Zero Carbon Drive 전략을 고도화 하였습니다. 먼저 PCAF 방법론을 기반으로 6개 자산, 총 210조원의 금융배출량 측정 커버리지를 보다 더 확대하고 분기별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측정된 금융배출량 기반으로 SBTi 방법론을 사용하여 2020년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36.2%, 2040년까지 62.5%라는 감축 목표를 재설정하였습니다.

2022년부터는 고탄소 업종으로 분류되는 발전, 철강, 화학, 시멘트 업종의 친환경 전환을 돕기 위한 Transition Finance를 확대하고, 친환경 기반의 기술 투자 등 2030년까지 친환경 금융 목표 30조원을 향한 시작을 본격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제26차 UN 기후변화당사국 총회 파이낸스 데이 세션에서 아시아 금융사 최초로 탄소중립금융에 대한 신한이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런 대외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UNEP FI에서 주관하는 최고 권위 위원회인 리더십 위원회에 그룹CEO가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는 ESG 분야의 흐름을 사전에 파악하고 국내 전파하는 역할 또한 적극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그 시작으로 신한금융그룹은 국내 탄소중립금융의 역할을 넘어 신한이 진출해 있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의 탄소중립 참여를 위한 많은 지원과 협력을 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가 함께하는 탄소중립의 길에 신한금융그룹 또한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신한금융그룹은 지주회사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성장하기 위한 열망을 담아 'Do the Right thing for a Wonderful World'라는 ESG슬로건을 발표하였습니다. ESG를 대표하는 각각의 단어 Green, Brave, Fair는 앞으로 신한이 추구할 금융의 새로운 모습입니다. 모두가 함께 할 더 나은 미래에 'Green'을 가장 앞에 두고 지속가능금융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한금융그룹



1.5°C와 가치사슬

탄소중립의 시대, 기업의 온실가스 관리 범위가 조직 경계를 넘어 가치사슬(Value Chain)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기후변화 정책 강화와 글로벌 시장을 말미암아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COP 26의 결정문에 지구평균온도상승을 1.5°C로 제한해야 하는 필요성이 추가되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2010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45% 감축과 늦어도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달성이 중요하다는 문장이 추가되었다. IPCC의 「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가 공개되고 3년만이었다.

기후변화 정책 지속적으로 강화 전망

국가들의 2050 탄소중립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독일이나 영국 등 탄소중립을 2050년보다도 앞당겨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도 있다. 뿐만 아니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s, NDC)를 상향하여 제출한 국가도 23개에 달했다.¹

그럼에도 지금의 목표 수준으로는 지구평균온도 상승을 1.5°C로 제한하기 위한 배출량 시나리오보다 많은 배출량이 예측된다. 국가들이 상향한 NDC와 정책 강화로 인해 2030년 지구의 예상 배출량이 기존의 59.5GtCO₂e에서 54.5GtCO₂e로 줄어든 전망이지만, 이조차도 아직 1.5°C 시나리오 상의 2030 목표(31.9GtCO₂e) 보다는 22GtCO₂e가량 많다.²

22GtCO₂e는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과 미국의 연간 배출량을 합한 것보다도 많은 수치이다.

탄소중립이 지구평균온도 상승을 1.5°C로 제한하기 위함임을 감안하면, 국가들이 탄소중립을 발표하거나 NDC를 상향했다라도 국제사회로부터 감축목표 상향과 이에 부합하는 기후변화 정책 강화에 대한 요구는 끊임없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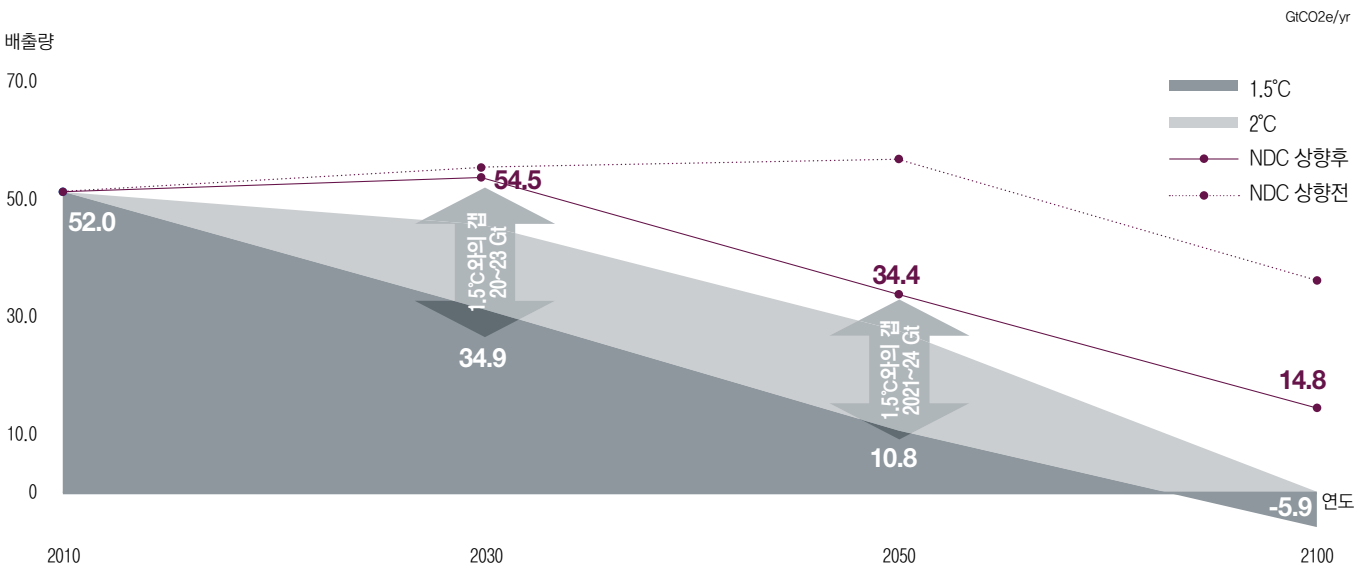
온실가스 규제와 가치사슬

기후변화 정책이 강화되면서 기업의 Scope 3 배출량, 즉 조직 경계 외의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배출량 관리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2021년 7월, 유럽 의회가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입법안을 공개했다. 입법안에 따르면 EU 역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대상 품목의 배출량에 따라 탄소 가격이 부과된다. 주목할만한 점은 복합재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는 방식이다.³ 단순재에는 조직경계 내 생산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만을 고려한다.

1. Climate Action Tracker (2022) <https://climateactiontracker.org/climate-target-update-tracker/>
 2. AFOLU를 제외한 배출량: 1.5°C는 IMAGE 모델의 ssp119, 2°C는 ssp126, NDC는 AR6GWP100 시나리오 적용함. 출처: Climate Resource
 3. 입법안에 따르면 단순재(Simple Goods)는 오로지 재료와 연료를 투입하여 생산된 제품이며, 복합재(Complex Goods)는 다른 제품의 투입을 필요로 하는 제품을 의미함

1.5°C와 2°C, 그리고 NDC 상향 전·후 글로벌 연간 배출량 시나리오



SBTi 넷제로 선언 기업

1,156개

반면, 복합재의 내재배출량은 복합재 생산에 투입된 모든 중간재들의 배출량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중간재들의 배출량은 복합재를 생산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조직 경계 외의 업스트림에서 발생한 배출량이다.

초기에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품목이 매우 제한적이지만, 입법안에 따르면 대상은 점차 확대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EU가 탄소국경조정 제도를 실질적으로 도입하게 된다면, 다른 국가들도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비슷한 메커니즘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담은 FAIR Transition and Competition Act이 2021년 7월 발의되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Scope 3 부상

규제에 앞서 시장에서는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Scope 3 배출량 관리를 시작했다. 애플, BMW, 월마트 등 자사뿐만 아니라 공급망으로부터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금융기관도 투자·대출 등으로 인한 기타 간접 배출량을 감축하려는 목표를 수립하기 시작했다.

지난 3년 간 Scope 3 스크리닝을 완료한 글로벌 기업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CDP 2021에서는 47%에 달했다. Scope 3 목표를 수립한 글로벌 기업 비율도 22%로 늘어났다. 또한 공급사에게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CDP Supply Chain

프로그램 멤버의 요청으로 CDP에 응답하는 공급사 수도 지난 해에 비해 44%나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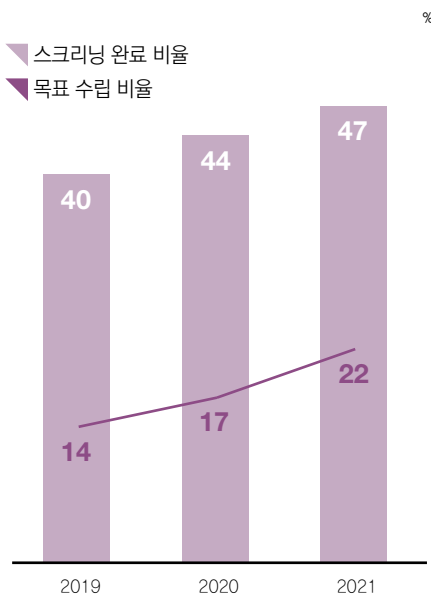
이러한 추세는 넷제로의 확산과 함께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공신력 있는 기업의 감축 목표 기준을 제시하는 곳은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인 SBTi^{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이다. 2021년 10월, SBTi에서 세계 최초로 기업의 넷제로에 대한 기준을 담은 SBT 넷제로 스탠다드 및 기준^{SBTi Corporate Net-zero Standard Criteria}을 발표했다.

해당 스탠다드에 따르면, 기업은 장기 목표에 반드시 Scope 3 배출량의 90%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즉, 기업의 1.5°C에 부합하는 넷제로 목표는 공급사와 고객사의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져야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2021년 12월 기준, 1,156개의 기업이 2년 내에 SBTi 기준에 따라 1.5°C에 부합하는 넷제로 목표를 수립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기업들의 넷제로 선언이 확산될수록 Scope 3 배출량 관리에 대한 관심도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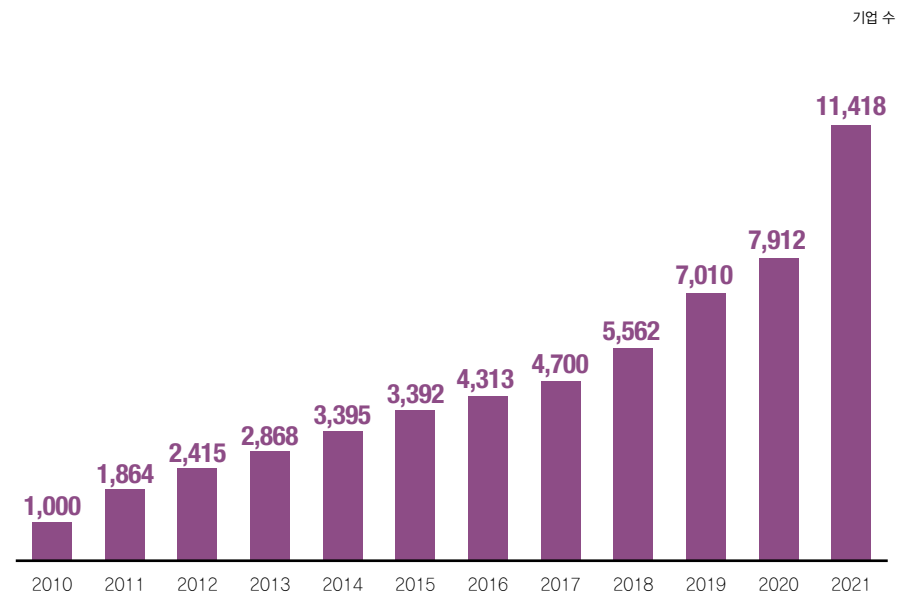
가치사슬 내 기후 리스크 대비 필요

2021 CDP에 글로벌 기업들이 보고한 기후 리스크 중 약 31%는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였다. 다운스트림에서는 시장과 명성 리스크가 가장 많이 보고되었다.

CDP 글로벌 기업 Scope 3 스크리닝 및 목표 수립 비율 추이



CDP Supply Chain 멤버 고객사의 요청에 응답한 공급사 수 추이



기후변화는 고객사의 조달 패턴 또는 조달 업체 선택 과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재무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업스트림에서는 공급사가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피해 때문에 원활한 서비스나 제품의 공급을 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리스크가 주로 보고되었다.

경쟁력 위해서는 규제 이상 감축 필요

2021년 8월 31일, 탄소중립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11월, 탄소 중립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2030년 35%의 최소 감축률 기준보다도 높은 40% 감축률을 목표로 하는 NDC가 발표되었다.

가치사슬 내 산재하는 기후 리스크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Scope 3 배출량 감축을 통해 가치사슬의 탄소 익스포저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가치사슬 외 감축

SBTi는 지구의 온도 상승 제한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위해 기업이 가치사슬 내 감축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가치사슬 외에서 *beyond the value chain* 도 탄소 흡수나 제거 활동을 이행하거나 투자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기업이 1.5°C에 부합하는 가치사슬 내 감축을 달성했다라도 배출량이 0일 수 없는 경우, 탄소 상쇄를 통해 탄소중립에 이를 수 있다. 다만 가치사슬 외에서의 기후변화 완화는 직접적인 배출량 감축보다 우선시되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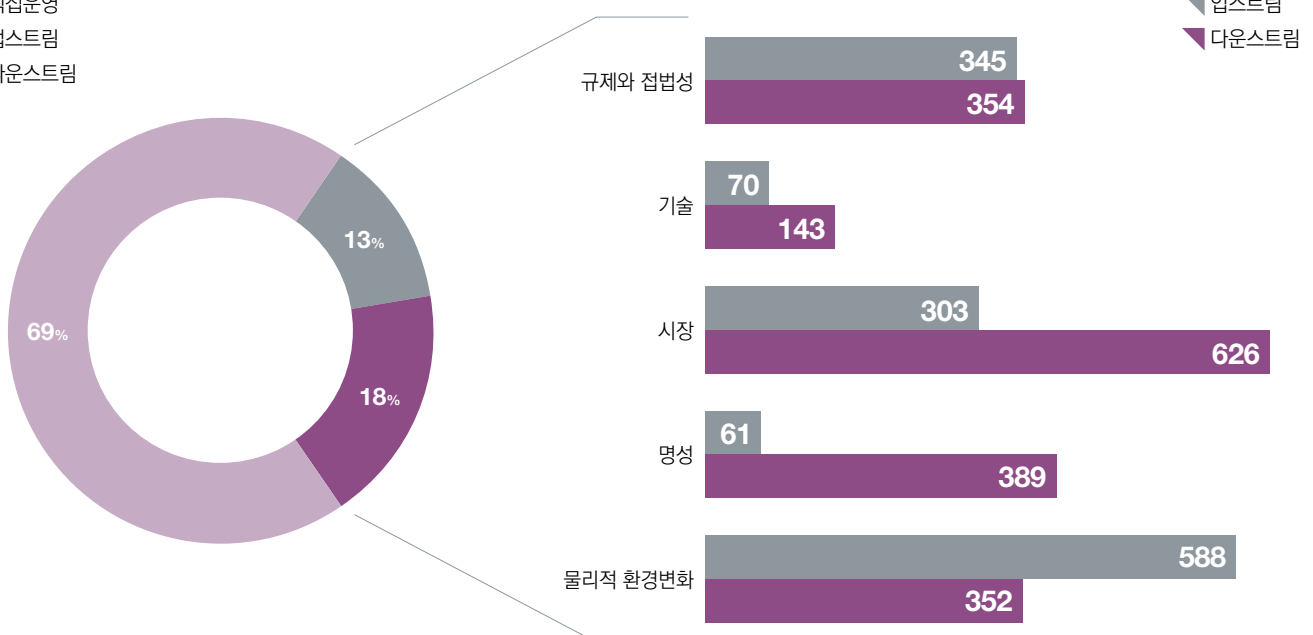
NDC에 포함된 2030 산업계 목표 또한 243.8 MtCO₂e에서 222.6 MtCO₂e로 8% 상향 조정되어, 2010년 배출량 대비 14.5% 감축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NDC 상의 산업계 배출량은 제조업 중심의 Scope 1 배출량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넓은 범위에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의 길잡이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내 기업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NDC 수준의 감축률을 넘어 더 멀리, 그리고 더 넓게 볼 필요가 있다. 기업들의 넷제로 목표 수립과 선언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내 기업은 Scope 3 배출량을 감축하고자 하는 고객사와 금융권에서부터 1.5°C에 부합하는 배출량 감축 요구에 끊임없이 마주할 것이다. 특히, 향후 가치사슬로부터의 기후 리스크가 더욱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보고건 수

가치사슬 내 리스크 유형

- 직접운영
- 업스트림
- 다운스트림



삼성전자, CDP SC 프로그램을 말한다

CDP Supply Chain 프로그램의 유일한 국내 회원사인 삼성전자는 2019년부터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공급망의 온실가스 관리를 촉진 및 지원하고 있다. 공급사 응답률을 글로벌 SC 회원 평균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삼성전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들어본다.



가장 큰 장점은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응을 준비하는 공급사가 확실히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공급망의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기후 리스크에 대한 노출 정도를 파악하기가 용이 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2019년부터 CDP Supply Chain에 참여하고 있는데, 계기가 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당시 재생에너지 목표를 수립하면서 자사뿐만 아니라 공급사들의 기후변화 대응도 지원해야 한다는 인식이 내부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공급사의 온실가스 데이터를 수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CDP의 Supply Chain 프로그램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가입 전에 공급사들이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하여 고민이 많았습니다. 당시에도 이미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기는 했지만 국내에서는 저희가 최초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두에게 윈윈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CDP에 응답하라는 요청만 해서는 공급사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 자명했기 때문에 어떻게 지원해줘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도 고심한 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느낀 장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장점은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응을 준비하는 공급사가 확실히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공급망의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기후 리스크에 대한 노출 정도를 파악하기가 용이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공급사 응답률은 매년 높아지고 있는데, 그 비결이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CDP SC 프로그램을 계기로 삼성전자는 공급사들에게 온실가스 산정부터 목표 수립, 이행 방안까지 단계별로 교육을 제공해왔습니다. 단순히 응답률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공급사가 기후변화 대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었기 때문에, 항상 공급사의 입장에서 정말로 필요한 정보가 무엇일까, 어려움이 무엇일까 고민해서 교육을 구성했습니다.

특히, 외부 기후변화 전문가를 초빙하여 재생에너지 세미나를 분기별로 운영하고, CDP SC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급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첫 해 60% 수준이었던 응답률을 2020년에는 글로벌 평균보다도 높은 71%, 2021년에는 77%까지 올릴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CDP Supply Chain에 참여하면서 아쉬운 점도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참여대상 공급사를 확대하면서 규모가 작은 일부 공급사에서 영어 질의서로 인해 효과적인 대응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CDP SC 프로그램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이나 일본처럼 한국어 서비스를 시작하여 중소 규모의 공급사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
김인덕 프로

금융의 가치사슬, 포트폴리오 탄소중립

1.5°C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고 있는 업계가 금융이다. 그 배경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산가치 하락 등의 리스크가 자리잡고 있다. 금융기관의 기후 리스크 관리는 포트폴리오 탄소중립으로 귀결된다.

CDP 국내 서명기관의 운용 자산

3,600조원

- KB금융그룹
- 신한금융그룹
- 하나금융그룹
- 우리금융그룹
- DGB금융그룹
- BNK그룹
- JB금융그룹
- 기업은행
- NH농협은행
- 공무원연금공단
- 삼성생명
- 교보생명
- 삼성화재현대해상화재보험
- 한화생명
- 미래에셋증권
- 삼성증권
- 삼성화재현대해상화재보험
- 키움투자자산운용

온실가스 규제 강화는 고탄소 산업에 투입된 금융자산의 가치하락을 야기함으로써 금융기관에게 재무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영국이나 프랑스 등의 금융 당국은 이러한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기후 리스크 정책 본격화 조짐

2021년 10월, 한국은행은 기후변화 이행 리스크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² 결과에 따르면 2°C 시나리오의 경우 국내 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이 규제비율 수준인 10%대로 하락할 수 있으며, 1.5°C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그 이하까지 하락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리스크는 고탄소 산업에 대한 익스포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수은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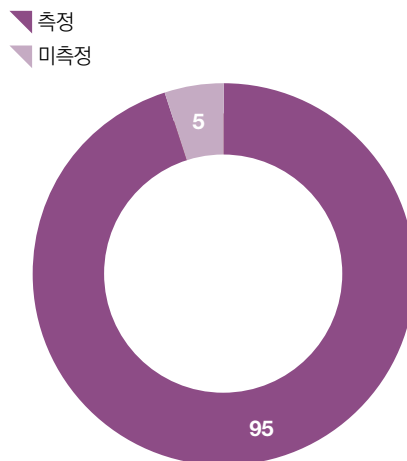
금융기관이 기후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탄소 익스포저를 줄일 수 있도록 하거나 기후 리스크의 영향이 적은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기후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가 필요하다.

정보공개가 기후 리스크 관리를 위한 초석으로 불리는 이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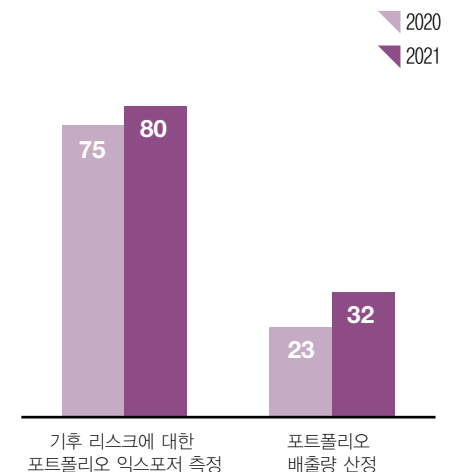
유럽은 몇 년 전부터 ESG정보공시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왔다. 500인 이상 기업의 ESG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비재무정보공시지침(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NFRD)에 더하여, 2021년에는 모든 상장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검증을 의무화하는 기업지속가능정보공시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이 채택되었다. 금융기관이 투자 및 금융상품을 공시할 때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지속가능금융정보공시규제(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SFDR)는 2021년을 시작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국내도 금융의 지속가능금융공시 정책을 수립 중에 있으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2021년 12월에 발표되었다.

한편, 금융기관의 기후 리스크 관리를 장려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은 최근 금융기관의 기후 리스크 측정 및 관리를 의무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집중 분석했다.³ 한국의 경우에도 금융감독원이 2022년부터 스트레

기후 리스크 식별 글로벌 금융기관 비율 %



포트폴리오 기후 리스크 및 배출량 산정 비율 %



1. 금융 그룹, 은행, 보험, 증권사, 자산운용사에서 운용자산 순
 2. 한국은행 (2021), 기후변화와 한국은행의 대응방향
 3. <https://greencentralbanking.com/2021/10/22/ecb-climate-related-capital-requirements/>

PCAF 가입 국내 금융기관¹

- KB금융그룹
- 하나금융그룹
- 우리금융그룹
- 기업은행
- 신한금융그룹
- DGB금융그룹
- JB금융그룹
- 한화자산운용

스 테스트를 시범적용하고 기후 리스크 관리의 정착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후 리스크와 금융의 가치사슬

금융권은 이러한 동향에 민첩하게 반응하고 있다. 2021년 TCFD 권고안 이행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금융기관의 33%가 기후 리스크 측정 프로세스를, 32%가 기후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공시했다.² 이는 2018년과 비교하면 각각 15%, 18%, 19% 증가한 수치이다.

CDP 2021에 응답한 글로벌 금융기관 중 95%가 기후 리스크를 식별하고 있었으며, 기후 리스크에 대한 포트폴리오 익스포저를 산정하는 금융기관도 80%에 달했다. 포트폴리오 배출량을 산정한 금융기관도 2020년 23%에서 2021년 32%로 증가했다.

기후 리스크에 대한 포트폴리오 익스포저는 포트폴리오 배출량과 무관하지 않다. 금융기관의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온실가스 중, 투자·대출 등의 금융행위로 인한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을 포트폴리오 배출량이라 한다. 포트폴리오 배출량은 금융기관이 자본을 투입함으로써 그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에 기여한 정도를 반영한다. 자본을 고탄소 업종에 투자한다면 해당 업종의 배출량이 많은 만큼 금융기관의 포트폴리오 배출량도 많을 것이다. 고탄소 업종은 기후 리스크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기후 리스크에 대한 익스포저도 높아지게 된다.

금융의 탄소중립도 가치사슬 단위

2019년, SBTi는 금융 섹터의 감축목표를 위한 별도 기준을 발표했다. 금융이 다른 산업 섹터와 대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은 Scope 3 카테고리 15(투자), 즉 포트폴리오 배출량을 필수로 산정하고 관련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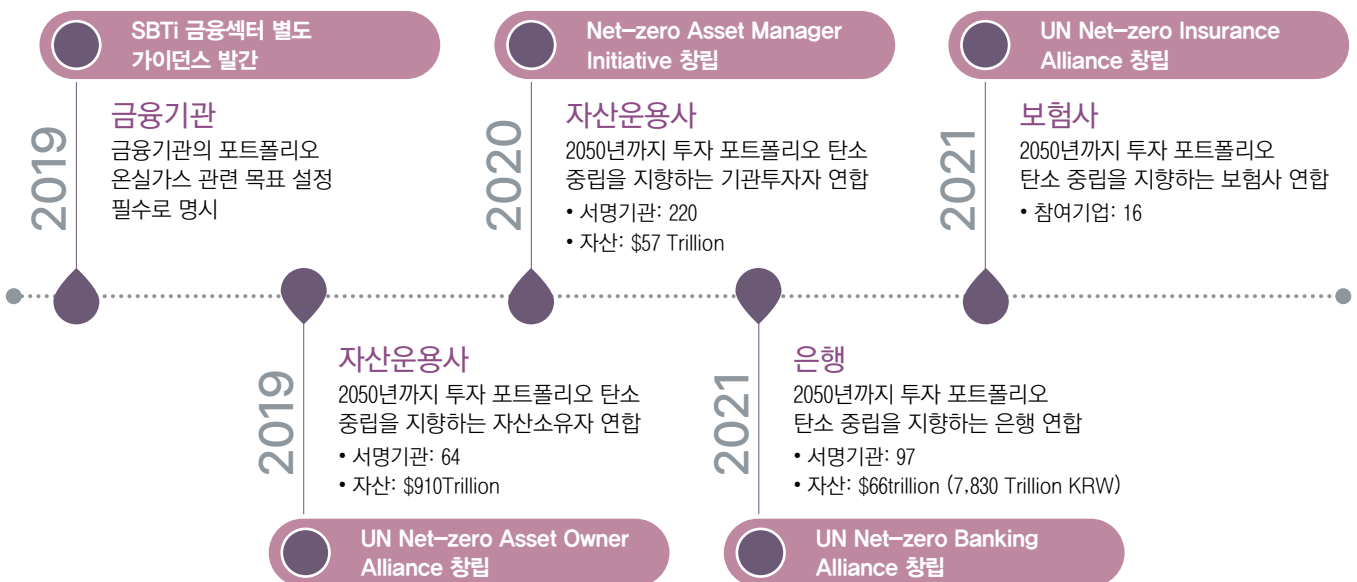
이어 포트폴리오의 탄소 중립을 약속하는 UN 넷제로 에셋오너 얼라이언스^{UN Net Zero Asset Owner Alliance}가 창립되었고, 2020년에는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하는 넷제로 에셋 매니저 이니셔티브^{Net Zero Asset Managers initiative}가 발족되었다. 이를 시작으로 각 금융 섹터에 특화된 탄소중립 금융 이니셔티브가 연속해서 출범했다. COP 26에서는 금융 섹터별로 분류되어 있는 여러 탄소중립 금융 이니셔티브를 한 곳에 모이기 위해 글래스고 넷제로 금융 얼라이언스^{Glasgow Financial Alliance for Net Zero, GFANZ}가 출범했다. 글래스고 넷제로 금융 얼라이언스는 탄소중립을 약속한 서로 다른 유형의 금융 기관들 간의 시너지 창출을 목표로 한다.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포트폴리오의 탄소 중립, 즉 금융배출량의 탄소 중립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포트폴리오 배출량 산정 체계화

금융기관의 포트폴리오 온실가스 산정은 포트폴리오 배출량 산정의 표준화 움직임과 함께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2019년, 포트폴리오 배출량 산정을 표준화하여 적용과 공시를 촉진하는 탄소회계 금융 협의체^{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 PCAF}가 출범했다. 당시 약 55개의 회원 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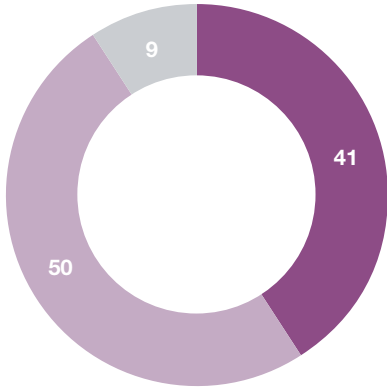
1. 운용자산 순
2. TCFD (2021), TCFD Status Report 2021

글로벌 탄소중립 금융 이니셔티브 동향



금융기관의 기업 인게이지먼트 비율

- ▼ 정보공개 요청
- ▼ 인센티브
- ▼ 협력과 혁신



금융기관으로 이루어 졌던 PCAF는 2년새 180개가 넘는 규모로 성장했다.

국내에서도 2021년 1월 PCAF가 소개된 이후, 1년이 채 안 되는 사이 4대 금융그룹을 비롯하여 총 8개의 금융기관이 가입했다(운용자산 약 2,100조). 이들은 PCAF에 가입함으로써 2년 내에 금융배출량을 산정하여 공개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상당한 규모의 국내 자본의 간접 배출량이 측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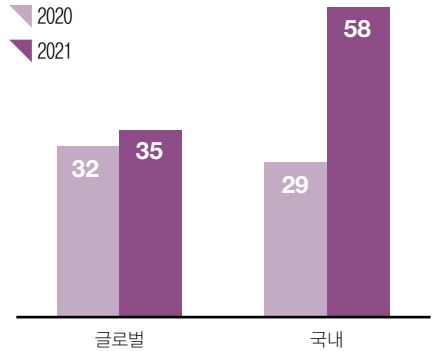
포트폴리오 배출량 관리 본격화

포트폴리오 배출량 감축을 위해 행동에 나서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피투자자와 인게이지먼트를 하는 금융기관의 비율은 지난 해 32%에서 35%로 증가했다. 인게이지먼트 유형으로는 정보 공개 요청이 41%, 인센티브를 주는 유형이 50%, 협력과 혁신을 추진하는 유형이 9%였다.

금융기관 인게이지먼트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CDP SBTi 캠페인이다. CDP는 매년 참여를 원하는 서명기관을 모집하고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과학기반 감축목표를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 서한을 보낸다. 서명기관의 캠페인 참여도는 2020년 137개에서 2021년 220개로 증가했다. 2021 CDP SBTi 캠페인의 서명기관으로 국내에서는 KB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미래에셋증권이 참여했다. 2021년 캠페인의 결과로 68개의 기업이 2년 내 과학기반목표수립을 약속했고, 31개의 기업이 SBTi에 목표를 제출하여 승인받았다.

금융기관의 기업 인게이지먼트 비율

- ▼ 2020
- ▼ 2021



기후변화 이슈를 내부 정책에 통합시킨 금융기관도 다수 있다. 약 40%의 금융기관이 기후변화 이슈를 투자 정책에 통합하였으며, 31%의 금융기관은 크레딧 정책에 포함했다. 인게이지먼트 정책과 의결권 정책에 기후변화 이슈를 포함한 금융기관도 각각 17%, 15%였다.

산업계, 금융권의 움직임 주목해야 할 때

금융권에 부는 탄소 중립 바람은 기업의 배출량 감축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가 계속해서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도 포트폴리오 탄소중립을 약속하는 금융기관이 속속히 등장하고 있다. 2021년, KB 금융그룹은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 최초로 SBTi 승인을 받음으로써 단계적인 포트폴리오 배출량의 감축을 예고했다. KB 금융그룹 외에도, 글로벌 탄소중립 금융 이니셔티브에 가입하여 포트폴리오 탄소중립을 선언한 국내 금융기관은 신한금융그룹, 기업은행, JB 금융그룹, 신한자산운용, 신한라이프가 있다.

CDP SBTi 캠페인 2021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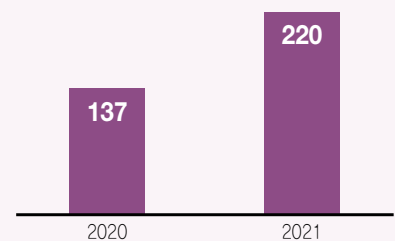
1,830 기업이 SBT 수립 요청을 받았고

383 기업이 SBT 수립 의사를 밝혔고

68 기업이 2년 내 SBT 수립을 선언했으며

31 기업이 SBT에서 목표를 승인받았다.

CDP SBTi 캠페인 참여 금융기관 수



CDP SBTi 캠페인 참여 국내 금융기관

- ▼ KB금융그룹
- ▼ 하나금융그룹
- ▼ 미래에셋증권



KB금융그룹은 '세상을 바꾸는 금융'이라는 미션을 바탕으로 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 전 영역에 걸친 ESG 경영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을 위한 기후변화 전략 고도화(E), 사회를 위한 책임 경영 내재화(S),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확산(G)이라는 전략 방향을 제시하고 영역별 중점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ESG 경영의 실질적인 이행과 확산을 위해 이사회 내 위원회인 ESG위원회를 금융사 최초로 신설하였습니다. KB금융그룹은 2030년까지 ESG 상품과 투자, 대출을 50조원으로 확대한다는 중장기 목표를 수립·실천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환경이라는 더 큰 미래 가치를 쫓는 KB금융그룹의 철학을 담았습니다. 국내 금융권 최초로 전 계열사가 참여한 '탈석탄 금융' 선언과 2040년까지 KB금융그룹의 모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인 'RE100' 가입은 이러한 KB금융그룹의 신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또한,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C 이하로 제한하는 파리기후협정에 적극 동참하고자 중장기 탄소중립 추진 전략인 'KB Net Zero S.T.A.R.'를 선언하였습니다. 국내 금융사 최초로 PCAF(탄소회계금융협회) 방법론을 활용하여 측정된 자산 포트폴리오 배출량을 공개하고, SBTi(과학기반목표 이니셔티브) 목표 수립 기준에 따라 KB의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한 결과 KB금융그룹은 아시아 금융기관 최초이자 국내 최초로 SBTi로부터 탄소감축 목표 승인을 획득하였습니다.

KB금융그룹은 NZBA(넷제로은행연합) 아시아-태평양 대표은행으로서 글로벌 은행들과 협력하며 기후 리더십을 발휘하고, 기업고객의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기업과 소비자, 지구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나아가겠습니다.

KB금융그룹



국민연금, 기후 리스크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기후 리스크는 연금을 피해가지 않는다. 특히, 국민연금은 장기 투자자기 때문에 기후변화로 인한 장기적 리스크에 더욱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국민의 노후자금을 책임지는 국민연금이 다가올 기후 리스크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기후 리스크 관리의 선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연금 중 하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국부펀드 Government Pension Fund Global, GPFG와 미국의 최대 공적 연기금인 캘리포니아주 공무원 연기금 California 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 CalPERS이다.

두 연금 모두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했으며 기후 리스크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경우 기후리스크 위원회를 별도로 설립했고,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은 지속가능위원회에 정기적으로 기후 리스크를 보고한다. 또한, 두 연기금 모두 매년 CDP나 MSCI 등의 데이터 제공자를 통해 포트폴리오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다.

이에 더해,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은 탄소중립 금융 이니셔티브인 UN 넷제로 에셋오너 얼라이언스 UN Net-zero Asset Owner Alliance에 가입하여 포트폴리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금융 자원을 운용할 것을 표명한 바 있다.

한편 세계 3대 연기금이자 국내 자본 시장의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은 최근 환경영역의 중점관리사안으로 기후변화를 포함시켰다.

2021년 5월에는 석탄 발전소의 신규 건설 프로젝트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금융기과의 탈석탄 행렬에 뒤늦게 합류했다.

하지만 정작 기후 리스크 관리를 위한 체계는 여전히 부재하다. 국민연금은 스트레스 테스트나 포트폴리오 배출량 산정, 또는 기후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등 기후 리스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어떤 수단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민연금은 기후 리스크의 산정과 관리의 바탕이 되는 기업의 기후 관련 정보도 요청하지 않고 있다.

환경산업기술법이 2021년 4월 개정됨에 따라, 2022년부터 주권상장법인 중 자산 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은 환경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투자자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기후 리스크 측정에 응용하기에는 불충분하거나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때문에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의 기업에 대한 기후변화 관련 정보공개 요구는 국민연금의 기후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기후변화 정보공개 흐름을 바꿈으로써 국내 자본시장이 기후 리스크에 보다 용이하게 대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1. 2021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과 해외 연기금의 리스크 관리 현황 비교

| 항목 |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 | 노르웨이 국부펀드 | 국민연금공단 |
|---------------------|--|--|--------|
| 운용 자산 ¹⁾ | 554조원 | 1590조원 | 917조원 |
| 기후 리스크 분류 | 물리적 리스크와 전환 리스크로 분류 | 물리적 리스크와 전환 리스크로 분류 | - |
| 시나리오 분석 | 2050 탄소중립에 이르는 3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리스크 분석 | 2080년까지 1.5°C, 2°C, 3°C 시나리오에 따른 리스크 분석 | - |
| 기후 리스크 관리 체계 | - 지속가능위원회에 정기적으로 기후변화 리스크를 보고 - 투자의사결정에 기후변화 고려 비율 확대 - 기후 리스크 관리를 위한 인계이지먼트 전략 수립 | - 기후 리스크 위원회 설립 - 기후 리스크와 기회 산정과 관리를 포트폴리오와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에 통합 - 기후 리스크 관리를 위한 인계이지먼트 전략 수립 | - |
| 포트폴리오 배출량 산정 | ○ (활용 데이터: CDP, ISS, MSCI) | ○ (활용 데이터: CDP, Trucost, MSCI) | - |
| 포트폴리오 배출량 목표 설정 | 2050 포트폴리오 탄소중립 | 수립 계획 발표 | - |

국내 기업의 감축목표 및 이행 진단

이 장에서는 2021년 10월 발표된 SBTi의 넷제로 기준을 적용하여 국내 기업의 감축목표 및 이행 수준을 분석하고자 한다. 기업의 목표는 크게 목표 기간과 범위, 그리고 목표 수준으로 분석하였고, 이행은 배출량 감축과 탄소 상쇄 현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SBTi의 넷제로 기준에 따르면, 기업은 늦어도 2050년 이전에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장기 목표(Long-term Target)와, 5년에서 최대 10년 기간의 중기 목표(Near-term Target)를 수립해야 한다. 장기 목표는 Scope 1과 2, 그리고 Scope 3 배출량을 지구평균온도를 1.5°C로 제한하기 위한 수준으로 (이하 1.5°C 수준) 감축해야 한다. 다만, 그 이전의 중기 목표는 Scope 3 배출량이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만 최소 2°C미만 well below 2°C (연평균 감축률 2.5%~4.2%) 수준의 Scope 3 감축목표를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대부분의 기업은 SBTi 넷제로 기준을 만족 시 장기 목표를 달성하면 기준연도 배출량의 90~95%를 감축하게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순 배출량은 0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흡수하거나 제거하는 탄소 상쇄가 허용된다.

분석에는 CDP 2021에 응답을 공개한 국내 88개의 기업이 포함되었다.¹ SBTi에서는 특정 산업군의 경우 별도의 목표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본 목표 분석이 기업의 SBT 적합 여부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SBTi 넷제로 기준>

① 목표 기간

- 중기 목표: 목표 제출일 기준 최소 5년, 최대 10년 미만 기간의 목표 연도
- 장기 목표: 10년 이상, 2050년 이전의 목표 연도

② 목표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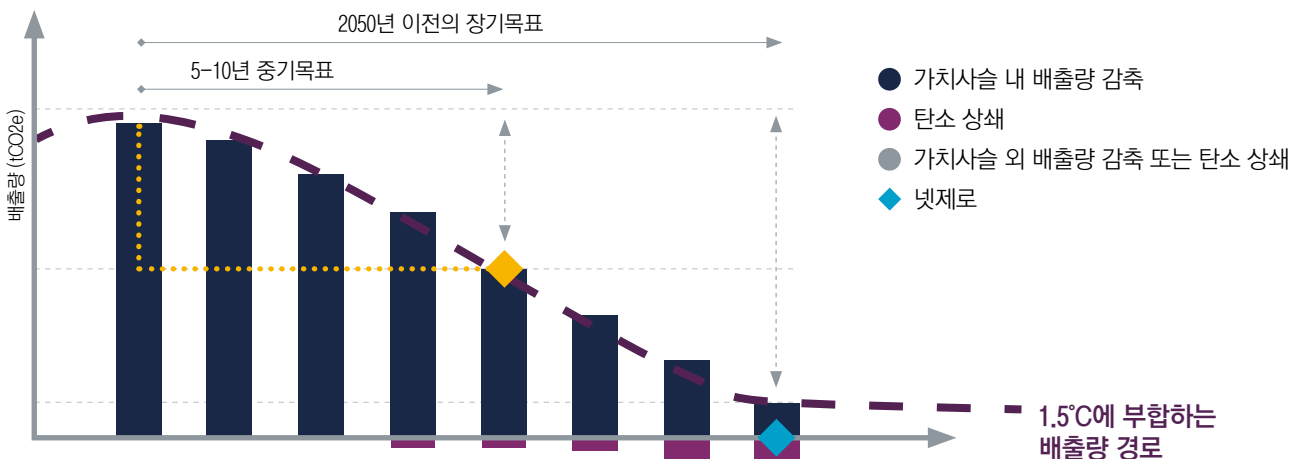
| | 중기 목표 | 장기 목표 |
|-----------|---|----------------|
| Scope 1&2 | 기업 전사의 Scope 1,2 배출량의 95% 이상 포함 | |
| Scope 3 | 배출량 67% 이상 포함 (Scope 3 배출량이 전체 40% 이상 차지할 경우) | 배출량의 90% 이상 포함 |

③ 목표 수준

| | 중기 목표 | 장기 목표 |
|-----------|--------|-------|
| Scope 1&2 | 1.5°C | 1.5°C |
| Scope 3 | 2°C 미만 | |

1. 투자자에게 응답한 기업은 총 91개이지만, 이 중 Minimum Version의 질의서에 응답한 3개의 기업은 Full version 질의서의 모든 문항에 대한 응답이 없기 때문에 제외되었음

넷제로 목표



① 목표 기간

국내 기업, 장기와 중기 목표 수립 모두 필요
 분석 결과, 중기 목표와(5년 이상~10년 미만) 장기 목표(10년 이상)를 모두 수립한 기업은 총 10기업으로 응답기업의 약 11% 수준이었다. 다수의 기업은 장기 목표는 수립하였으나 중기 목표는 부재한 상태였다. 장기 목표(10년 이상)를 수립한 기업은 응답기업의 80%인 반면(70개), 중기 목표를 수립한 기업은 24% (21개)에 그쳤다.

단기 목표와 중기 목표 모두 목표연도는 2025년 이하였다. 목표 기간이 10년을 넘는 장기 목표의 목표 연도는 1.5°C시나리오에서 주축이 되는 2030년과 2050년에 가장 많았다. 2030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목표의 경우, 2020년 이전에 수립된 목표였다.

탄소 배출량은 누적되기 때문에 지구평균온도 상승을 1.5°C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5-10년의 중단기 기간에 1.5°C 기준을 만족하는 감축목표의 달성이 필수적이다. 2050년 근처에서 급격한 감축을 이루어 탄소중립에 이른다 해도, 그 전 기간에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는 누적되어 상당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때문에 국내 기업이 탄소중립의 궁극적인 목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의 중간 지표가 되는 중기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목표 범위

기업 대다수가

Scope 1+2 목표 범위 기준 충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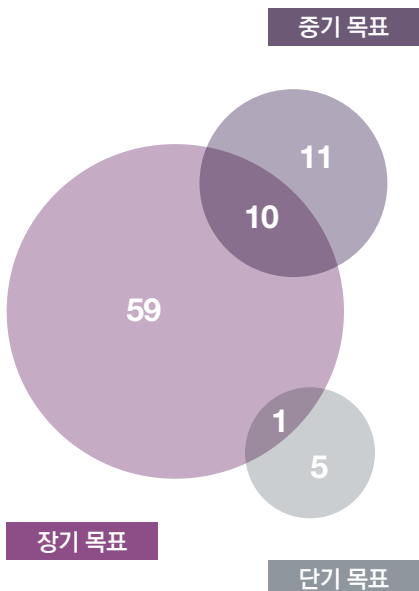
Scope 1과 2 배출량의 절대량 목표를 수립한 기업은 82개로 응답 기업의 93%였다. Scope 1+2 목표를 수립한 기업 중, 대다수는 (78개, 95%) 목표가 Scope 1+2 배출량의 95% 이상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100%를 포함하는 기업도 74개에 달했다(90%).

Scope 3 목표 범위 기준 충족 기업, 단 13%

SBTi의 넷제로 기준에 따르면, Scope 3 목표 수립을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Scope 3 스크리닝을 완료해야 한다. 국내 응답 기업 중, 이를 만족하는 기업은 57개였다.

다음으로, 중기 목표의 경우에는 Scope 3 배출량 비중이 40% 이상인 기업만, 장기 목표의 경우에는 모든 기업이 Scope 3 목표를 필수로 수립해야 한다. 전자에 해당하는 42개의 기업 중, 목표를 수립한 기업은 9개였다. 스크리닝 결과 40% 기준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Scope 3 목표를 수립한 기업은 3개로, 총 12개의 기업이 Scope 3 목표를 수립했다(총 13%). 이외, Scope 3 스크리닝을 완료하지는 않았지만 Scope 3 목표를 수립한 기업은 2곳이었다.

Scope 1+2 목표 기간별 해당 기업 수 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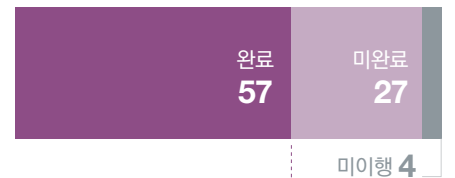


목표 기간과 목표 연도에 따른 목표 분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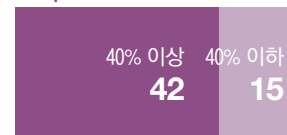


Scope 3 목표 수립 분류

스크리닝



Scope 3 비중



목표수립



③ 목표 수준

Scope 1+2 목표 수립한 기업, 3개 중 1개는 1.5°C 수준 감축률 만족

Scope 1+2절대량 목표를 수립한 기업 중, 34개는 1.5°C 수준의 목표를(연 평균 감축률 4.2% 이상), 2021개는 2°C 미만 수준(연 평균 감축률 2.5%~4.2%)의 목표를 수립했다.¹ 나머지 27개의 기업의 목표는 2°C 미만 수준도 만족하지 못했다. 기업들이 수립한 Scope1+2 목표의 연평균 감축률 총 평균은 3%였다.

섹터별 응답 기업 중 1.5°C 수준의 목표를 수립한 기업들의 비중이 가장 많은 섹터는 선택소비재(58%)와 원자재(40%)였다. 반면, 비중이 가장 적은 섹터는 금융과 산업재였다.

1.5°C 수준 감축률 만족하는 Scope 3 목표 수립 기업 6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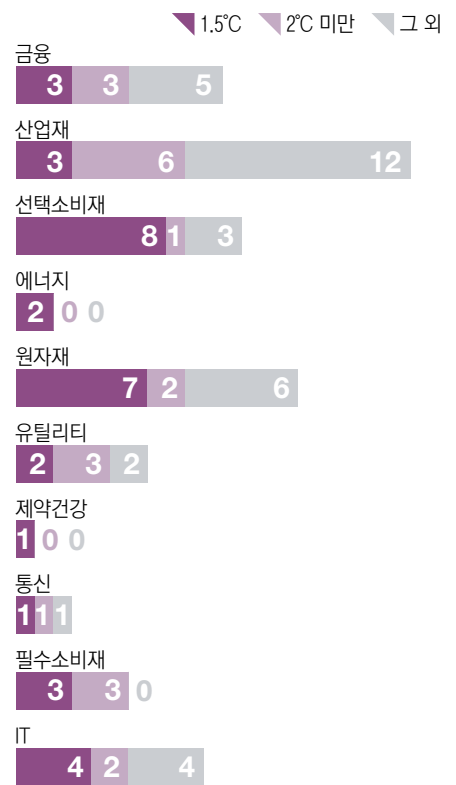
Scope 3 스크리닝 후 Scope 3 목표를 수립한 기업들 중(12개), Scope 3 목표의 평균 감축률이 1.5°C 수준인 기업은 4개, 2°C 미만 수준은 1개였으며, 나머지 7개 기업의 목표는 2°C 미만 수준도 만족시키지 못했다.

Scope 3 스크리닝을 완료하였으면서 감축률이 1.5°C 수준에 부합하는 Scope 3 목표를 수립한 기업은 에너지 섹터(SK이노베이션), 선택소비재 섹터(기아, 현대위아), 금융 섹터(신한금융그룹)에 분포해 있었다.

KB와 신한, 포트폴리오 배출량 감축 예고

국내 최대 금융그룹 중 하나인 신한금융그룹과 KB금융그룹이 Scope 3 중 카테고리 15 (투자) 배출량 목표를 수립하여 CDP에 공개했다. 두

섹터 별 Scope 1+2 목표 수준 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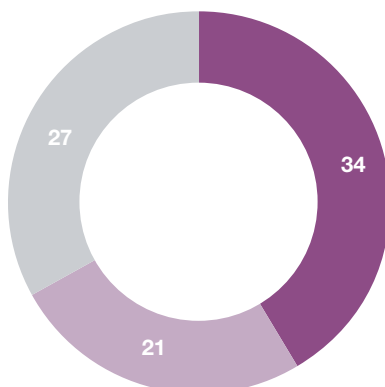
그룹 모두 2030, 2040, 2050년을 목표로 하는 중기목표와 장기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신한은 경우 연 평균 감축률 4.2% 이상, KB의 경우 2.4% 이상을 목표로 한다. KB금융그룹은 이러한 포트폴리오 배출량 감축 목표를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아시아권 금융 기관 최초로 SBTi에서 승인을 받았다. 이제 국내에서도 투자자로부터의 감축목표 수립과 이행에 대한 요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1. Scope 1+2 목표가 여러 개인 경우, 가장 높은 목표수준 감축률이 설정된 목표를 기준으로 함

국내 기업의 Scope 1+2 목표 수준

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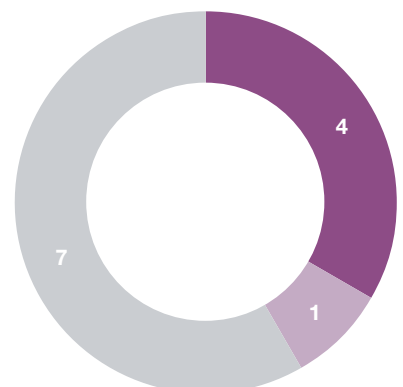
1.5°C 2°C 미만 그 외



국내 기업의 Scope 3 목표 수준

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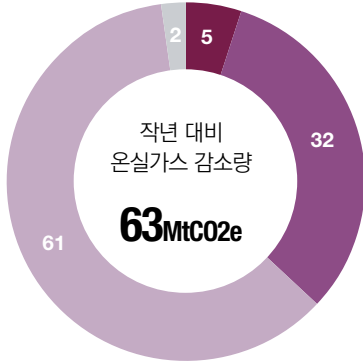
1.5°C 2°C 미만 그 외



④ 이행: 배출량 감축

온실가스 감소 원인

- ▶ 재생에너지 소비량 증가
- ▶ 기타 배출량 감축 활동
- ▶ 생산량 변동
- ▶ 그 외 기타



감축 활동으로 인한 감축량 작년 대비 증가

2021 CDP에 응답한 국내 기업 중 90%의 기업 (80개)이 작년과 비교하여 Scope 1+2배출량이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기업이 보고한 전년 대비 온실가스 감소량은 총 63MtCO2e였으며, 이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353MtCO2e)과 비교하면 17% 수준이다. 가장 큰 온실가스 감소 원인은 생산량의 변동이었다(39MtCO2e). 감축활동으로 인한 배출량 감소는 생산량 변동 다음이었다(20MtCO2e). 에너지 효율성 개선, 기업 정책 변경 등 다양한 감축 활동이 여기에 속한다. 그 외 재생에너지 소비량 증가로 인한 감축량은 전체 감소량의 약 5%였다(3MtCO2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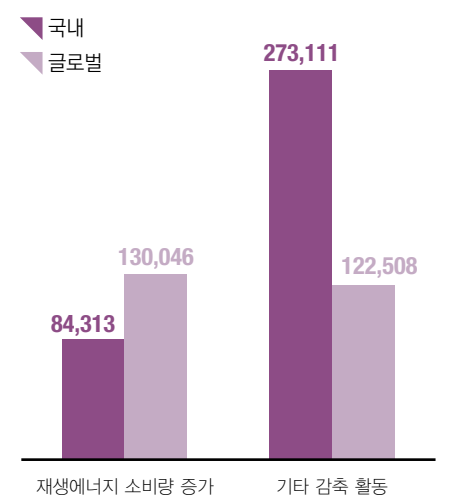
감축활동으로 인한 감축량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이다. 지난 3년간 CDP에 응답해 온 (CDP 2019, 2020, 2021) 국내 45개 기업들의 감축활동으로 인한 감축량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총 감축량은 CDP 2019대비 CDP 2020에서 31% 증가하였고, CDP 2020대비 CDP 2021에서는 68%나 증가했다.

재생에너지를 통한 배출량 감축 활용 필요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로 인한 감축량 평균 (84,313tCO2e)은 글로벌 평균(130,046tCO2e)보다 40%가량 낮았지만, 그 외 감축 활동으로 인한 감축량 평균은 글로벌 평균의 약 2배 가까이였다.

프로젝트별 온실가스 감축량 비율에서도 국내는 생산 공정의 에너지 효율 개선으로 인한 감축량 비중이 가장 큰 반면(71%), 글로벌 통계에서는 저탄소 에너지 발전으로 인한 감축량 비중이 가장 컸다(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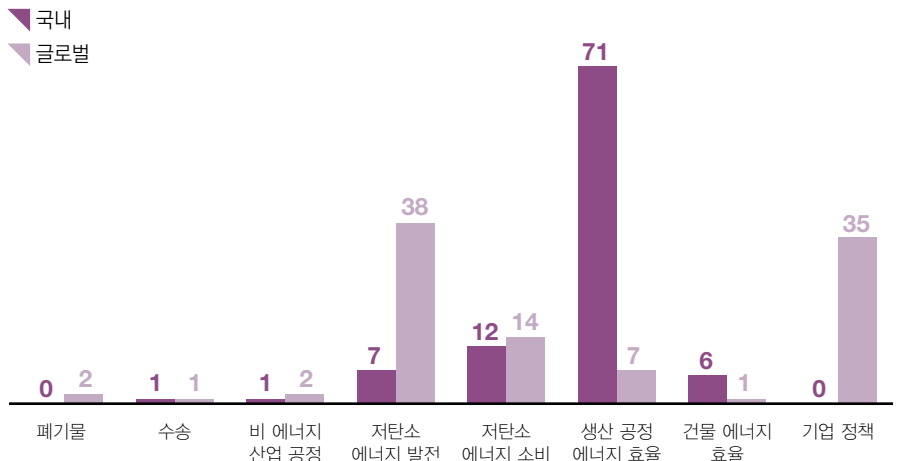
감축활동으로 인한 기업당 감축량 평균



국내에서 저탄소 에너지 소비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 글로벌과 비교하여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에는 국내 제도도 한 몫 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까지는 국내 전력시장의 특성과 정책으로 인해 기업이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구매하기가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1년부터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이 열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향후 저탄소 에너지 소비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최근 100%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인 RE100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이해관계자들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재생에너지 소비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 vs 글로벌, 감축 활동으로 인한 감축량 비율



④ 이행: 배출량 감축

내부 탄소 가격제 도입 비율

55% (2019)

56% (2020)

64% (2021)

감축 활동과 내부 탄소 가격제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한 프로젝트를 살펴 보면 보편적으로 투자 규모가 큰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당 온실가스 감축량도 많았다. 그러나 투자하는 비용과 온실가스 감축량이 정확히 비례하지는 않았다. 때문에 의사결정을 위한 핵심 중 하나인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해보기 위해서는 감축 활동을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단순히 투자 금액 대비 온실가스 감축량만으로는 투자 금액 회수 기간이나 기회비용 등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부 탄소 가격은 기업들이 감축 활동의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해 볼 수 있도록 한다. 내부 탄소 가격이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탄소 가격을 말한다. 감축 활동에 투자한 자금 회수 기간과 투자 대비 효과 등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투자 금액 대비 비교할 수 있는 동일한 단위의 지표가 필요하다. 이 때, 온실가스에 톤 당 가격을 설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량을 화폐 단위로 환산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국내 기업의 64%(57개)는 내부 탄소 가격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IT 섹터와 선택 소비재 섹터가 각각 80%, 75%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섹터별로 적용하는 내부 탄소 가격에 조금씩 차이가 있었지만 20,000원에서 35,000원 사이를 크게 벗어나는 경우는 드물었다.



내부 탄소 가격 적용 케이스 LG U+

내부 탄소 가격은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재생에너지 발전 등에 투자하기 전에 배출가스 감축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데 활용됩니다. 또한 LGU+의 연간 에너지 예산을 측정할 때도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겨울에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LGU+의 IDC 센터에 실외공기흡입 시스템을 설치하는 투자 금액을 내부 탄소 가격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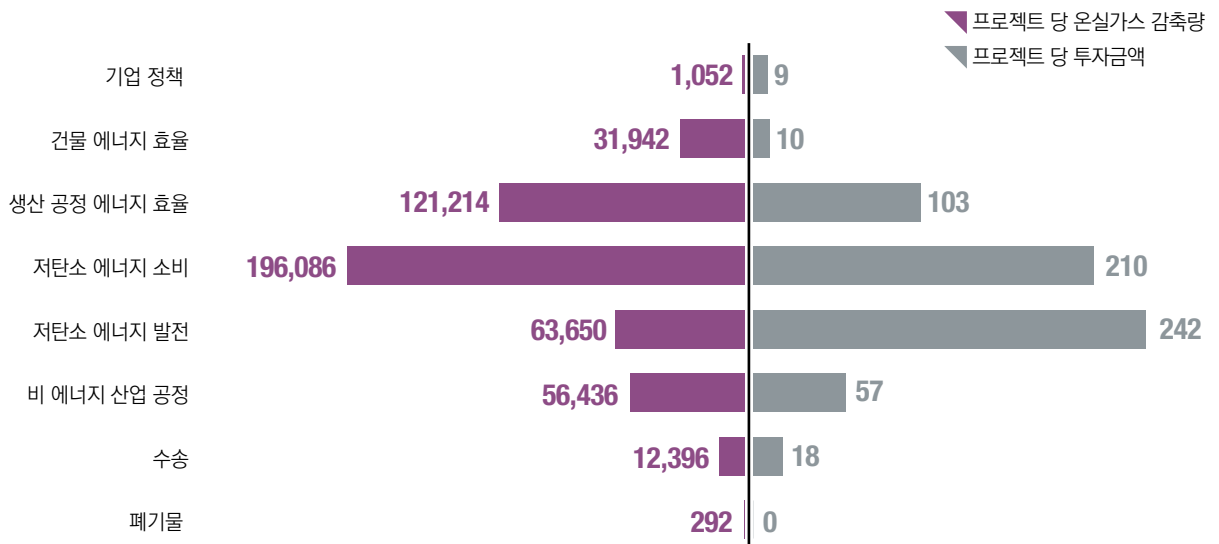
$$\frac{\text{온실가스 예상 감축량} \times \text{내부 탄소가격}}{\text{투자비용}}$$

검토 결과 시스템이 경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 판단하여 IDC센터에 실외공기흡입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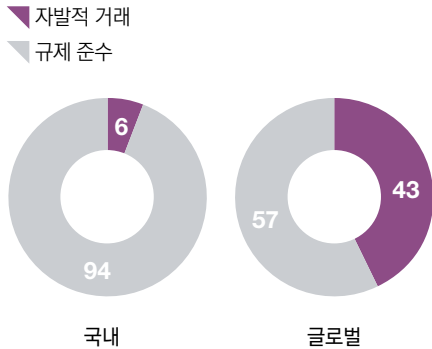
온실가스 감축 활동 별 투자 금액과 온실가스 감축량 평균

tCO2e, 억원



④ 이행: 탄소 상쇄

국내 vs 글로벌, 유형별 탄소 크레딧 거래량 %



자발적 탄소 시장 활성화 양상,

국내에는 아직 규제 준수 중심

COP 26에서 오랜 기간 정체되었던 글로벌 탄소 시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탄소배출권을 양자간 거래 시 양자가 모두 탄소 감축 성과(이중사용)로 계산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본 합의를 시작으로 관련 원칙과 방법론을 정교화하는 등의 후속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한편 자발적 탄소시장에 대한 국제적 규칙을 만들기 위한 민간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2020년, 기업과 금융기관이 참여한 자발적 탄소 시장 확대를 위한 태스크포스(Taskforce on Scaling Voluntary Carbon Markets, TSVCM)가 설립되었다. 다음 해인 2021년 9월, TSVCM은 자발적 탄소 시장의 관리와 핵심 탄소 원칙(Core Carbon Principles) 개발을 위해 자발적 탄소시장을 감시하는 독립기구를 발족했다.

넷제로의 확산도 자발적 탄소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넷제로에 부합하는 장기 감축목표를 달성했다고 하더라도 순 배출량은 0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이를 상쇄하기 위한 탄소 크레딧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SBTi는 가치사슬 내 뿐만 아니라 가치사슬 너머(beyond the value chain)에서도 온실가스를 회피 또는 감축시키거나, 공기 중으로부터 포집하는 활동 또

는 투자를 권고하고 있다.

CDP 2021에 글로벌 기업들이 보고한 탄소 크레딧 거래량은 총 229MtCO₂e로, CDP 2020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자발적 탄소 거래는 42%였다. 국내에서도 탄소 크레딧 거래량이 같은 기간 2MtCO₂e에서 7MtCO₂e로 185% 증가했다. 자발적 탄소 거래의 비중은 약 5%로, 아직 대부분은 규제 이행을 위한 탄소 거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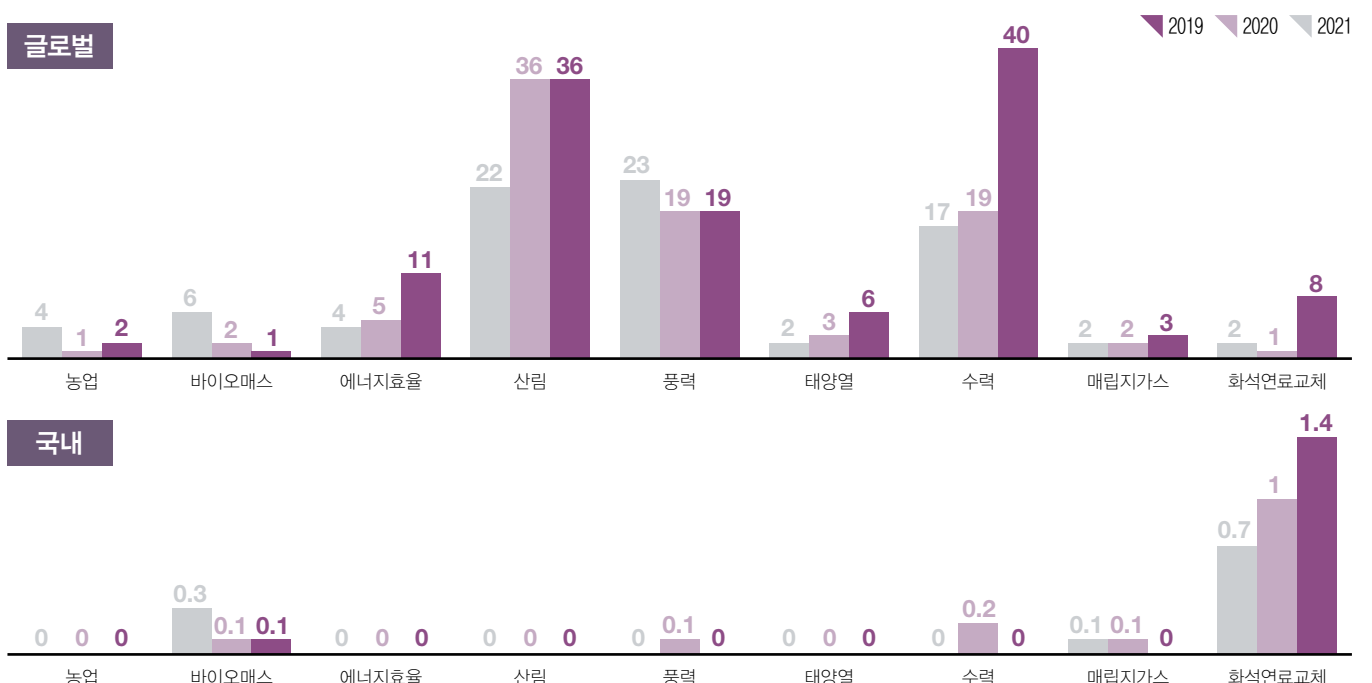
글로벌 추세는 지속가능한 탄소 상쇄

지난 3년간의 글로벌 온실가스 크레딧 거래 추이를 보면 가장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것은 산림으로 인한 탄소 크레딧 거래의 증가이다.¹ 2019년 대비 2020년 산림으로 인한 크레딧 거래가 약 40% 증가했다. 이는 탄소 흡수 방법으로 경제성과 안전성이 높은 산림이 부각되고 있는 현재 글로벌 동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내 기업의 경우 유틸리티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RPS)이행을 위해 구입한 '화석연료 교체'로 인해 생성된 탄소 크레딧 거래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90%).² 그 외 다른 활동들로 인한 크레딧 거래는 미미했다. 산림 활동으로 인한 크레딧 거래는 2021년 전체 크레딧 거래량의 1%도 되지 않았다.

1. 수력 또한 2020년 대비 2021년 탄소 크레딧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지만, 산림이 여러 기업의 탄소 거래가 모여 증가하게 된 반면 수력의 경우는 특정 한 기업의 대규모 수력 CDM이 원인이었음
2.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로서 50만kW(500MW) 이상 발전사업자는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발전해야 함

국내 vs 글로벌, 프로젝트별 탄소 크레딧 거래량 추이



산림이 뜬다

산림·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COP 26에서 141개국은 ‘글래스고 산림·토지 이용 선언’^{Glasgow Leaders’ Declaration on Forests and Land Use}에 승인하며, 2030년까지 산림손실^{Forest Loss}과 산림 황폐화를 막고, 복원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합의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경우, 2030년까지 산림 파괴로 인해 발생하는 18.9GtCO₂e의 탄소를 회피할 수 있다.¹ 이는 말레이시아의 연간 배출량에 비등하는 규모이다. 이번 선언의 의미는 전 세계가 산림보전 및 복원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는 것이고, 선진국 뿐만 아니라 주요 열대림 국가들이 대부분 참여하여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열대림 보전, 복원과 관련해서 선진국들의 입장과 개발도상국이 대부분인 열대림 국가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상징적, 원론적인 성격의 선언문조차 도출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보다 앞선 6월에는 자연자본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인^{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NFD}가 출범했다. TNFD는 자연 손실이 곧 금융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 기업 및 금융기관의 자연과 관련된 정보 공개 프레임워크를 개발 중인 TNFD는 향후 TCFD와 함께 기업과 금융기관의 ESG 공시의 표준화 모델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유럽의 기업지속가능정보공시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과 지속가능금융정보공규

제^{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SFDR}의 기반이 되는 EU 분류체계는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복원 및 보호를 지속가능한 활동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EU 위원회^{EU Commission}는 산림의 복원과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 중에 있다.

2021년 3분기까지 글로벌 탄소 시장에서 산림으로 인한 자발적 탄소 크레딧 거래량은 총 103MtCO₂e으로 집계되었다.² 이는 2020년 총 산림으로 인한 탄소 크레딧 거래량보다도 70% 많은 거래량으로, 산림 프로젝트로 생성된 탄소 크레딧 거래의 증가세를 보여준다(30.8MtCO₂e).²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동향에 속도를 같이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CDP 2021 산림^{Forest}에 응답한 기업은 총 865개로 전년보다 26% 증가했다.

2012년부터 산림^{Forest} 응답지를 통해 기업의 산림 관련 정보 공개를 촉진했던 CDP는 2022년부터 기후변화 응답지에 생물다양성을 추가할 계획이다. 질의서에는 생물다양성을 관리하는 거버넌스, 위험과 기회, 목표 수립 여부 등 기업이 생물다양성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이 포함될 예정이다.

1. <https://www.wri.org/insights/what-cop26-means-forests-climate>
 2. Ecosystem Marketplace (2021), State of the Voluntary Carbon Markets 2021: <https://www.ecosystemmarketplace.com/publications/state-of-the-voluntary-carbon-markets-2021/>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탄소 크레딧 거래량²

MtCO₂e

| 탄소 크레딧 유형 | 2020 | | | | 2021 | | |
|-----------|------|-----|------|-----|------|------|------|
| | Q1 | Q2 | Q3 | Q4 | Q1 | Q2 | Q3 |
| 산림 | 10.5 | 2.4 | 11.2 | 6.7 | 56.3 | 24.4 | 22.3 |
| 재생 에너지 | 2.7 | 2.7 | 3.6 | 7.1 | 4.8 | 4.5 | 2.6 |
| 에너지 효율 | 0.1 | 0.1 | 0 | 0 | 0.4 | 1.1 | - |
| 농업 | 0.1 | - | - | 0.1 | - | - | - |
| 폐기물 | 0.3 | 0.7 | 1.1 | 0.3 | 0.4 | 0.3 | - |

물 리스크 관리와 국내 기업들 대응 수준

물 이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요청이 늘어나고 있다.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기후변화



수자원 부족



사업 운영 리스크



기후변화 - 물 - 경영리스크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의 대부분은 물과 관련된 요소를 통해 발현된다. 지난해 발표된 IPCC 6 차보고서는 지구온난화가 홍수, 가뭄과 같은 이상기후현상의 빈도와 강도를 증가시키는 등 전 지구적 물순환 체계의 변화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물 순환 체계의 변화는 사회 전반의 수자원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강수량 감소에 따른 직접적인 물 부족뿐만 아니라, 집중호우, 홍수 등의 이상기후 현상은 수질을 저하시키거나 물 공급 시스템을 교란하여 사용가능한 수자원의 양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물은 일반생활뿐만 아니라 산업에 있어서도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자원이다. 2021 CDP에 응답한 전 세계 기업 가운데 83%는 수자원이 기업 직접 운영에 핵심적이거나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기업의 75%는 공급망에도 수 자원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산업 섹터 별로 용수 사용량의 차이는 있으나, 물이 음용수, 냉각, 세척 등 산업 공정 전반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대체재 또한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분석된다. 또한 물이 곡물, 에너지 등 원부자재의 수급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매년 세계경제포럼에서 경제인 대상 설문을 통해 선정하는 글로벌 리스크 평가에서도 물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리스크가 매년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ESG와 이해관계자의 물 리스크 관심 증가

ESG는 금융기관이 투자회사 결정과정에서 투자대상 기업의 미래 리스크 및 가치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비재무적 요소, 즉 환경·사회·지배구조를 재무요소와 함께 반영하면서 시작되었다.

최근 기후변화와 더불어 물 리스크에 대한 금융기관의 관심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물 리스크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 리스크가 실현될 경우 실제 재무적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적시에 적절한 수질의 수자원을 필요한 양만큼 공급하지 못하면, 바로 생산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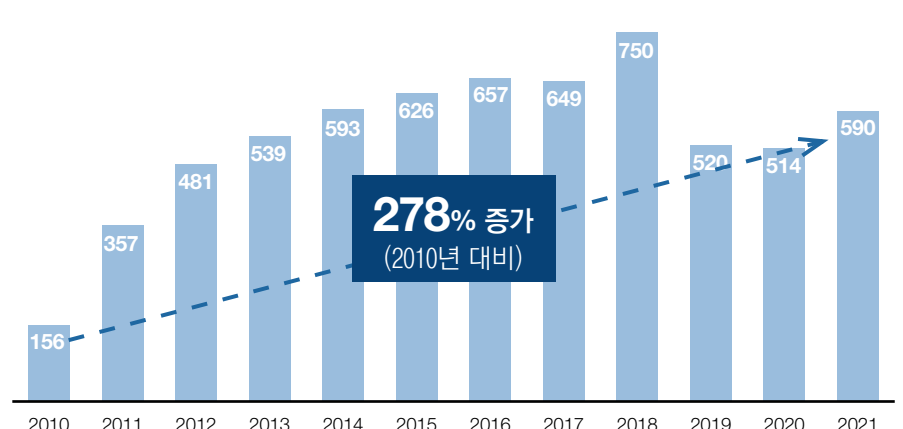
2021년 CDP를 통해 기업에, 물 정보를 요청하는 금융기관의 수는 590개로, 2010년 156개에 비해 4배 가량 늘었다. 또한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기업 공급망 리스크 관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CDP를 통해 공급망 기업의 물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 글로벌 인식 조사 2021-2022

| | |
|----|------------|
| 1 | 기후변화 대응 실패 |
| 2 | 기상 이변 |
| 3 | 생물 다양성 손실 |
| 4 | 사회 화합 침식 |
| 5 | 생계 위협 |
| 6 | 전염병 |
| 7 | 인구 감소 |
| 8 | 천연자원 감소 |
| 9 | 외환위기 |
| 10 | 지역 분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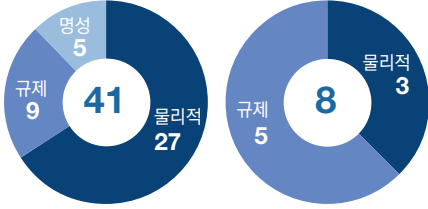
CDP Water 투자자 정보공개 요청 비율

기업 수



잠재적 물 리스크 vs 실제 경험 피해 보고 수

리스크 수 / 피해사례 수



전 세계 150개 이상 기업이 CDP Supply Chain 프로그램을 통해 공급망 기업의 물 정보를 요청하고 있으며, 2021년 15,000개 이상 기업이 고객사의 요구에 응답했다.

기업의 물 경영 전략

기업의 물 경영 전략은 다음의 3단계로 수립할 수 있다.

- 1) 리스크 평가 시스템 구축: 물 관련 리스크의 식별, 평가 및 대응 우선순위 선정;
 - 2) 정책/전략 및 목표 수립: 전사적 물 이슈 대응 정책/전략 및 세부 목표 수립;
 - 3) 전략의 이행: 물 리스크(또는 기회)에 대한 대응 활동 이행
- 본 보고서는 물 리스크 대응 단계 별 국내 기업의 수준을 진단하고 한다.

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변화로 인해 물 관련 물리적 피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그 속도는 앞으로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CDP에 보고한 국내기업의 과거 물 관련 부정적 경험은 규제이슈에 집중되어 있으나, 잠재적 리스크는 물리적 요소가 훨씬 높았다.

둘째, 향후 물 리스크가 현실화되었을 때의 재무적 영향도 과거에 비해 훨씬 높을 수준으로 예상된다. 국내기업이 보고한 예상 잠재적 피해액의 평균금액은 과거 피해액에 비해 600배가량 높았다. 과거 그 영향이 규제 미준수에 따른 과징금 납부 정도에 그쳤다면, 향후 피해는 물 부족, 집중호우 등에 따른 조업 중단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분석된다.

1. 물 리스크 평가 프로세스 수준 진단

물 리스크 특성 이해하기

국내 2021 CDP 응답기업(응답기업 수: 22개)이 보고한 물 관련 잠재적 리스크의 수는 총 41개였다. 반면, 물과 관련하여 실제 피해를 경험했다고 보고한 사례는 8개에 불과했다. 물 이슈는 그동안 언론, 과학계 등을 통해 제기된 중요성에 비해, 실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던 것 또한 일부 사실이다. 하지만 국내기업도 이제 물 리스크 관

셋째, 공급망 및 소비시장의 글로벌화다. 이에 따라, 한국기업들도 이제 한반도라는 지리적 범위 안에서 발생하는 리스크 이외에도, 해외에서 발생하는 물 리스크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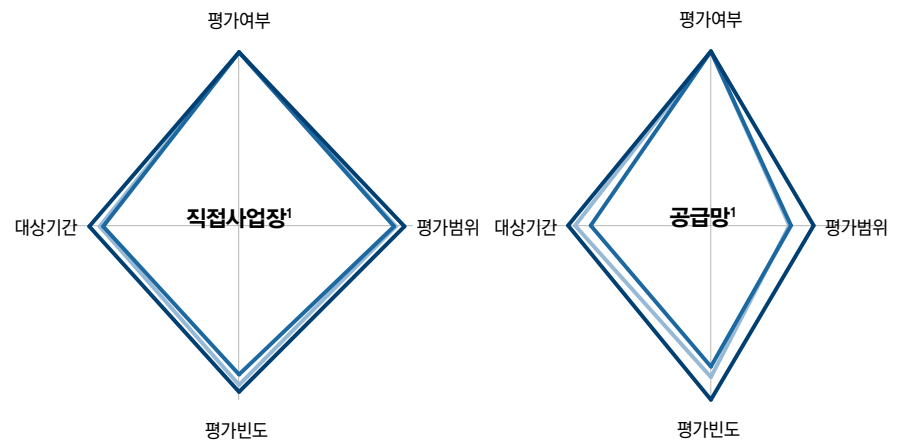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ESG금융의 확산이다. 금융기관은 실제 기업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느냐 이전에, 기업이 해당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시스템을 갖추었는가를 통해 기업의 미래 가치를 평가한다.

1. 그래프상에서 평가여부는 'Yes' 선택, 평가범위는 '전체', 평가빈도는 '연 1회 이상', 대상기간은 '3년 이상'으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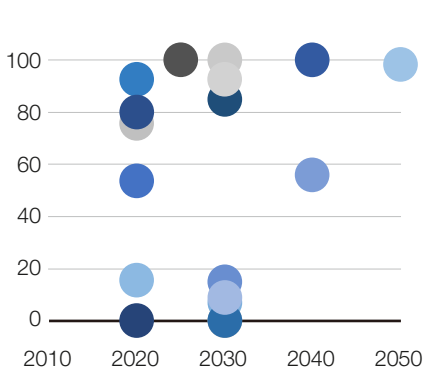
리스크 평가 프로세스

응답 기업 수

■ 한국 ■ 미국 ■ 일본



목표 연도별 목표 달성률 현황



따라서, 당장의 물 리스크 직면 여부와 무관하게,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외부 이해관계자와 소통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물 리스크 평가 프로세스 수준 진단

리스크 관리의 시작점은 기업이 직면한 이슈를 찾아내고 분석하는 것이다.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더 자주 리스크 분석을 진행하고, 더 넓은 범위를 분석에 포함할수록, 기업의 선제적 대응에 유리하다. CDP에 응답한 국내기업의 물 리스크 평가 시스템은 글로벌기업들과 비교하여도 높은 수준이었다.

공급망 포함여부, 평가빈도 및 평가대상 기간범위 등 모든 영역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CDP에 응답하는 국내기업이 미국, 일본 등에 비해 매우 적다는 점과 상대적으로 물 관리 수준이 높은 기업만 응답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보면, 국내 전체기업이 수준은 오히려 더 낮을 것으로 유추된다. 아울러, 글로벌 기업과 유사한 수준이라고는 하나, 공급망 리스크 관리 기업이 50%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한 지점으로 생각된다.

2. 정책/전략 및 목표 수립

기업 물 경영 전략의 두 번째 단계는 정책 및 세부 전략과 목표의 수립이다. 이 단계에서는 리스크

평가 프로세스를 통해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의 전반적 물 이슈 대응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

정책: 거버넌스, 인센티브, 커뮤니케이션

정책은 물 경영을 위한 골격 역할을 한다. 이 단계에서는 물 경영을 위한 내부 의사결정 체계, 인센티브 체계, 외부 커뮤니케이션 등에 물 이슈와 관련한 전반적 방향을 문서화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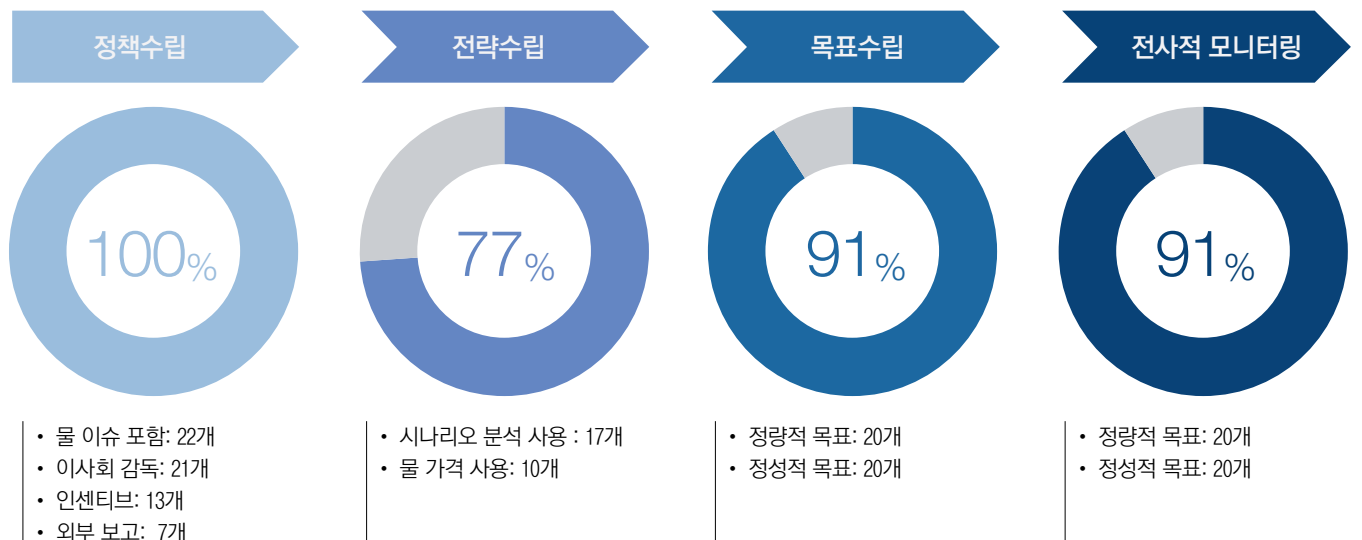
CDP에 응답한 모든 국내 기업은 문서화된 물 정책을 수립했다고 했으나, 이를 공개한 기업은 73% 수준에 머물렀다.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물 리스크를 이사회 수준에서 관리하는 기업의 비율은 95%, 경영진의 동기부여를 위해 C-레벨 인센티브 체계 구축 기업은 59%였다. 그리고 재무보고서를 통해 물 이슈를 외부에 보고하는 기업은 32%였다.

세부전략: 시나리오 분석, 내부 물 가격 책정

물, 기후변화 등의 이슈는 중장기적 환경 및 사회경제 시스템의 변화를 수반한다. 때문에 TCFD는 기후변화 전략 수립에 시나리오 분석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물 이슈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거의 대부분(77%) 기업은 5년 이상의 중장기 사업 전략에 물 이슈를 반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세부 전략 수립에 기후 시나리오를 활용한 기업은 77%였다. 추가적으로 전략에 내부 물 가격제도를 도입한 기업도 일부(45%) 있었다.

Water 정책 수립의 단계



목표: 정량적/정성적 목표

정책 및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물 이슈 별 세부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물 관련 목표는 취수량, 방류수질, 재활용률 등을 기준으로 하는 정량적 목표와 유역 주변 생태계 보전이나 지역사회 활동과 같이 이해관계자의 기대수준을 반영한 정성적 목표로 구분하여 수립할 수 있다.

국내 기업들은 정량적 목표 가운데서는 용수소비와 취수를 많이 수립했으며, 정성적 목표로는 유역 및 서식지 복원과 규정 준수 수준을 뛰어 넘는 폐수 수질의 개선 수립이 많았다.

모니터링: 목표 이행 전사적 모니터링

목표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 대부분의(91%) 국내기업들은 구체적 측정지표를 포함한 목표에 대한 전사적 모니터링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었다. 전체 보고된 정량적 목표 가운데 목표의 달성률이 70%이상인 목표의 비율은 65% 였다.

3. 이행

국내 기업들은 목표이행 단계로 리스크 대응활동을 전개한다.

물 재사용 및 절약과 관련하여 물 효율성에 대한 이행의 경우 국내 및 해외 모두 공통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국내 기업의 경우 물 효율성과 비슷한 수치로 현지 규제요건에 대한 준수와 가뭄 및 홍수에 대한 대비책 마련,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공통적으로 많이 대응하는 것으로 뽑았다면,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리스크 이행활동으로는 현지 규제요건에 대한 준수와 사업 연속성 계획 수정에 대하여 주요 대응 전략을 펼치고 있다.

물 이행 국내 및 해외 사례

가뭄 비상 대책 수립

Sainsbury's는 물 부족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가뭄 비상 사태 및 물 효율성 계획을 개발하기 위해 Huelva 지역의 공급업체와 협력했다. 인게이지먼트의 일환으로 해당 지역의 공급업체와 작물 재배자들에게 절수 방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여 농작물에 관계할 물 요구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Sainsbury's는 계속해서 공급업체와 협력하고 물 공급중단의 위험을 완화하는 추가 방법을 개발할 예정이다.



물 효율, 물 재사용, 재활용 및 물 절약 활동 도입

SKC는 2007년부터 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폐수를 재활용하여 처리하고 있다. SKC 정읍 공장은 2020년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연간 16만 5000톤의 물을 재활용했으며, 이는 2020년 SKC 전체 물 사용량의 약 20%에 해당된다.



자본지출 증대

Varian Medical Systems Inc는 매년 WRI Aqueduct를 사용하여 홍수 위험을 평가한다. 또한 연례 설문조사를 글로벌 시설에 보내 이러한 위험의 범위와 잠재적 규모를 평가하고 그들이 식별한 중요한 지역 별 물 관련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는다. Varian은 사고 및 운영 중단에 대응하기 위해 위기 관리팀 조직을 만들어 왔다. 또한 Varian 시설은 범람원이나 침수에 취약한 기타 위치에 건설되지 않는다는 회사 정책이 있습니다.



현지 규제 요건 준수

기아자동차는 규제에 맞추어 폐수배출시설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국내 사업장 3곳에 TOC분석장치를 국내 규제에 대한 유예기간을 활용해 점진적으로 사업장에 설치하고 있으며, 화성 사업장의 경우 방류수가 직접 방류되는 방식으로 TMS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폐수 방류 농도를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환경부에 송출하여 보다 엄격한 규제 기준을 맞추려 노력하고 있다.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은 물 재이용률을 높여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도부터 약 6,400억원을 투자해 폐수처리장을 건립하고 초순수제조장치를 추가 설치했다. 물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2020년에는 설비냉각장치 폐액을 재사용 하였으며, Burn Wet Scrubber Drain 시간 변경 등 수자원 절감 과제를 발굴하여 연간 70,181,000톤의 물을 절약하였다. 또한 각 시설에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플랜트 건설 시 이중화 급수를 완료하였다.



기타(사업장 이전)

HP Inc. 는 사업장 지역이 부분적으로 홍수 위험을 겪어, 이를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LEED V4 사업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였고, 이로 인해 홍수로 인한 리스크에 대비하였다. 사이트 이전으로 인해 컨설팅 비용과 인증 비용을 포함한 총 재정비용은 \$50,000로 추산된다.



주요 통계

Climate Ch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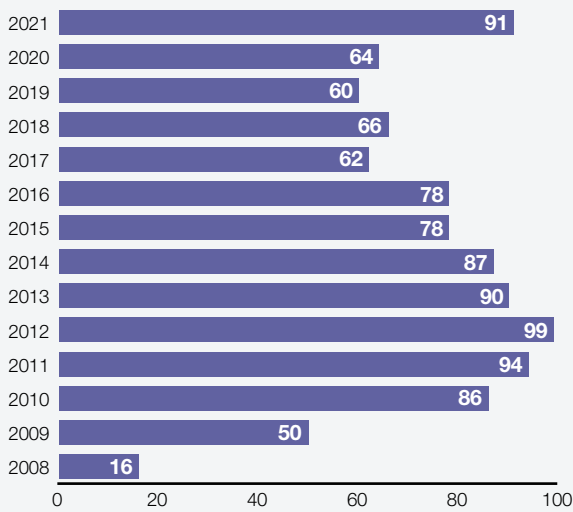
KS1과 KS2의 분석은 CDP 2021에 투자자의 정보공개 요청에 응답한 91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KS1과 KS2를 제외한 모든 분석은 Full Version에 응답한 88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KS3과 KS4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0(zero)으로 입력한 기업도 포함한다.

Climate Change Reporting Framework

기후정보공시표준화위원회(Climae Disclosure Standards Board, CDSB)는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기업의 주류보고서에 통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국제조직으로, CDP의 특별 프로젝트이다. CDSB의 기후변화보고프레임워크(CCRF)는 기업이 기후변화 위험/기회가 전략, 재무 성과 등에 미치는 영향을 주류 재무보고서를 통해 공개/연결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CCRF는 기존 재무보고서의 목적 및 비재무보고서의 방법론 등을 반영하고 있으며, 통합보고의 원리를 기후변화 보고에 적용하기 위한 모범을 제시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www.cdsb.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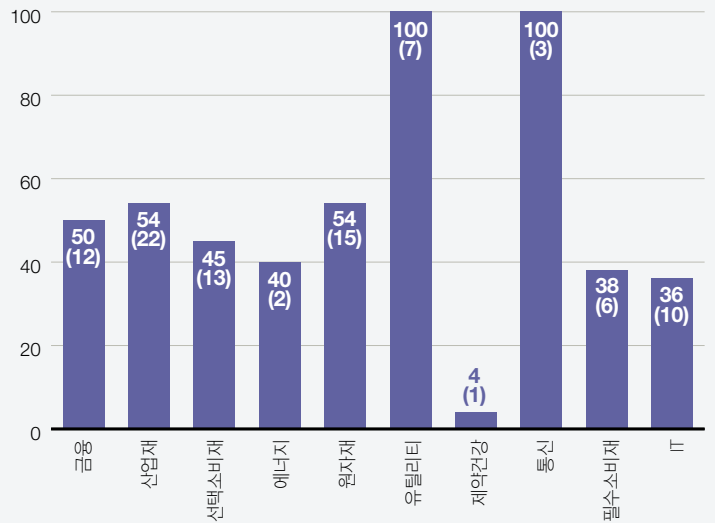
KS 1 응답 현황

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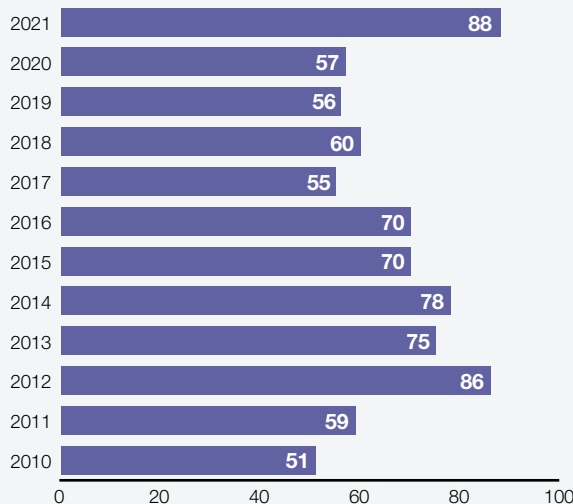


KS 2 섹터별 응답률

% 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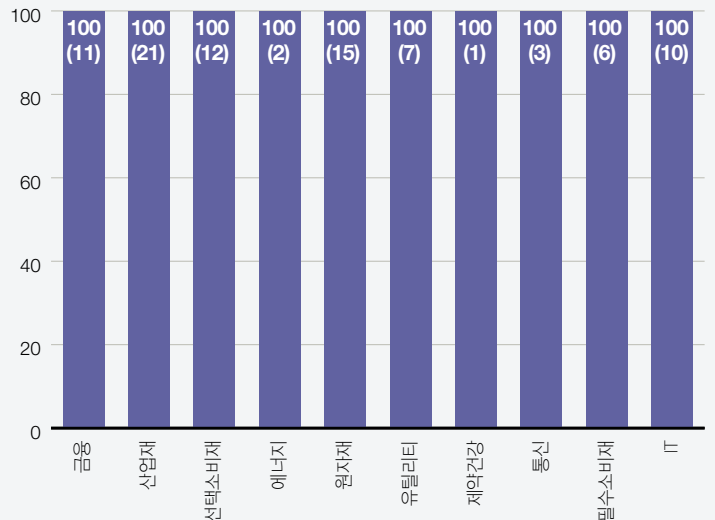


KS 3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기업 (Scope 1 또는 Scope 2) 기업 수



KS 4 섹터별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비율 (Scope 1 또는 Scope 2)

% 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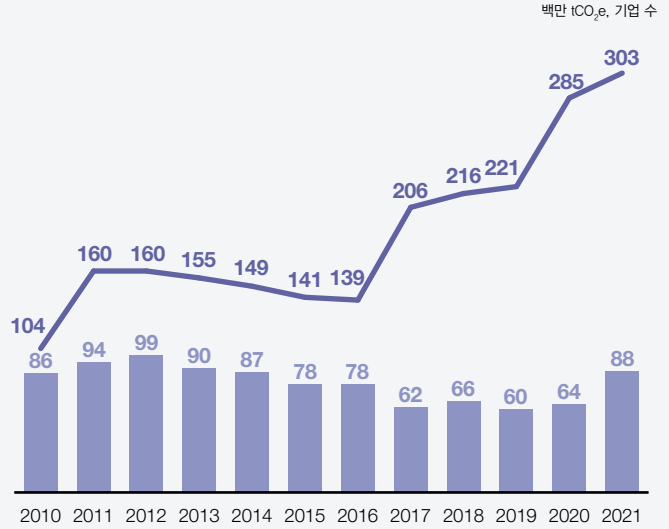


Scope 1,2 배출량은 보고기업 범위 및 응답 기업 수의 증가 또는 감소에 따른 영향이 포함되어 있는 결과이다. Scope 1과 Scope 2의 데이터는 보고연도에 응답한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Scope 2는 지역기반^{Location-based}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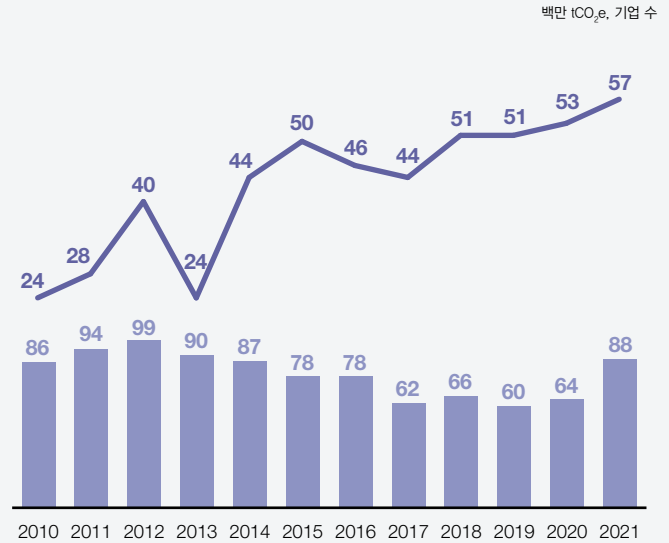
Scope 3의 경우, Greenhouse Gas Protocol Scope 3 Standard의 15개 카테고리 중 하나 이상을 입력한 기업 가운데 배출량 수치가 0(zero) 이상이며, 해당 Scope 3 카테고리가 “관련있음, 산정함”을 선택한 경우에만 분석에 포함하였다. “기타 업스트림” 또는 “기타 다운스트림” 항목은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두 항목을 통해 보고한 Scope 3 배출은 15개 카테고리를 통해 보고되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데이터 질에 대한 높은 요구 수준에 부합하기 위해, CDP는 응답서 내의 데이터에 대한 검증을 권장한다. 본 섹션의 검증관련 통계는 기업이 첨부한 검증의견서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되었다. KS12와 KS13의 경우, Scope 1,2,3 배출량을 “검증” 또는 “검증 진행 중”이라고 보고하였으나, 해당 문건(또는 작년 검증 문건)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집계에서 제외했다. Scope 1 or 2의 경우, 해당 기업이 하나 이상의 Scope를 검증 받은 경우, 중복하지 않고 하나로 처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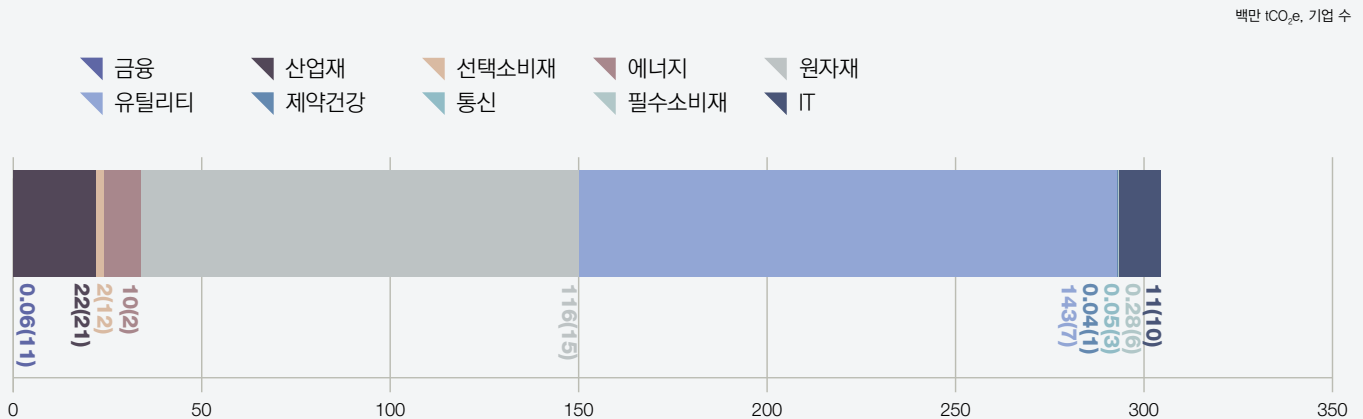
KS 5 SCOPE 1 온실가스 배출량



KS 6 SCOPE 2 온실가스 배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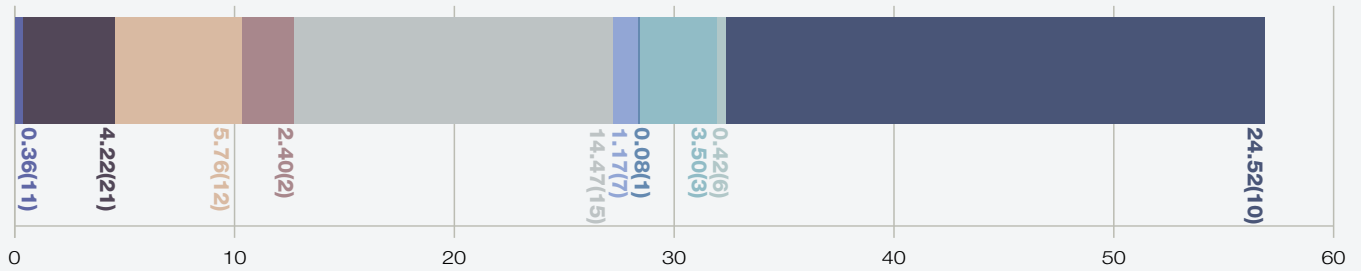
KS 7 섹터별 SCOPE 1 온실가스 배출량



KS 8 섹터별 SCOPE 2 온실가스 배출량

백만 tCO₂e, 기업 수

- 금융
- 산업재
- 선택소비재
- 에너지
- 원자재
- 유틸리티
- 제약건강
- 통신
- 필수소비재
- 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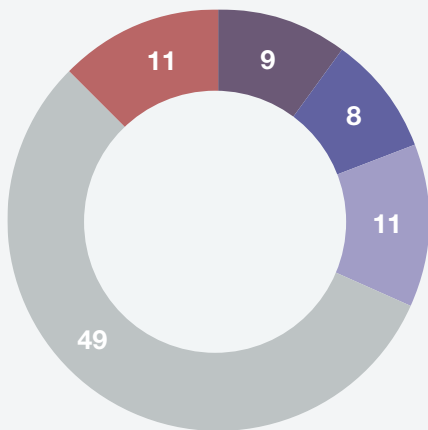


KS 9 SCOPE 3 배출원 및 배출량 공개기업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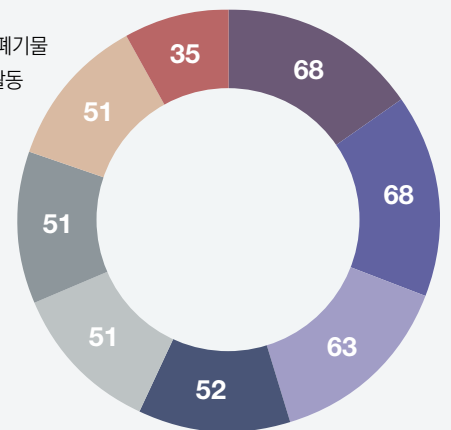
기업 수 **KS 10** SCOPE 3 주요 배출원²

배출원별 응답기업 수

- 0
- 1-2
- 3-5
- 6-10
- 11+



- 구매했던 제품 & 서비스
- 출장
-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 연료 및 에너지 관련 활동
- 자본재
- 업스트림 운송 & 물류
- 임직원 출퇴근
- 판매된 제품의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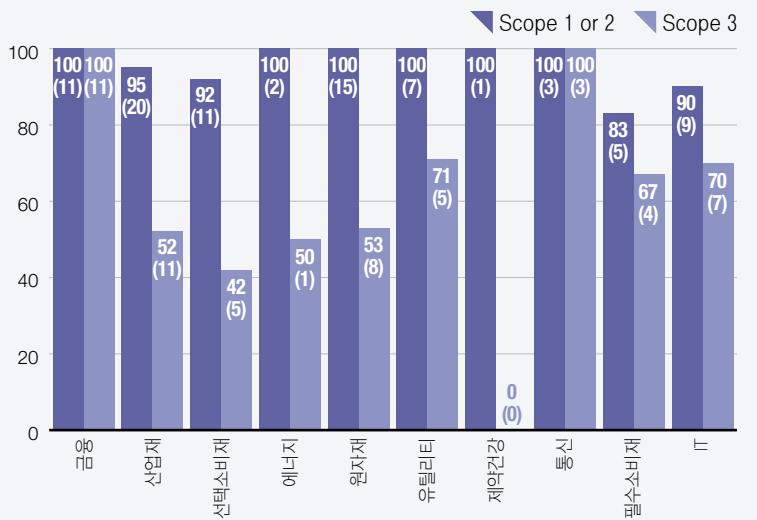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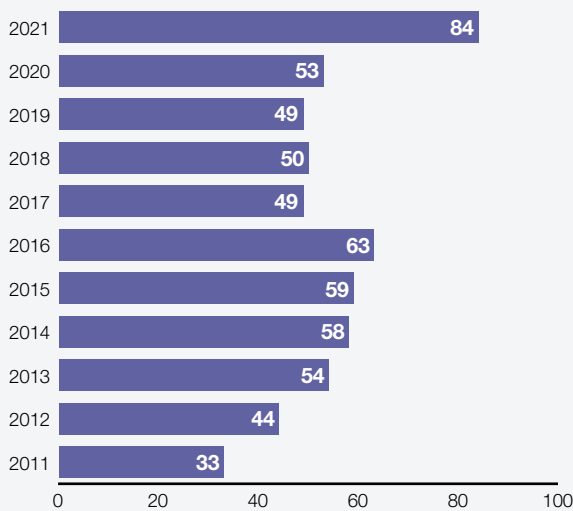


KS 11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기업 현황

기업 수

KS 12 섹터별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기업 현황

% , 기업 수



1. CDP질문의 6.5문항에서, 각 카테고리 별로 "Relevant, Calculated" 항목을 선택한 기업만 분석에 포함
 2. "Relevant, Calculated" 항목을 선택하고, 배출량을 입력한 기업의 카테고리 중 응답 기업수가 많은 항목만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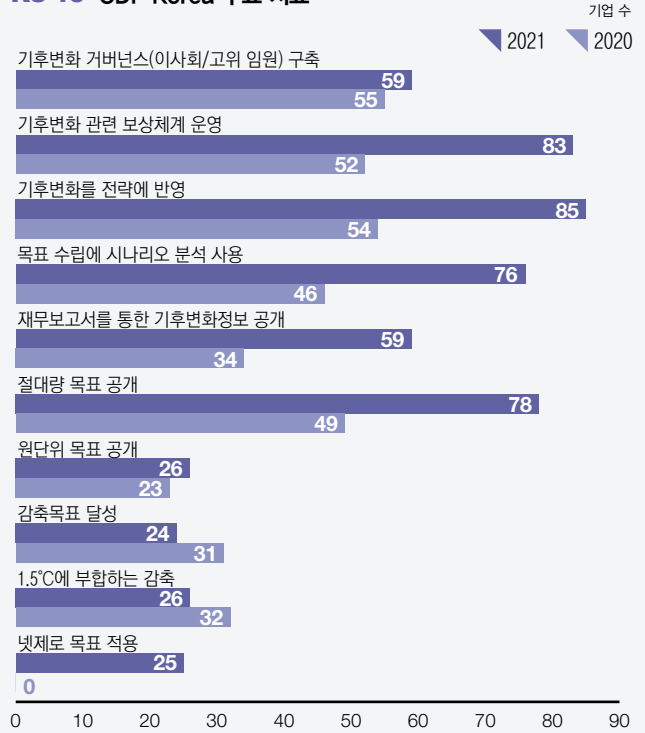
본 섹션의 온실가스 감축(절대량, 원단위) 목표 관련 통계에는 기준연도, 목표연도, 감축비율, 목표설정단위(원단위 목표의 경우)를 모두 입력한 기업만 포함된다.

하나 이상의 감축활동, 감축목표 또는 금전적 인센티브를 입력한 기업의 경우, 각각 입력한 활동, 목표, 인센티브의 수와 관계없이 하나로 집계하였다(단, “절대량 감축목표와 원단위 감축목표”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보고한 경우, 절대량과 원단위 목표 카테고리에 개별적으로 하나씩 반영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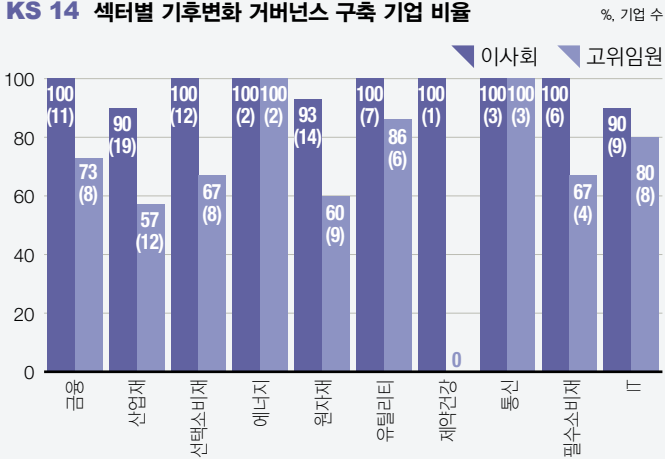
KS17에는 목표 수립에 시나리오 분석을 사용하였다고 보고한 모든 기업을, KS22에는 재생에너지 소비량 변화와 기타 배출량 감축활동의 합이 4% 이상인 기업을 집계했다. KS18의 재무 보고서를 통한 기후변화 정보 공개 여부 관련 통계의 경우, 해당 보고서의 실제 첨부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보고한 모든 기업 통계에 반영했다.

KS23은 넷제로 목표를 보고연도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기업을 반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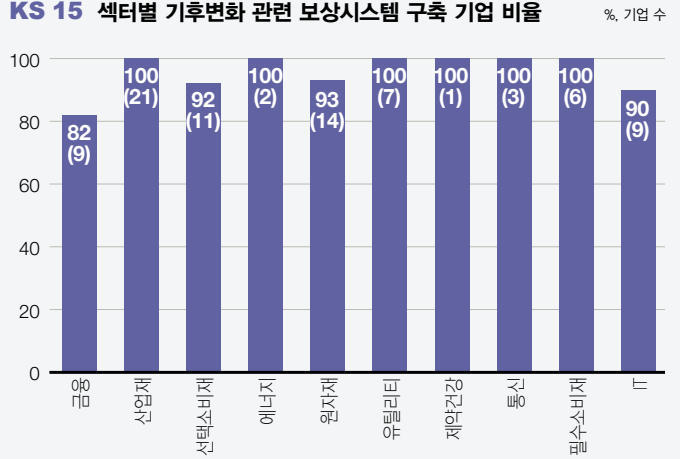
KS 13 CDP Korea 주요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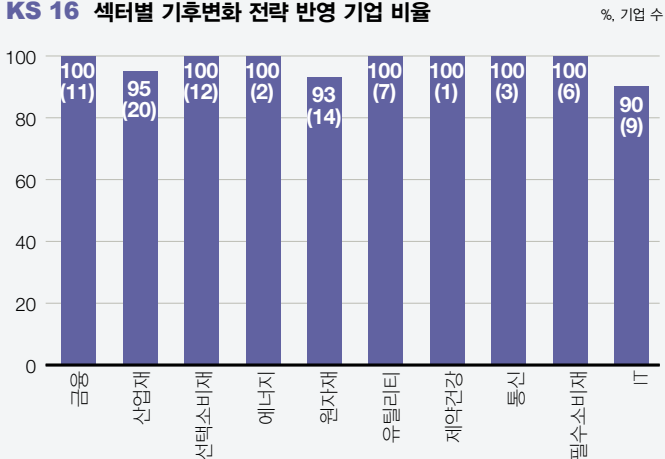
KS 14 섹터별 기후변화 거버넌스 구축 기업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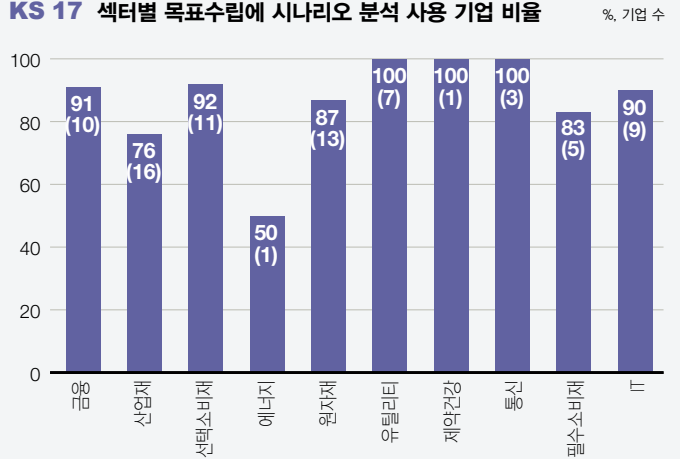
KS 15 섹터별 기후변화 관련 보상시스템 구축 기업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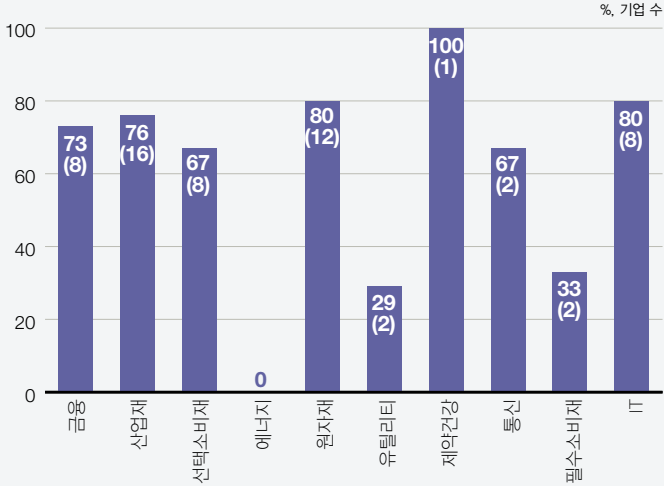
KS 16 섹터별 기후변화 전략 반영 기업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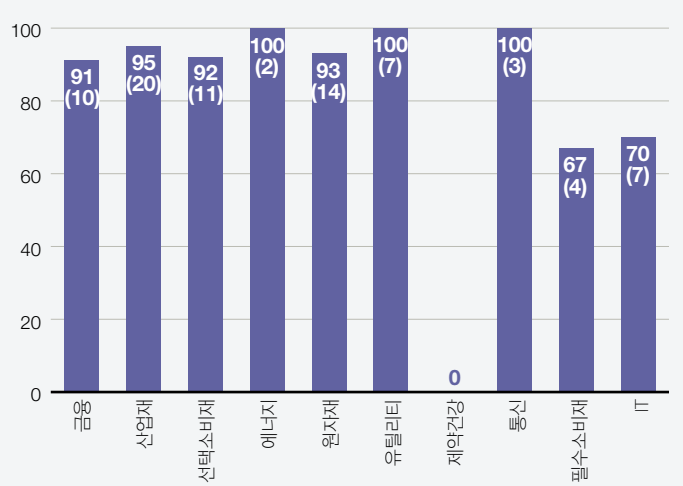
KS 17 섹터별 목표수립에 시나리오 분석 사용 기업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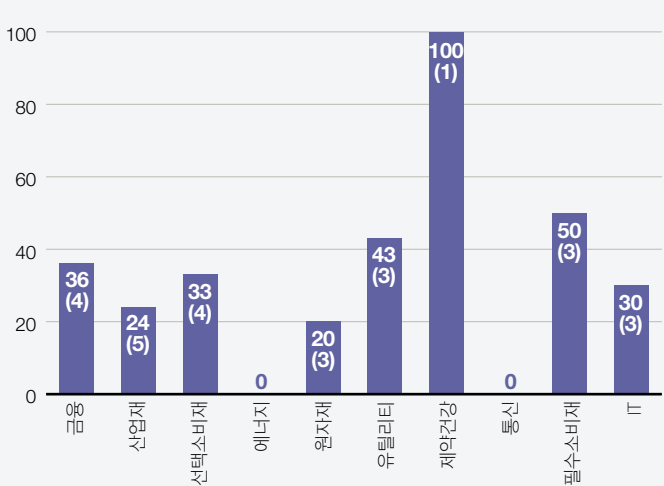
KS 18 섹터별 재무 보고서를 통한 기후변화정보 공개 기업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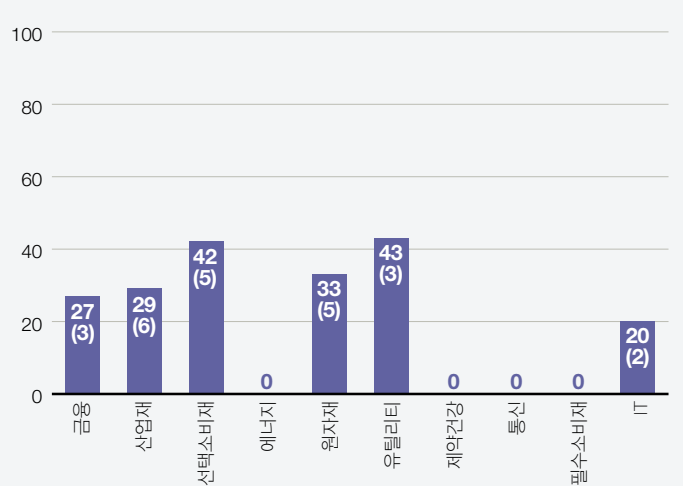
KS 19 섹터별 절대량 목표 공개 기업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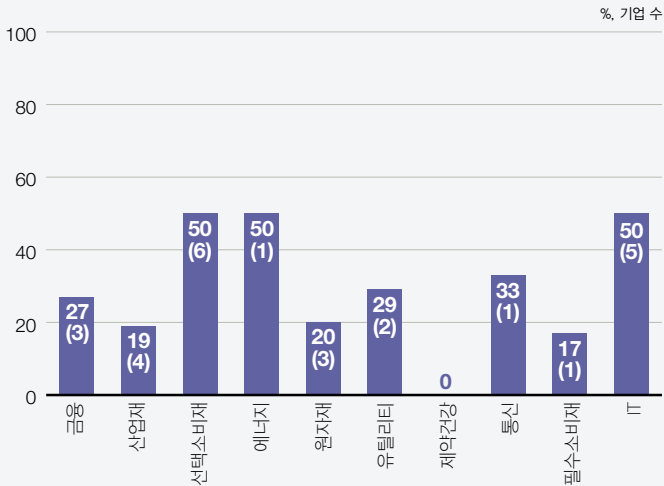
KS 20 섹터별 원단위 목표 공개 기업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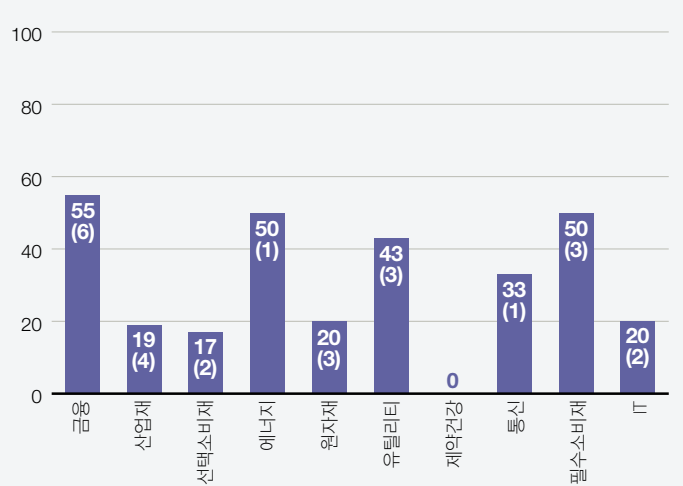
KS 21 섹터별 감축 목표 달성 기업 비율



KS 22 섹터별 1.5°C에 부합하는 감축률(전년대비 4%이상) 달성 기업 비율¹



KS 23 섹터별 넷제로 목표 적용 기업 비율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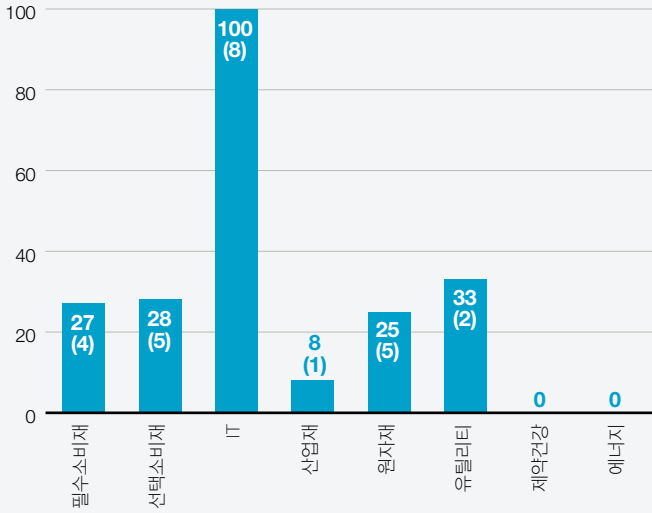
1. CDP질의서 7.9a문항에서 재생에너지 소비량 변화와 기타 배출량 감축활동 행의 배출량 변화 비율의 합이 4% 이상인 기업만 분석에 포함
 2. CDP질의서 4.2문항에서 넷제로 목표를 선택한 기업만 분석에 포함

주요 통계

Wa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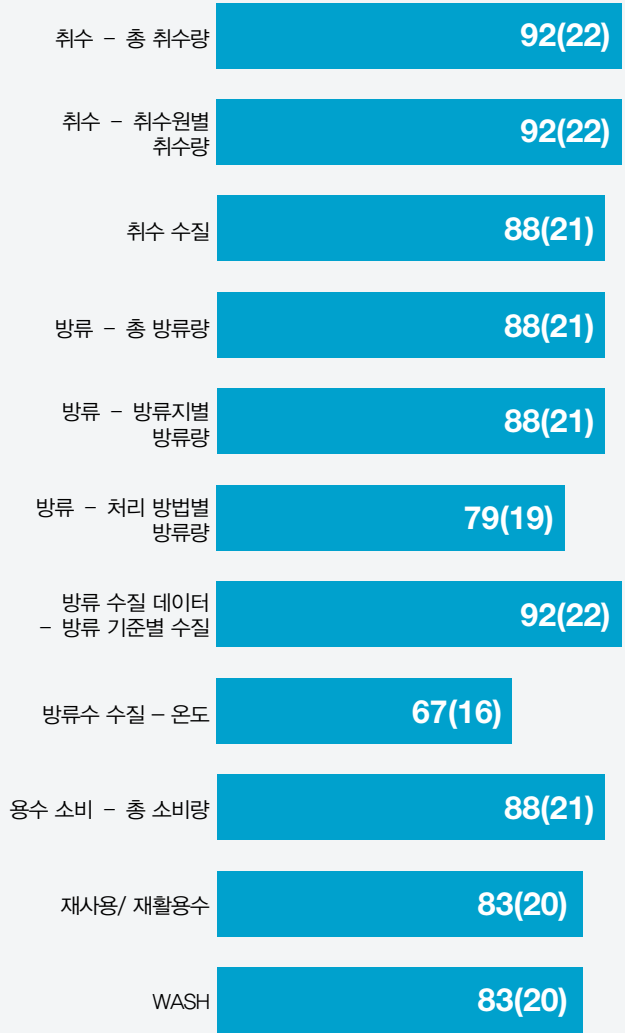
KSW 1 섹터별 응답률

% 기업 수



KSW 2 물 관련 지표별 모니터링하는 기업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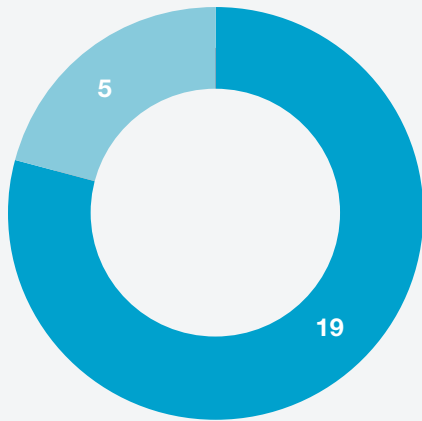
% 기업 수



KSW 3 물 스트레스 지역으로부터 취수 여부

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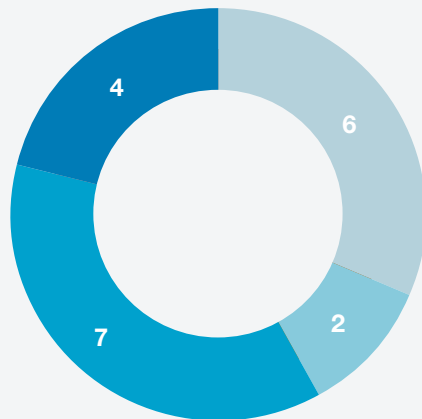
해당
미해당



KSW 4 작년 대비 물 스트레스 지역으로부터의 취수 여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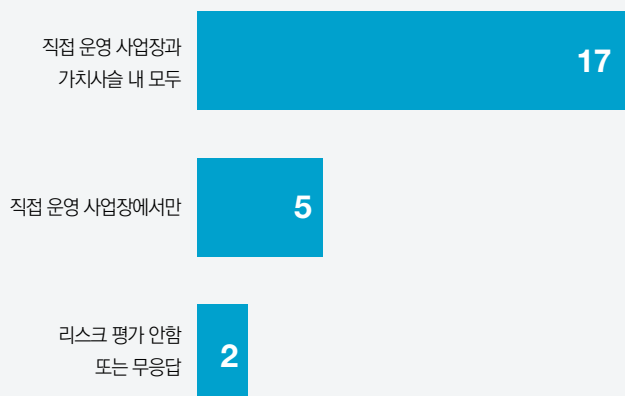
기업 수

증가
감소
동일
모니터링 첫 해



KSW 5 중대한 물 관련 위험 식별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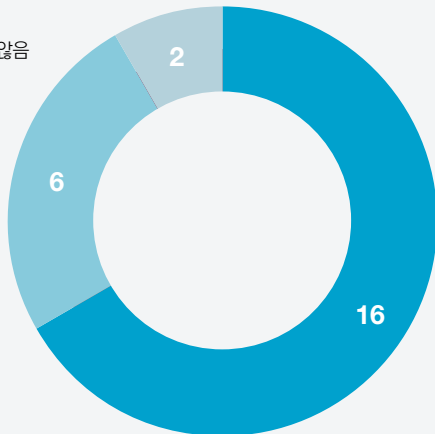
기업 수



KSW 6 물 관련 내부 정책 수립 여부

기업 수

- 수립하고 공개하였음
- 수립하였지만 공개하지 않음
- 수립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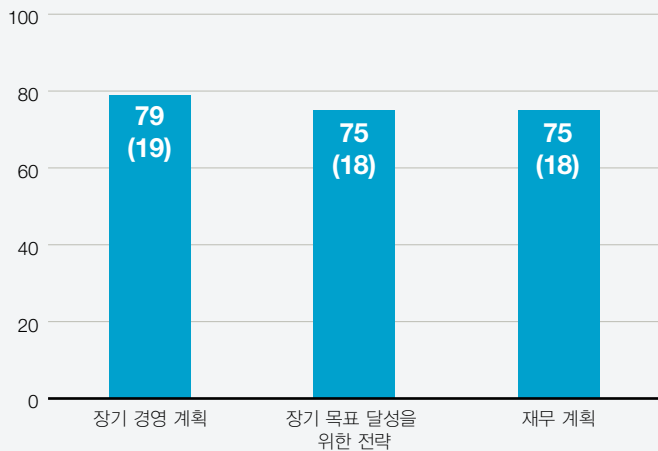
KSW 7 물 관련 이슈에 대한 이사회 감독 여부

% 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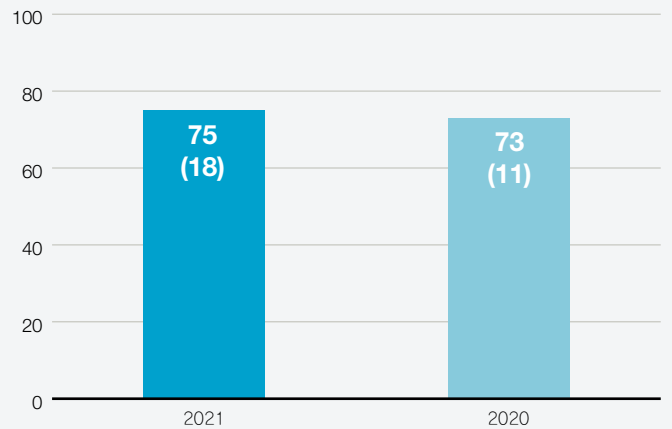
KSW 8 장기 경영 계획에 물 관련 이슈의 통합 여부

% 기업 수



KSW 9 물 관련 시나리오 분석 여부

% 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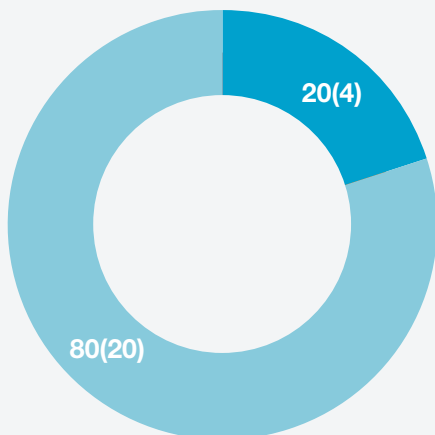


KSW 10 물 관련 전사적 목표 수립 여부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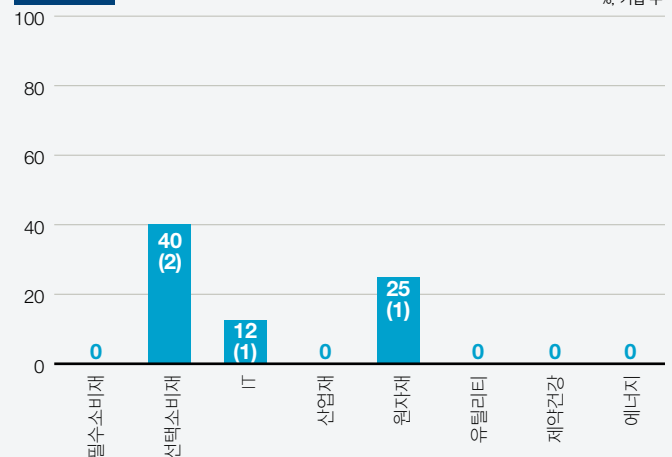
% 기업 수

- 수립
- 미수립



섹터별

% 기업 수





CDP 2021 Korea Best Practice

신한금융그룹

KB금융지주

DG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SK텔레콤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LG유플러스

효성티앤씨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SK 이노베이션

코스맥스

현대글로비스

기아

SK(주)

SKC

SK하이닉스

아모레퍼시픽

현대위아



DGB금융그룹은 2006년 국내기업 최초의 '지속가능경영 선포식'을 개최한 이래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유엔 글로벌 콤팩트(UN Global Compact),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 등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선도적 가입과 함께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DGB금융그룹은 금융소비자에게 친환경을 전파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친환경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대출심사 과정에서 ESG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등 기업의 친환경 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운영에 있어서도 ISO 14001 인증을 취득하고 국내 금융권 최초로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여 환경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협의체(TCFD) 참여와 과학기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SBTi) 서명, 탄소회계금융연합체(PCAF) 가입 등으로 기후금융 고도화를 선언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하고 'ESG 경영으로 뉴노멀 선도'를 새로운 ESG 비전으로 설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회 내 ESG 위원회 신설, ESG 채권 발행, '탈석탄 금융' 선언을 통해 ESG 경영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DGB금융그룹은 향후에도 금융업계에서 기후변화 대응 리더십을 발휘하고 ESG 경영을 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DGB 금융그룹





진정성 있는 ESG 경영 실천을 통한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실현

하나금융그룹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그룹의 큰 발걸음을 모티브로 한 "Big Step for Tomorrow"라는 ESG 비전 하에서 「2030 & 60」과 「ZERO & ZERO」라는 2가지 추진 목표를 수립하고, 올해 4월 ESG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여 2021년을 ESG 경영 원년으로 공표한 바 있습니다. 「2030 & 60」은 2030년까지 ESG 금융 60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의미이며, 「ZERO & ZERO」는 2050년까지 사업장 탄소 배출량 ZERO와 석탄 프로젝트 파이낸싱 ZERO를 달성하겠다는 그룹의 약속입니다.

하나금융그룹은 이러한 ESG 추진 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 3월 지주 이사회 내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 최초로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한편 그룹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2018년부터 1,500억원 규모의 어린이집 100호 건립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집중 지원, 미혼모 주택 지원 및 취업 교육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혁신 기업 성장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그룹 미션인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속가능경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하나금융그룹 지속가능금융 프레임워크」를 제정하였습니다. 프레임워크는 그룹의 ESG중장기 추진 목표를 실천하고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산업정책, 지속가능금융 분류 체계, ESRM (환경사회 리스크관리체계), ESG통합정책 가이드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은행은 적도원칙에 가입 완료하였고, 프로젝트금융(PF) 등 대형 개발 사업이 환경파괴 또는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금융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10대 원칙을 금융 의사 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ESG가 사회 전반에 정착할 수 있도록 ESG내재화를 촉력하기 위한 금융지원 활동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탄소 경제체제 이행 촉진 및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ESG채권을 발행하여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 관련 사업, 일자리 창출 및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에 자금 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국내 민간은행 "1호" 친환경 그린론을 주선하면서 은행의 녹색 여신에 대한 선도은행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였으며 이를 발전시켜 지난 4월 은행권 최초로 'ESG평가 인증제'를 도입하였습니다. ESG평가인증은 ESG평가 업무를 신용평가회사와 회계법인 등 외부전문 기관을 통해 인증 받는 것으로, 해당 인증을 받은 기업과 프로젝트는 하나은행 ESG 금융지원 대상으로 인정하여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올해 3월 TCFD지시 선언 이래, 주요 기업 여신을 대상으로 탄소 배출량을 반영한 기후 리스크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탄소집약도가 높은 산업군을 파악하고 미래탄소비용을 예측한 후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 리스크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기후 변화 대응을 금융의사결정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그룹의 탄소배출량 감축목표를 정비함으로써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금융그룹은 저탄소 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 금융 지원을 확대할 것이며, 금융을 통한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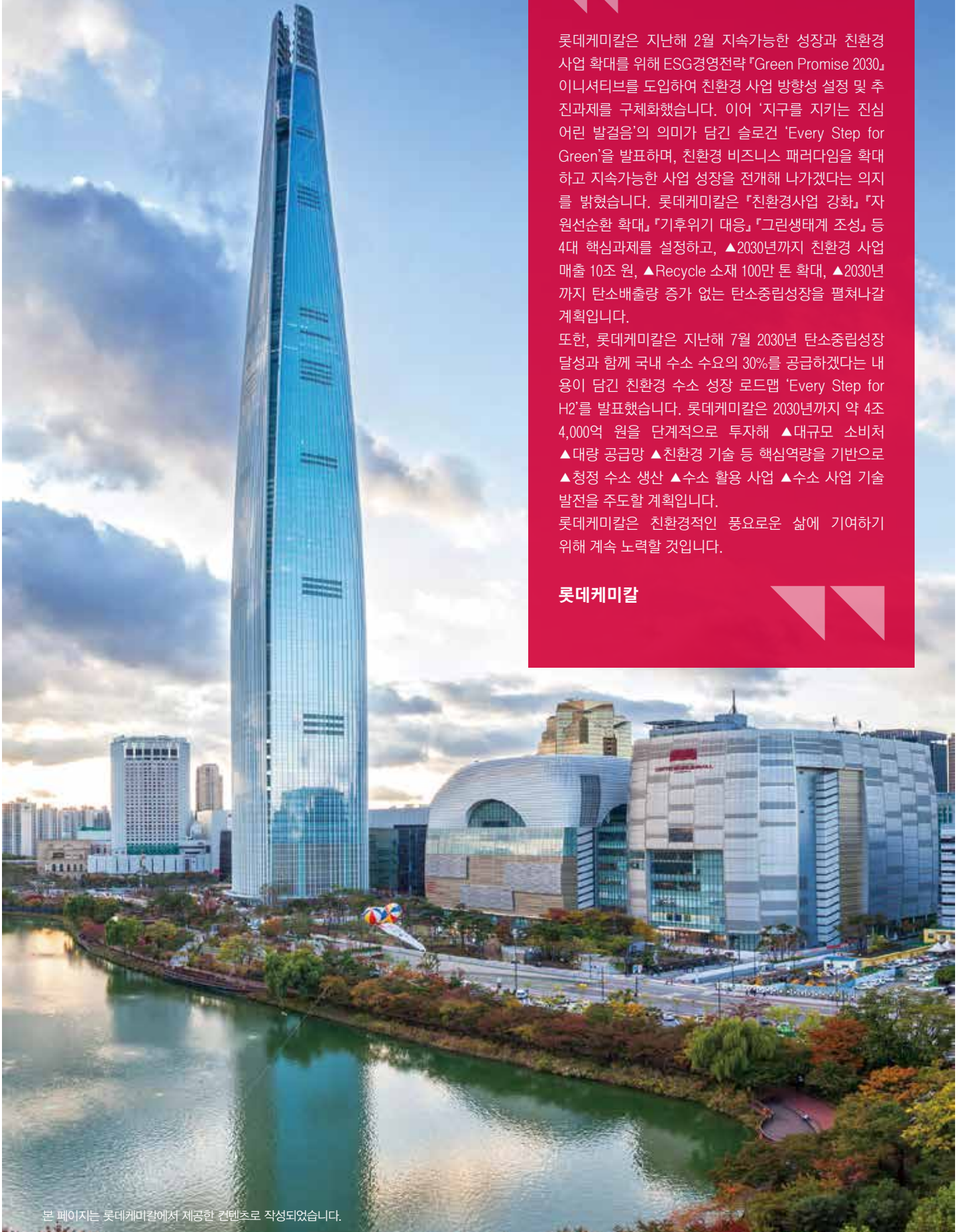
SK텔레콤은 2021년에 ESG 선도기업을 목표로 이사회 내 ESG위원회를 신설하고 ESG추진 조직을 확대해 ESG 경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2019년 SBTi 참여 선언, 2020년 RE100 가입, 2021년 넷제로 선언 등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화를 위해 3G와 LTE 장비의 통합 기술 (Single RAN)로 기존 대비 53% 전력을 절감, 환경부로부터 통신업계 최초 탄소배출권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RE100 이행을 위해 통신국사에 태양광 설비 설치 및 녹색프리미엄 계약으로 재생에너지를 조달하였습니다.

2018년도부터 추진 중인 미얀마 콕스토브 CDM 사업의 성과로 UNFCCC로부터 탄소배출권(CER) 확보와 동시에 개도국의 지속가능한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컵 폐기물 이슈 해결과 생활속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SK텔레콤의 Vision AI 기술을 적용한 다회용컵 사용 프로젝트 해피해빗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ICT 기술 기반 친환경 경영활동을 강화하고 소셜 임팩트를 확대해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2월 지속가능한 성장과 친환경 사업 확대를 위해 ESG경영전략 『Green Promise 2030』 이니셔티브를 도입하여 친환경 사업 방향성 설정 및 추진과제를 구체화했습니다. 이어 '지구를 지키는 진심 어린 발걸음'의 의미가 담긴 슬로건 'Every Step for Green'을 발표하며, 친환경 비즈니스 패러다임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사업 성장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친환경사업 강화』 『자원순환 확대』 『기후위기 대응』 『그린생태계 조성』 등 4대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2030년까지 친환경 사업 매출 10조 원, ▲Recycle 소재 100만 톤 확대,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증가 없는 탄소중립성장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7월 2030년 탄소중립성장 달성과 함께 국내 수소 수요의 30%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친환경 수소 성장 로드맵 'Every Step for H2'를 발표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2030년까지 약 4조 4,000억 원을 단계적으로 투자해 ▲대규모 소비처 ▲대량 공급망 ▲친환경 기술 등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청정 수소 생산 ▲수소 활용 사업 ▲수소 사업 기술 발전을 주도할 계획입니다.

롯데케미칼은 친환경적인 풍요로운 삶에 기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은 'Sustainable solutions for all, from energy to materials' 비전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전 사업에 걸쳐 친환경 중심의 사업모델 변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사람과 지구, 모두를 위한 한화솔루션만의 'Green Planet Solutions'을 통하여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감축하고, 2050년까지 Net Zero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화학분야는 PTC(Plastic to Chemicals) 기술과 바이오 플라스틱 사업을 개발해 '자원 순환형' 사업을 구축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분야는 태양광에 이어 풍력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또한 재생에너지로부터 생산한 그린수소를 저장·유통할 수 있는 사업까지 진출하여 글로벌 Top-Tier 친환경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ESG 경영강화를 위하여 이사회 산하의 ESG 위원회를 신설하였고,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추진과제를 검토·관리하여 지속가능경영 실행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글로벌 Trend에 발맞춰 제품별 탄소관리 강화를 위해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LCA(Life Cycle Assessment)기법을 통하여 전제품으로 관리영역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한화솔루션은 차별화된 에너지·소재 기술 혁신으로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솔루션





LG유플러스는 경영활동으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LG 환경 비전에 따라 3대 경영목표인 '그린사업장 조성', '그린사업 강화', '그린신제품 확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환경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이사회 산하 ESG 위원회에 임원급 ESG 실무위원회를 신설하여 환경안전경영시스템 운영, 친환경 폐기물 관리, 유무선 장비와 데이터센터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 대응 등 각 분야별 전담부서로부터 환경경영 활동 성과를 보고받고 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에너지절감과 더불어 통신 네트워크와 데이터센터에서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데이터센터인 평촌메가센터에서는 현재 태양광 패널, 지열히트펌프 설비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발전 및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와 '탄소 중립 생활 실천 확산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임직원의 탄소중립 생활실천을 위해 탄소중립 교육을 진행하는 등 임직원 인식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기후변화 대응 목표 설정과 진행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소통을 활발히 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탄소 저감 행동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LG유플러스





효성티앤씨는 글로벌 친환경 이니셔티브에 맞춰 탄소 감축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다양한 친환경 제품의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친환경 재생 나이론, 폴리에스터, 스판덱스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를 Global 브랜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7년 출시된 리사이클 나이론인 '마이판 리젠'은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나이론을 100% 재사용하여 생산하고 있으며 당사는 이를 세계 각국의 고객사에 공급, Closed Loop 친환경 순환 구조의 벨류 체인 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버려진 페트병을 재활용해 만든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리젠'은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후 제주 특별자치도, 서울시 등 지자체들과 MOU를 체결, '리젠 제주', '리젠 서울'과 같은 제품을 연이어 출시해 국내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2021년에는 친환경 스판덱스 creora® regen을 출시하는 등 섬유업계의 탄소감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21년 서울특별시 환경분야 최고 권위의 상인 '2021 서울특별시 환경상 대상'과 2021 CDP Korea Awards CDP Korea 탄소경영 특별상을 수상 하였습니다. 효성티앤씨는 향후에도 지속 가능한 가치 창출을 위해 녹색 섬유의 연구 개발에 꾸준한 관심과 투자를 지속하여 친환경 대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효성티앤씨





LG화학은 Sustainability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경영활동 전반에 고객, 환경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EGS경영을 위한 5대 최우선 과제(기후변화, 자원순환, 공급망, 인권, Compliance)를 선정하였고, 기후변화 분야에서 '탄소중립 성장(Carbon Neutral Growth)'을 포함한 중장기 목표를 국내 화학업체 최초로 선언하였습니다. LG화학은 기후변화 위기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사업 포트폴리오를 저탄소와 친환경 중심으로 혁신하고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등과 탄소 감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 포집 및 활용 기술 (CCU, 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등 혁신적인 신기술에도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LG화학은 프리미엄 친환경 브랜드인 'LETzero'를 출시하고 친환경 소재 개발과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LETzero'에는 폐플라스틱을 재가공한 PCR(Post-Consumer Recycled material)제품, 재생 가능한 식물성 원료로 만든 Bio-balanced 제품과 옥수수에서 추출한 포도당 및 페글리세롤 등을 활용한 100% 생분해성 제품이 있습니다.

LG화학은 앞으로도 Global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미래 가치를 창출하고 기후변화 위기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겠습니다.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Driven. For Life. 라는 미션을 바탕으로 인류의 더 나은 삶과 건강을 추구하며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고자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과 에너지경영시스템(ISO50001) 등 국제표준에 근거하여 사업장 내 녹색경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넷제로(Net Zero) 실현을 위한 도전적인 감축목표와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 및 달성하고자 사업장 내 모니터링을 통한 프로세스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의 활동을 모색하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 중인 신공장에도 태양광 발전 및 친환경 냉매를 선제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업계의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며 글로벌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금융감독원 및 각 산업별 전문가그룹으로 구성된 기후환경리스크 관리모형개발 프로젝트 "Frontier-1.5D"에 참여하여 온실가스에 따른 불확실성을 예상비용으로 환산하여 대응하고 경영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데 기여하는 중입니다.

또한, 영국 왕실 주도의 SMI(Sustainable Markets Initiative)에서 바이오/제약 CDMO 업계 대표로 Supply Chain 위원회 의장 역할을 수행하며 넷제로를 위한 방안 확보에 앞장서는 등 글로벌 CDMO 기업으로서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앞으로도 환경 경영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제약 바이오 업계의 ESG 경영을 선도하여 더 건강한 인류, 더 건강한 지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본 페이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제공한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기후변화 Risk 해결이 당사가 당연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과제이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라 판단하고, 탄소배출 감축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를 진정성 있게 실행하기 위해 당사의 핵심 전략을 'Carbon to Green'으로 수립하고, 배터리 사업, 폐배터리 재활용, 바이오 연료 등 친환경 사업 확장, 탄소포집기술 개발,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순환 경제 사업 등 저탄소 사업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50년 전까지 Carbon Net Zero(온실가스 순 배출량 0)'를 목표로 하는 넷제로 로드맵을 선제적으로 수립하여 아시아 지역 석유화학회사 최초로 Scope 1, 2, 3 통합 감축 목표를 공표하였고, 외부 투자자들의 공감대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22년 CES에서도 Net Zero 관련 전략을 점검하며 자발적 탄소배출권을 통한 탄소중립 통근·출장을 국내 최초로 추진하였습니다. 더불어, SK이노베이션은 잠재적인 기후변화 및 환경 Risk 대응 등 기후 변화 대응을 총괄하는 핵심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 산하 ESG 위원회를 설립하고 모든 이사회 안건의 ESG 관련 사항을 검토하는 등 실질적인 ESG 경영을 실행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SK이노베이션은 'Green'으로의 사업 구조 전환을 기반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통한 탄소 감축 기여 효과를 증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코스맥스는 글로벌 No.1 화장품 연구개발·생산 (ODM) 기업으로 기후변화가 기업의 경영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코스맥스는 2030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장 내 고효율 설비 교체, 유틸리티 운영 최적화 등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평택공장 및 연수원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도입하였으며 향후 기존 및 신규 사업장 내 태양광 발전 시설의 추가 도입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글로벌 기후변화 프로젝트인 CDP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현황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고객사의 온실가스 정보공개 요구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코스맥스는 기후변화 대응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과 지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코스맥스





글로벌 종합물류기업인 현대글로비스는 신기후체제와 대내외 환경정책에 발맞춰 차량, 선박, 물류센터 등 SCM 전반에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브랜드 ECOH(환경을 의미하는 ECO와 사람을 뜻하는 HUMAN의 합성어)를 론칭하여, 수소와 전기차 배터리 등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와 수소화물차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소트럭을 현장에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소의 생산-저장-운송-공급 등 전 영역에서 밸류체인을 구축하여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 물류기업 최초로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전담협의체인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지지선언을 하였으며, 환경부 K-EV100(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이니셔티브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운송수단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화물차량 에코드라이빙 확대와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였으며, 선박은 황산화물 배출량 감축을 위한 스크러버 설치와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신기술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대글로비스는 물류유통 분야 Leading Company로서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발굴하고 실천하며, 저탄소 경영에 적극 앞장설 계획입니다.

현대글로비스





지구와 환경에 대한 기아의 진정성 있는 무브먼트는 혼자가는 열 걸음보다, 함께 가는 한 걸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하고, 기아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지난 해 11월,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Sustainable Mobility Solutions Provider)라는 기업 비전과 함께 2045년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화석 연료 기반의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Sustainable Energy, 제품과 서비스에서 친환경을 추구하는 Sustainable Mobility, 지구 환경을 위한 Sustainable Planet 세 가지의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됩니다.

이 가운데 기아의 전동화 전략은 탄소배출량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차량 사용 단계에서의 탄소 배출량 최소화, 나아가 탄소중립을 향한 핵심과제입니다. 기아는 중장기 미래전략 Plan S를 기반으로 2035년 유럽 시장 전동화 100%, 2040년 주요 시장 전동화 100%, 나아가 2045년에는 전 세계 전동화 100% 를 달성합니다. 특히, 기아의 최초 전용 전기차 EV6는 제품 전 과정의 환경영향 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를 실시하고,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자동차 제품 최초로 영국 카본 트러스트사의 탄소발자국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임직원들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2040년까지 전 세계 사업장 전력 수요 전량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RE100을 달성하고, 해외 사업장에서 2030년까지, 국내 사업장에서 2040년까지 에너지 전환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드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해양 생태계 조성/복원 사업 블루카본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아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범세계적 기후 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하고, 고객들에게 영감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아





SK주식회사는 기후변화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업계 최초로 RE100 이니셔티브 가입 및 우리나라 탄소중립목표보다 10년 앞당긴 '2040년'을 'Net Zero' 달성 시기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런 도전적 목표 아래 RE100 2040 로드맵 수립/이행, 기후 관련 재무 정보 공개 권고안(TCFD) 이행, 환경경영 시스템(ISO14001) 구축 등 환경경영을 지속적으로 Upgrade하고 있습니다. ICT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C&C 사업부문은 온실가스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량 감축 및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주요 지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1년 녹색프리미엄 가입 및 태양광 자가발전 시설을 확충하였으며, RE100 로드맵에 따라 재생에너지비중은 매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SK주식회사 투자부문은 저탄소사회 전환의 기회를 선점하고자 Green투자 센터를 신설, Net Zero달성에 필요한 대체에너지, 환경기술, 지속가능식품, Co2처리기술을 중점 투자영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1년에는 연료전지 및 청록수소 기술 보유 기업, 플라스틱 대체 소재 기업 등에 총 2.7조원을 투자하여 우량 Green 자산을 확보하였습니다.

SK주식회사는 Net Zero 조기 달성 및 미래 저탄소 친환경 사업 선도를 목표로 앞으로도 친환경경영 내재화 및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SK주식회사





SKC는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12년부터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2015년 시행된 배출권 거래제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뒤에는 다양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활동을 추진해왔으며, 2040년 온실가스 넷 제로 달성 목표를 수립하고 감축 방안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SKC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비즈니스 모델 혁신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전기차 배터리 핵심소재인 동박 제조 기업 SK넥실리스를 인수하고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영국의 차세대 실리콘 음극재 기술 기업 넥시온에 투자를 결정하며 2차전지소재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전력효율이 좋은 반도체 글라스 기판 사업,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생분해 소재 사업을 확대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 저감 소재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SKC는 재생에너지 사용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국내 기업 최초로 RE100에 가입했습니다. 동박사업 투자사 SK넥실리스는 첫 해외 생산기지가 될 말레이시아 공장, 유럽 시장 교두보가 될 폴란드 공장에서 100% 재생에너지만을 사용해 RE100을 완전 이행합니다. SK피아이씨글로벌 등 투자사도 녹색프리미엄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등 RE100 이행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SKC는 기후변화 대응 등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이사회의 역할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1년 이사회 산하에 신설한 ESG위원회는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한 ESG 추진전략 뿐만 아니라 중장기 사업 전략과 대규모 투자 계획을 ESG 관점에서 사전 검토합니다. 2040 온실가스 넷 제로 달성을 위한 이사회의 관리, 감독 기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SKC





SK하이닉스는 'SV 2030'을 발표하며 Net Zero 달성,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 사회 안전망 구축, 다양성 및 포용성에 기반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더불어 살기 위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있어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키우며 ESG의 중요성 또한 관리하기 위해 친환경 지표를 수립하고 경영층의 의사결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CDP에 참여한 SK하이닉스는 이러한 기후변화 대응에 꾸준히 노력한 업적을 인정받아 5년 연속 "탄소경영 Honors Club"에 선정되어 2013년 국내 기업 최초로 명예의 전당에 진입한 이후 9년 동안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Platinum Club은 2016년을 시작으로 현재 6년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앞으로도 글로벌 기후변화 위기해결을 위해 탄소 배출을 비롯한 환경 영향을 저감하며 친환경 반도체 제조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아모레퍼시픽은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해 삶의 터전인 지구를 지키는 노력에 동참합니다. 정부와 기업, 협력사, 시민단체 그리고 고객까지, 더 많은 이해관계자와 함께 더 큰 변화를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전 인류가 직면한 기후 위기를 다 함께 해결하고 우리 삶의 터전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2021년 3월엔, 기업이 사용하는 전기를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글로벌 RE100'에 동참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전 생산 사업장 및 기술 연구원, 물류 등 아모레퍼시픽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글로벌 생산 사업장의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폐기물 매립 제로를 달성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한정된 자원을 한 번 쓰고 버리는 선형의 자원 소비에서 벗어나 다시 쓰는 순환형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이미 발생한 폐기물은 재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개발하며 실천해갑니다. 그린 사이클 캠페인을 통해 회수되는 포장재의 물질 재활용률을 높이고, 재활용 원료가 적용되는 용처를 제품에서부터 매장 집기, 건축 자재에 이르기까지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제품의 친환경성을 높이고 제품 포장재 및 물류,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통합적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또한 국내 뷰티 업계 최초로 리필스테이션을 열어 리필 제품 사용만으로도 플라스틱 사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이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제품 포장재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절감하고, 플라스틱 포장재는 100% 재활용, 재사용 및 퇴비화가 가능하도록 설계할 것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러한 내용을 담아, 세상과의 깊은 공감을 바탕으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새로운 2030 지속가능경영 선언을 고객과 약속합니다. 사람과 세상 모두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소명을 다하기 위해 명확한 목적의식에 기반한 브랜드 활동으로 고객의 지속가능한 삶을 증진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포용적으로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인류 앞에 놓인 공동의 과제인 기후 위기 대응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자원 순환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현대위아는 ESG 경영을 전면 도입하며 지속 성장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현대위아는 이를 위해 친환경 자동차부품사로의 전환에 나서는 중입니다. 실제 지난해 전기차의 구동 부품과 배터리 부분을 통합해 열을 관리하는 '냉각수 분배·공급 통합 모듈'을 국내 자동차부품 업체 중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아울러 2025년 이후 실내 공조까지 아우를 수 있는 '통합 열관리 시스템(ITMS, Integrated Thermal Management System)'을 개발, 친환경 자동차 부품사로 성장한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위아는 사업장 내에서의 탄소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국 사업장의 에너지와 생산 효율을 높이고, 불필요한 장비가 가동되는 일을 최소화했습니다. 이에 2018년 현대위아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22만1458tCO₂eq에서 2020년 17만173tCO₂eq까지 감축했습니다. 현대위아는 환경을 지키기 위한 국내외 제도에도 자발적으로 참여 중입니다. 2018년 전력 수요자원 거래시장 제도에 참여했고, 올해에는 글로벌 RE100에 참여해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 목표를 세웠습니다. 현대위아는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유공자 포상'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현대위아는 탄소 중립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모든 이웃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현대위아



부록 I . 2021 CDP Climate Change Korea 그룹별 참여현황

ETS 또는 목표관리제 대상기업 * 3년 연속 미응답 기업
 응답: 응답 지연, 평가 및 분석에 미반영, 점수 비공개 기업, Supply Chain 응답기업
 F(무응답): 무응답 또는 응답거부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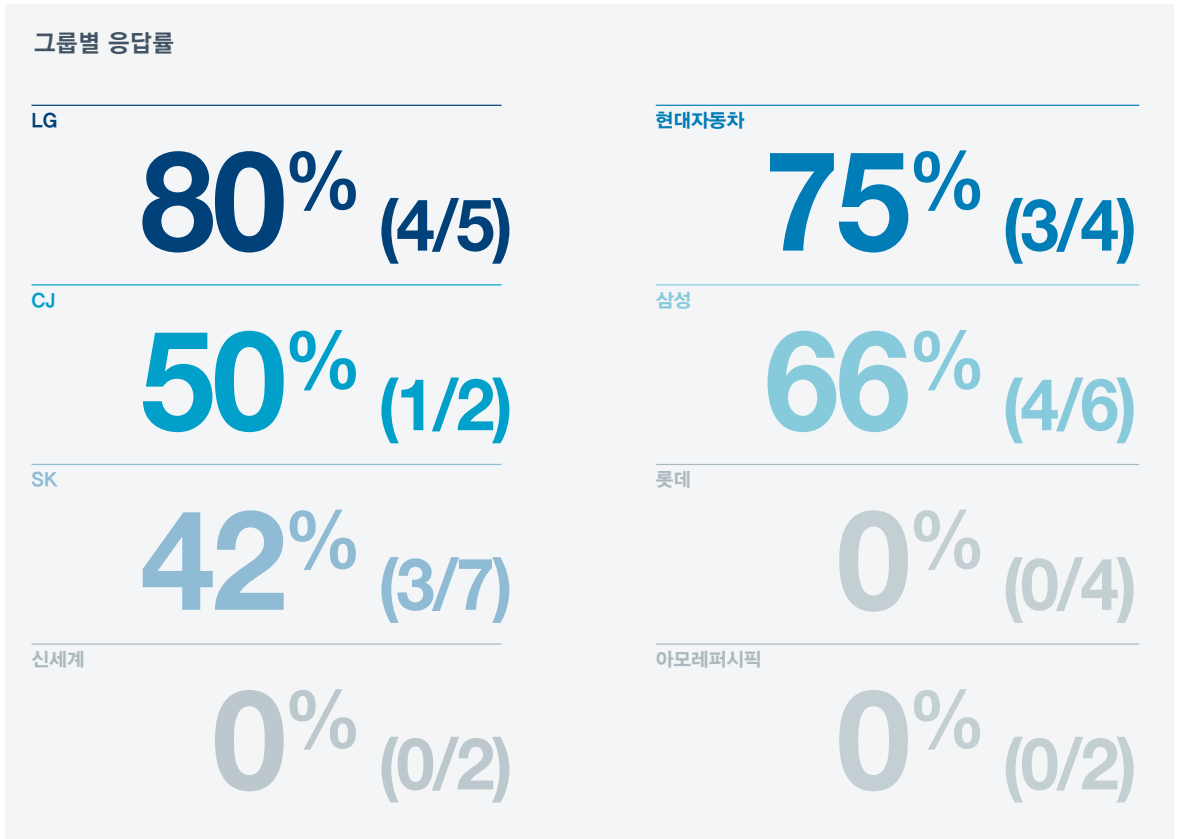
| 그룹 | 밴드 | 기업명 | |
|-------|------------|------------|----------|
| 삼성 | Leadership | A- 삼성엔지니어링 | |
| | | Management | |
| | B | 삼성화재 | |
| | | 삼성물산 | |
| | | 삼성바이오로직스 | |
| | | 삼성전기 | |
| | | 삼성전자 | |
| | | 삼성SDI | |
| | | 삼성SDS | |
| | B- | 삼성카드 | |
| | | Awareness | |
| | C | 삼성증권 | |
| | | 삼성중공업 | |
| | F(무응답) | 삼성생명* | |
| 에스원* | | | |
| 제일기획* | | | |
| 호텔신라* | | | |
| SK | Leadership | A SK텔레콤 | |
| | | A- SK에코플랜트 | |
| | B | SK이노베이션 | |
| | | SK(주) | |
| | | SK하이닉스 | |
| | | SK가스 | |
| | B | SK머티리얼즈 | |
| | | SK실트론 | |
| | | SK케미칼 | |
| | SKC | SK네트웍스 | |
| | | SK디스커버리 | |
| | LG | Leadership | A LG유플러스 |
| | | | A- LG전자 |
| | | B | LG디스플레이 |
| LG화학 | | | |
| (주)LG | | | |
| LG이노텍 | | | |
| B- | | LX하우시스 | |
| | | LG생활건강 | |
| 응답 | | LG에너지솔루션 | |

| 그룹 | 밴드 | 기업명 | |
|----------|------------|------------|------------|
| 현대자동차 | Leadership | A 현대글로벌비스 | |
| | | A- 기아 | |
| | B | 현대건설 | |
| | | 현대위아 | |
| | | 현대모비스 | |
| | | 현대자동차 | |
| | B- | 현대제철 | |
| | | F(무응답) | |
| | 한국전력공사 | Leadership | A- 한국전력공사 |
| | | | Management |
| B | | 한국남동발전 | |
| | | 한국남부발전 | |
| | | 한국동서발전 | |
| F(무응답) | | 한국서부발전 | |
| | 한전KPS* | | |
| 효성 | Leadership | A- 효성티앤씨 | |
| | | Management | |
| | B | 효성 | |
| | | 효성중공업 | |
| 현대중공업 | Management | B 현대건설기계 | |
| | | Awareness | |
| | C | 현대두산인프라코어 | |
| | | F(무응답) | |
| | F(무응답) | 한국조선해양* | |
| | | 현대미포조선* | |
| 현대중공업지주* | | | |
| CJ | Disclosure | D CJ제일제당 | |
| | | 응답 | |
| | F(무응답) | CJ(주)* | |
| | | CJ ENM* | |
| 롯데 | Leadership | A- 롯데케미칼 | |
| | | F(무응답) | |
| | B | 롯데쇼핑* | |
| | | 롯데정밀화학* | |
| 롯데지주* | | | |
| 한화 | Leadership | A- 한화솔루션 | |
| | | Management | |
| | B | (주)한화 | |
| | | F(무응답) | |
| F(무응답) | 한화생명* | | |
| | 한화테크윈* | | |

| 그룹 | 밴드 | 기업명 |
|------------|------------|------------|
| 메리츠금융 | F(무응답) | 메리츠금융지주* |
| | | 메리츠증권* |
| | | 메리츠화재* |
| 셀트리온 | F(무응답) | 셀트리온* |
| | | 셀트리온제약* |
| | | 셀트리온헬스케어* |
| | | 포스코 |
| Management | B | 포스코 |
| | | F(무응답) |
| | | 포스코대우* |
| F(무응답) | 포스코케미칼* | |
| | GS | Management |
| | | B |
| F(무응답) | | |
| F(무응답) | (주)GS* | |
| | GS리테일* | |
| 녹십자 | F(무응답) | 녹십자* |
| | | 녹십자홀딩스 |
| 동부 | 응답 | 동부화재 |
| | F(무응답) | 동부하이텍* |
| 두산 | Disclosure | D 두산중공업 |
| | | F(무응답) |
| | | 두산밥캣* |
| 산업은행 | Management | B- 대우건설 |
| | | F(무응답) |
| F(무응답) | 대우조선해양* | |
| | 신세계 | F(무응답) |
| 이마트* | | |
| 아모레퍼시픽 | Management | B 아모레퍼시픽 |
| | | F(무응답) |
| F(무응답) | 아모레퍼시픽그룹* | |
| | 한국타이어 | Management |
| F(무응답) | | |
| 한국엔컴퍼니* | | |
| 한미 | F(무응답) | 한미사이언스* |
| | | 한미약품* |
| 한솔 | 응답 | 한솔제지 |
| | F(무응답) | 한솔케미칼* |
| 한진 | Awareness | C 대한항공 |
| | | F(무응답) |
| | F(무응답) | 한진칼 |
| LS | Awareness | C LS산전 |
| | | F(무응답) |
| F(무응답) | (주)LS* | |

부록 II . 2021 CDP Water Korea 그룹별 참여현황

응답 : 응답지연, 평가 및 분석에 미반영, 점수 비공개 기업
 F(무응답) : 무응답 또는 응답 거부



| 그룹명 | 밴드 | 기업명 |
|-------|------------|---------------|
| 현대자동차 | Leadership | A 기아 |
| | | A- 현대자동차 |
| | Management | B 현대건설 |
| | | F(무응답) 현대제철 |
| LG | Leadership | A LG이노텍 |
| | | A- LG디스플레이 |
| | Management | B LG화학 |
| | | F(무응답) LG생활건강 |
| 롯데 | Leadership | A- 롯데케미칼 |
| | | F(무응답) 롯데쇼핑 |
| | Management | B 롯데지주 |
| | | F(무응답) 롯데칠성 |
| 삼성 | Leadership | A 삼성전자 |
| | Management | B 삼성디스플레이 |
| | Awareness | C 삼성전기 |
| | 응답 | 삼성SDI |
| | F(무응답) | 삼성물산 |
| | | 삼성중공업 |

| 그룹명 | 밴드 | 기업명 |
|--------|------------|------------|
| SK | Management | B SK실트론 |
| | | SK하이닉스 |
| | | SKC |
| | F(미응답) | SK케미칼 |
| | | SK㈜ |
| 신세계 | F(무응답) | SK머티리얼즈 |
| | | SK이노베이션 |
| | | 신세계인터넷내셔널 |
| 아모레퍼시픽 | F(무응답) | 신세계 |
| | | 이마트 |
| CJ | Awareness | C 아모레퍼시픽 |
| | | C 아모레퍼시픽그룹 |
| | | CJ제일제당 |
| | | CJ㈜ |

부록 III. 2021 CDP Climate Change Korea 기업별 현황

| 기업명 | 수강 | 업내영 영리내용 정확성 지속적 공개 여부 | 2021 CDP 레드 | 2020 CDP 레드 | 2019 CDP 레드 | Scope 1 배출량 (metric tons CO ₂ e) | Scope 2 배출량 (metric tons CO ₂ e) | Scope 3 배출량 보고 수 | 기타 배출량 (Scope 1 + 2) | 넷제로 목표여부 | 넷제로 목표연도 | 과학기반 수립 여부 |
|------------|--------|------------------------------------|-------------------|-------------------|-------------------|--|--|---------------------|----------------------------|-------------|-------------|---------------|
| 금융 | | | | | | | | | | | | |
| 신한금융그룹 | 명예의 전당 | 검증 | Leadership A- | Leadership A | Leadership A | 13,797 | 77,081 | 9 | 절대량 | ○ | 2050 | X |
| KB금융그룹 | 아너스클럽 | 검증 | Leadership A | Leadership A- | Leadership A- | 17,861 | 122,027 | 6 | 절대량&원단위 | ○ | 2050 | 수립완료 |
| 하나금융그룹 | 아너스클럽 | 검증 | Leadership A- | Leadership A | Leadership A- | 7,971 | 55,975 | 8 | 절대량 | ○ | 2050 | 수립계획중 |
| DGB금융그룹 | 섹터 아너스 | 검증 | Management B | Leadership A- | Management B | 3,579 | 18,187 | 9 | 절대량&원단위 | X | | |
| 기업은행 | | 검증 | Management B | F(무응답) | Leadership A- | 9,532 | 50,333 | 8 | 절대량 | ○ | 2050 | 수립계획중 |
| 동부화재 | | | 응답 | F(무응답) | F(무응답) | 2,751 | 22,496 | 1 | 절대량 | ○ | 2050 | 수립계획중 |
| 맥쿼리인프라* | | | F(무응답)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메리츠금융그룹* | | | F(무응답)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메리츠증권* | | | F(무응답)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메리츠화재* | | | F(무응답)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미래에셋대우 | | | Management B | Management B | Management B | 979 | 13,141 | 3 | 절대량 | ○ | 2050 | 수립계획중 |
| 삼성생명* | | | F(무응답)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삼성증권 | | | Awareness C | F(무응답) | F(무응답) | 654 | 634 | 2 | 절대량 | X | | |
| 삼성카드 | | | Management B- | F(무응답) | F(무응답) | 296 | 1,491 | 3 | 원단위 | X | | |
| 삼성화재 | | | Management B | Leadership A- | Leadership A- | 3,233 | 11,920 | 5 | 절대량&원단위 | ○ | 2050 | 수립계획중 |
| 우리금융그룹 | |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
| 키움증권* | | | F(무응답)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한국금융그룹* | | | F(무응답)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한국엔컴퍼니* | | | F(무응답)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한화생명* | | | F(무응답)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현대해상* | | | F(무응답)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BNK금융그룹* | | | F(무응답)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JB금융그룹 | | | Management B | F(무응답) | - | | | | | | | |
| NH투자증권 | | | Awareness C | Disclosure D | Disclosure D- | 69 | 2,980 | 1 | 절대량 | X | | |
| 산업재 | | | | | | | | | | | | |
| 현대건설 | 명예의 전당 | 검증 | Leadership A- | Leadership A | Leadership A- | 167,071 | 140,669 | 10 | 절대량 | X | | |
| 현대글로벌비스 | 아너스클럽 | 검증 | Leadership A | Leadership A | Leadership A- | 3,123,760 | 9,439 | 7 | 절대량 | X | | |
| GS건설 | 섹터 아너스 | | Management B | Awareness C | Management B | 49,466 | 71,210 | 10 | 절대량 | X | | |
| SK(주) | 섹터 아너스 | | Leadership A- | Disclosure D | Disclosure D | 205 | 63,808 | 10 | 절대량 | ○ | 2040 | 수립계획중 |
| 삼성엔지니어링 | 섹터 아너스 | | Leadership A- | Leadership A- | Leadership A | 27,058 | 31,608 | 8 | 절대량&원단위 | X | | |
| SK에코플랜트 | 특별상 | 자발적 | Leadership A- | - | - | 37,961 | 39,348 | 8 | 절대량 | ○ | 2040 | 수립계획중 |
| DL | | | F(무응답) | Leadership A | F(무응답) | | | | | | | |
| 대우건설 | | | Management B- | Management B | Awareness C | 6,944 | 52,030 | 0 | 절대량 | X | | |
| 포스코대우* | | | F(무응답)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대우조선해양* | | | F(무응답)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대한항공 | | | Awareness C | Awareness C | F(무응답) | 7,626,574 | 48,655 | 0 | 절대량&원단위 | X | | |
| 두산중공업 | | | Disclosure D | F(무응답) | Awareness C | 229,326 | 123,895 | 1 | 절대량 | ○ | 2023 | 수립계획중 |
| 삼성물산 | | 검증 | Management B | Leadership A- | Leadership A- | 76,944 | 112,237 | 7 | 절대량&원단위 | X | | |
| 삼성중공업 | | | Awareness C | Disclosure D | Disclosure D | 182,656 | 262,195 | 10 | 절대량 | X | | |
| 아이에스동서* | | | F(무응답)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에스원* | | | F(무응답)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에코프로비엠 | |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
| 태영건설 | | | F(무응답) | - | - | | | | | | | |

ETS 또는 목표관리제 대상기업 * 3년 이상 연속 미응답 기업

(-): 해당연도 CDP Korea 200, 250 제외기업

응답: 응답 지연, 평가 및 분석에 미반영, 점수 비공개 기업, Supply Chain 응답기업

F(무응답): 무응답 또는 응답거부 기업

| 기업명 | 수강 | 응답내용 공개여부 지리적 범위 | 2021 CDP 벤드 | 2020 CDP 벤드 | 2019 CDP 벤드 | Scope 1 배출량 (metric tons CO ₂ e) | Scope 2 배출량 (metric tons CO ₂ e) | Scope 3 배출권 포고 수 | 기술품목표 (Scope 1 + 2) | 넷제로 목표여부 | 넷제로 목표연도 | 과학기술품목표 수립계획 여부 |
|----------------|--------|------------------------|----------------|----------------|----------------|--|--|---------------------|------------------------|----------|----------|--------------------|
| 팬오션 | | 검증 | Management B | F(무응답) | F(무응답) | 2,484,446 | 573 | 0 | 절대량&원단위 | X | | |
| 한국조선해양* | | | F(무응답)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한국항공우주 | | | 응답 | 응답 | F(무응답) | | | | | | | |
| 한전KPS* | | | F(무응답)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한진칼 | |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
| 한화테크윈* | | | F(무응답)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현대건설기계 | 자발적 | Management B | - | - | - | 5,586 | 6,825 | 7 | 절대량 | X | | |
| 현대두산인프라코어 | | Awareness C | F(무응답) | F(무응답) | F(무응답) | 33,005 | 90,884 | 1 | 절대량 | X | | |
| 현대미포조선* | | | F(무응답)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현대엘리베이터* | | | F(무응답)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현대중공업지주* | | | F(무응답)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효성중공업 | 자발적 | Management B | - | - | - | 9,558 | 47,908 | 7 | 절대량 | X | | |
| (주)LG | | Management B | Leadership A- | Leadership A- | Leadership A | 2,215,495 | 2,836,343 | 6 | 절대량 | X | | |
| (주)LS* | | | F(무응답)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CJ대한통운 | | | 응답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CJ* | | | F(무응답)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DL이앤씨 | | | Management B | - | - | 25,644 | 37,203 | 8 | 절대량 | X | | |
| HDC현대산업개발 | | | F(무응답) | F(무응답) | 응답 | | | | | | | |
| HMM | | | Management B | Management B | Management B | 4,863,896 | 48,075 | 3 | 원단위 | X | | |
| KCC* | | | F(무응답)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LS산전 | | | Awareness C | Disclosure D | F(무응답) | 272,199 | 36,190 | 1 | 절대량 | X | | |
| LX하우시스 | | | Management B | Disclosure D | Management B | | | | | | | |
| SK네트웍스 | | | Awareness C | Disclosure D- | F(무응답) | | | | | | | |
| 선택소비재 | | | | | | | | | | | | |
| 현대위아 | 아너스클럽 | 검증 | Leadership A- | Leadership A- | F(무응답) | 25,489 | 429,651 | 12 | 절대량 | X | | |
| LG전자 | 섹터 아너스 | | Leadership A- | Management B | Leadership A | 440,166 | 854,054 | 13 | 절대량 | X | | |
| 기아 | 섹터 아너스 | 검증 | Leadership A- | Leadership A | Leadership A | 359,025 | 821,651 | 10 | 절대량 | X | | |
| 효성티앤씨 | 특별상 | | Leadership A- | F(무응답) | F(무응답) | 84,530 | 239,009 | 7 | 절대량 | X | | |
| 강원랜드* | | | F(무응답)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넥센타이어 | | | Awareness C | 응답 | F(무응답) | 35,225 | 194,048 | 1 | 절대량 | ○ | 2050 | 수립계획중 |
| 롯데쇼핑* | | | F(무응답)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만도 | | | Management B | 응답 | F(무응답) | 6,509 | 72,051 | 11 | 절대량 | X | | |
| 스튜디오드래곤* | | | F(무응답)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신세계* | | | F(무응답)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에이치엘비* | | | F(무응답)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영원무역* | | | F(무응답)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제일기획* | | | F(무응답)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코웨이 | | | Management B | Leadership A- | Leadership A- | 601 | 5,134 | 10 | 절대량&원단위 | X | | |
| 파라다이스* | | | F(무응답)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주) | | | Management B | Leadership A- | Leadership A- | 241,663 | 895,215 | 8 | 절대량&원단위 | X | | |
| 한샘* | | | F(무응답)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한세산업 | | | Disclosure D | Awareness C | Awareness C | | | | | | | |
| 한온시스템 | | | Management B- | Management B- | 응답 | | | | | | | |
| 현대모비스 | | | Management B | Management B | Management B | 49,088 | 338,344 | 3 | 절대량 | ○ | 2045 | 수립계획중 |

| 기업명 | 수강 | 업내외 공급내외 정확한 지별적 영어 | 2021 CDP 밴드 | 2020 CDP 밴드 | 2019 CDP 밴드 | Scope 1 배출량 (metric tons CO ₂ e) | Scope 2 배출량 (metric tons CO ₂ e) | Scope 3 배출량 보고 수 | 기타 배출량 (Scope 1 + 2) | 넷제로 목표여부 | 넷제로 목표연도 | 과학기 본목표 수립계획 여부 |
|------------|--------|---------------------------------|-------------------|-------------------|-------------------|--|--|---------------------|----------------------------|-------------|-------------|--------------------------|
| 현대백화점* | | | F(무응답)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현대자동차 | | | Management B | Leadership A- | Leadership A | 716,237 | 1,680,079 | 11 | 절대량 | X | | |
| 호텔신라* | | | F(무응답)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힐라홀딩스 | | | 응답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BGF | |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
| CJ ENM* | | | F(무응답)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F&F* | | | F(무응답)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JYP Ent. | | | F(무응답) | - | - | | | | | | | |
| S&T 모티브 | | | 응답 | Disclosure D | - | 18,812 | 18,812 | 7 | 절대량 | X | | |
| 에너지 | | | | | | | | | | | | |
| SK이노베이션 | 섹터 아너스 | | Leadership A- | Management B- | F(무응답) | 9,703,530 | 2,389,567 | 9 | 절대량 | ○ | 2050 | 수립계획중 |
| (주)GS* | | | F(무응답)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SK가스 | | 자발적 | Management B | - | - | 23,992 | 10,100 | 1 | 절대량 | X | | |
| SK디스커버리 | | | F(무응답) | - | - | | | | | | | |
| S-에* | | | F(무응답)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원자재 | | | | | | | | | | | | |
| LG화학 | 섹터 아너스 | | Leadership A- | Management B | Management B | 5,389,331 | 4,130,949 | 9 | 절대량&원단위 | X | | |
| 롯데케미칼 | 섹터 아너스 | | Leadership A- | F(무응답) | F(무응답) | 3,615,168 | 1,955,754 | 9 | 절대량 | ○ | 2050 | X |
| 한화솔루션 | 섹터 아너스 | 검증 | Leadership A- | F(무응답) | F(무응답) | 557,477 | 2,144,072 | 11 | 절대량 | X | | |
| SKC | 특별상 | | Management B | F(무응답) | F(무응답) | 597,778 | 489,127 | 10 | 절대량 | X | | |
| (주)한화 | | | Management B | F(무응답) | F(무응답) | 39,165 | 56,325 | 4 | 절대량 | X | | |
| SK머티리얼즈 | | | Management B | F(무응답) | F(무응답) | 26,415 | 202,617 | 9 | 원단위 | X | | |
| SK케미칼 | | | Management B | F(무응답) | F(무응답) | 403,382 | 98,613 | 10 | 절대량 | ○ | 2050 | 수립계획중 |
| 고려아연* | | | F(무응답)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금호석유화학 | | | 응답 | Disclosure D | 응답 | | | | | | | |
| 동부하이텍* | | | F(무응답)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동진세미켐 | | | 응답 | F(무응답) | - | 5,839 | 15,231 | 0 | 절대량 | X | | |
| 두산밥캣* | | | F(무응답)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롯데정밀화학* | | | F(무응답)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솔브레인홀딩스 | |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
| 쌍용양회* | | | F(무응답)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이오테크닉스 | | | F(무응답) | - | - | | | | | | | |
| 천보 | | | F(무응답) | - | - | | | | | | | |
| 코오롱인더스트리 | | | Management B | Management B- | Disclosure D | 136,576 | 476,527 | 4 | 절대량&원단위 | X | | |
| 포스코 | | | Management B | Leadership A- | Leadership A- | 75,069,656 | 580,226 | 6 | 절대량 | ○ | 2050 | 수립계획중 |
| 포스코켐텍* | | | F(무응답)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한솔제지 | | | 응답 | - | - | | | | | | | |
| 한솔케미칼* | | | F(무응답)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현대제철 | | | Management B | Management B | Leadership A- | 25,967,194 | 2,656,745 | 3 | 절대량 | X | | |
| 효성 | | | Management B | Leadership A- | Disclosure D | 9,446 | 22,615 | 9 | 절대량 | X | | |
| 효성첨단소재 | | 검증 | Management B | Leadership A | F(무응답) | 43,956 | 147,101 | 9 | 절대량 | X | | |
| 효성화학 | | 자발적 | Management B | - | - | 298,499 | 563,009 | 7 | 절대량 | X | | |
| KG동부제철 | | | F(무응답) | - | - | | | | | | | |
| OCI(주)* | | | F(무응답)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기업명 | 수강 | 업내중 외국계 기업 지배적 이익 | 2021 CDP 레드 | 2020 CDP 레드 | 2019 CDP 레드 | Scope 1 배출량 (metric tons CO ₂ e) | Scope 2 배출량 (metric tons CO ₂ e) | Scope 3 배출량 보고 수 | 기타 범위 (Scope 1 + 2) | 넷제로 목표여부 | 넷제로 목표연도 | 과학기반 수립 여부 |
|--------------|--------|-------------------------------|-------------------|-------------------|-------------------|--|--|---------------------|---------------------------|-------------|-------------|------------------|
| 유틸리티 | | | | | | | | | | | | |
| 한국전력공사 | 섹터 아너스 | 검증 | Leadership A- | Leadership A- | Leadership A- | 842,491 | 201,066 | 8 | 절대량&원단위 | X | | |
| 한국남부발전 | 특별상 | 자발적 | Management B | - | - | 28,891,779 | 115,620 | 7 | 절대량 | X | | |
| 한국동서발전 | 특별상 | 자발적 | Management B | Management B | Management B | 34,816,575 | 88,540 | 11 | 절대량&원단위 | ○ | 2050 | 수립계획중 |
| 한국가스공사 | | 검증 | Management B | F(무응답) | Management B | 206,510 | 388,752 | 10 | 절대량 | ○ | 2045 | X |
| 한국남동발전 | | 자발적 | Management B | Leadership A- | Management B | 42,443,645 | 77,573 | 8 | 절대량 | X | | |
| 한국서부발전 | | 자발적 | Management B | Management B | - | 30,253,247 | 169,345 | 0 | 절대량 | X | | |
| 한국지역난방공사 | | | Management B | Leadership A- | Leadership A- | 5,080,544 | 133,663 | 9 | 절대량&원단위 | ○ | 2050 | 수립계획중 |
| 제약건강 | | | | | | | | | | | | |
| 삼성바이오로직스 | 섹터 아너스 | | Management B | F(무응답) | F(무응답) | 41,793 | 83,015 | 7 | 원단위 | X | | |
| 녹십자* | | | F(무응답)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녹십자홀딩스 | | | F(무응답) | - | F(무응답) | | | | | | | |
| 대웅 | | | F(무응답) | - | - | | | | | | | |
| 대웅제약* | | | F(무응답)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동국제약 | | | F(무응답) | - | - | | | | | | | |
| 레고켄바이오 | | | F(무응답) | - | - | | | | | | | |
| 메디톡스* | | | F(무응답)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메지온 | | | F(무응답) | - | - | | | | | | | |
| 바이로메드* | | | F(무응답)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부광약품 | | | F(무응답) | - | - | | | | | | | |
| 삼천당제약 | | | F(무응답) | - | - | | | | | | | |
| 셀트리온* | | | F(무응답)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셀트리온제약* | | | F(무응답)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셀트리온헬스케어* | | | F(무응답)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씨젠 | | | F(무응답) | - | - | | | | | | | |
| 에이비엘바이오 | | | F(무응답) | - | - | | | | | | | |
| 영진약품 | | | F(무응답) | - | F(무응답) | | | | | | | |
| 유한양행* | | | F(무응답)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일양약품 | | | F(무응답) | - | - | | | | | | | |
| 제넥신 | | | F(무응답) | - | F(무응답) | | | | | | | |
| 종근당 | | | F(무응답) | - | - | | | | | | | |
| 한미사이언스* | | | F(무응답)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한미약품* | | | F(무응답)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한올바이오파마* | | | F(무응답)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휴젤* | | | F(무응답)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통신 | | | | | | | | | | | | |
| SK텔레콤 | 아너스클럽 | 검증 | Leadership A | Management B | Management B | 6,133 | 1,033,861 | 9 | 절대량 | ○ | 2050 | 수립계획중 |
| LG유플러스 | 섹터 아너스 | | Leadership A | Leadership A | Leadership A | 8,259 | 1,284,530 | 9 | 절대량 | X | | |
| KT | | 검증 | Management B | Leadership A- | Leadership A- | 36,059 | 1,185,659 | 13 | 절대량 | X | | |
| 필수소비재 | | | | | | | | | | | | |
| 아모레퍼시픽 | 섹터 아너스 | | Management B | Management B | Management B | 10,004 | 42,322 | 5 | 절대량&원단위 | ○ | 2030 | 수립계획중 |
| 코스맥스 | 특별상 | 자발적 | Management B | 응답 | 응답 | 2,480 | 8,304 | 8 | 원단위 | X | | |
| 농심* | | | F(무응답)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동서* | | | F(무응답)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기업명 | 수상 | 업내외 공공기관 환경 지별적 용어 | 2021 CDP 벤드 | 2020 CDP 벤드 | 2019 CDP 벤드 | Scope 1 배출량 (metric tons CO ₂ e) | Scope 2 배출량 (metric tons CO ₂ e) | Scope 3 배출권 보고 수 | 기타 배출량 (Scope 1 + 2) | 넷제로 목표여부 | 넷제로 목표연도 | 과학기반 수립계획 여부 |
|-----------|--------|-----------------------------|----------------|----------------|----------------|--|--|---------------------|----------------------------|----------|----------|-----------------|
| 롯데지주* | | | F(무응답)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아모레퍼시픽그룹* | | | F(무응답)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오뚜기* | | | F(무응답)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오리온* | | | F(무응답)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이마트* | | | F(무응답)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콜마비엔에이치 | | | F(무응답) | - | - | | | | | | | |
| 풀무원 | | 자발적 | Management B | F(무응답) | Management B | 18,470 | 42,895 | 8 | 원단위 | X | | |
| 하이트진로* | | | F(무응답)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CJ제일제당 | | | Disclosure D | Management B | Management B | 198,610 | 207,286 | 0 | 절대량 | X | | |
| GS리테일* | | | F(무응답)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KT&G | | | Awareness C | F(무응답) | F(무응답) | 39,271 | 86,248 | 7 | 절대량 | ○ | 2050 | X |
| LG생활건강 | | | Management B- | Management B | Management B | 8,315 | 37,003 | 4 | 절대량 | ○ | 2040 | 수립계획중 |
| IT | | | | | | | | | | | | |
| SK하이닉스 | 명예의 전당 | 검증 | Leadership A- | Leadership A- | Leadership A- | 1,748,877 | 4,753,817 | 13 | 절대량 | ○ | 2050 | X |
| LG디스플레이 | 섹터 아너스 | 검증 | Leadership A- | Leadership A | Leadership A | 2,181,178 | 4,563,615 | 5 | 절대량 | X | | |
| LG이노텍 | 섹터 아너스 | 검증 | Management B | Leadership A- | Leadership A | 15,044 | 335,024 | 11 | 절대량 | X | | |
| 삼성전자 | 섹터 아너스 | 검증 | Management B | Leadership A- | Leadership A- | 5,726,300 | 11,852,400 | 10 | 원단위 | X | | |
| 고영* | | | F(무응답)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넷마블* | | | F(무응답)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더블유게임즈 | | | F(무응답) | - | - | | | | | | | |
| 더존비즈온* | | | F(무응답)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리노공업 | | | F(무응답) | - | - | | | | | | | |
| 삼성SDI | | | Management B | Leadership A- | Leadership A- | 183,925 | 1,215,905 | 8 | 절대량 | X | | |
| 삼성SDS | | | Management B | F(무응답) | F(무응답) | 3,488 | 91,795 | 7 | 원단위 | X | | |
| 삼성전기 | | 검증 | Management B | Leadership A | Leadership A- | 79,240 | 1,124,888 | 12 | 절대량&원단위 | X | | |
| 에스에프에이 | | | 응답 | F(무응답) | - | | | | | | | |
| 에이스테크 | | | Disclosure D- | - | - | | | | | | | |
| 원익PS | | | 응답 | F(무응답) | - | | | | | | | |
| 웹젠 | | | F(무응답) | - | - | | | | | | | |
| 인탑스 | | | 응답 | - | - | | | | | | | |
| 일진머티리얼즈* | | | F(무응답)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카카오* | | | F(무응답)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컴투스* | | | F(무응답)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케이엠더블유 | | | 응답 | Awareness C | - | | | | | | | |
| 필어비스* | | | F(무응답)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현대오트모터 | |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
| LG에너지솔루션 | | 자발적 | 응답 | - | - | | | | | | | |
| Naver | | | F(무응답) | F(무응답) | 응답 | | | | | | | |
| NC소프트* | | | F(무응답)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NHN | |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
| SK실트론 | | 자발적 | Management B | - | - | 19,026 | 353,366 | 11 | 절대량 | ○ | 2040 | 수립계획중 |

부록 IV: CDP 2021 Water Korea 기업별 현황

(-): 해당연도 CDP Korea 대상기업 제외기업
 응답: 응답 지연, 평가 및 분석에 미반영, 점수 비공개 기업, Supply Chain 응답(무응답): 무응답 또는 응답거부 기업

| 기업명 | 수상 | 2021 밴드 | 2020 밴드 | 2019 밴드 | 2018 밴드 | 최수량 (ML/yr) | 총 방류량 (ML/yr) | 표면수질개선과 관련된 수 | |
|--------------|-----|---------------|---------------|---------------|---------------|-------------|---------------|---------------|--|
| 산업재 | | | | | | | | | |
| 대림산업 | | F(무응답) | - | F(무응답) | - | | | | |
| 대우조선해양 | | F(무응답) | - | - | - | | | | |
| 두산중공업 | | F(무응답) | -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삼성물산 | | F(무응답) | -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삼성중공업 | | F(무응답) | F(무응답) | - | F(무응답) | | | | |
| 한국항공우주 |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 현대건설 | | Management B | Management B | Management B | Awareness C | | | ○ | |
| 현대산업개발 | | F(무응답) | - | F(무응답) | - | | | | |
| 현대중공업 | | F(무응답) | - | F(무응답) | - | | | | |
| CJ(주) | | F(무응답) | -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KCC | | F(무응답) | -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LG하우시스 |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 SK(주) | | F(무응답) | - | - | - | | | | |
| 선택소비재 | | | | | | | | | |
| 기아 | 대상 | Leadership A | Leadership A | F(무응답) | - | 9,551 | 6,743 | ○ | |
| 현대자동차 | 우수 | Leadership A- | Leadership A- | Leadership A | F(무응답) | 20,535 | 9,102 | ○ | |
| 금호타이어 | | F(무응답) | - | - | - | | | | |
| 대림텍스 |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 롯데쇼핑 | | F(무응답) | - | F(무응답) | - | | | | |
| 만도 |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 신세계 | | F(무응답) | - | F(무응답) | - | | | | |
| 신세계인터내셔널 |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 영원무역 |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 코웨이 | | Management B- | Management B- | Management B | Management B- | 81 | 81 | ○ | |
| 태평양물산 |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 한국타이어 | | Management B | Management B- | Management B- | Awareness C | 5,993 | 1,545 | ○ | |
| 한세실업 |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 한온시스템 | | 응답 | 응답 | 응답 | 응답 | | | | |
| 효성티앤씨 |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 힐라홀딩스 |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 F&F |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 LG전자 | | F(무응답) | - | 응답 | Management B- | | | | |
| 에너지 | | | | | | | | | |
| (주)GS | | F(무응답) | - | F(무응답) | - | | | | |
| SK이노베이션 | | F(무응답) | -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S-Oil | | F(무응답) | -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원자재 | | | | | | | | | |
| 포스코 | 최우수 | Leadership A | Management B | Management B | Leadership A- | 136,377 | 63,383 | ○ | |
| 롯데케미칼 | 우수 | Leadership A- | - | F(무응답) | F(무응답) | 39,398 | 13,274 | ○ | |
| LG화학 | 우수 | Leadership A- | Leadership A- | Management B | Management B | 51,539 | 15,414 | ○ | |
| 고려아연 | | F(무응답) | -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금호석유화학 | | 응답 | F(무응답) | - | - | | | | |
| 대한유화 |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 기업명 | 수상 | 2021 밴드 | 2020 밴드 | 2019 밴드 | 2018 밴드 | 필수수량 (ML/yr) | 총 발주량 (ML/yr) | 표면 면적 과 발주 수 |
|--------------|----|---------------|---------------|---------------|---------------|-----------------|------------------|--------------------------|
| 동부하이텍 |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롯데정밀화학 |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솔브레인홀딩스 |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쌍용양회 |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천보 |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코오롱인더스트리 |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한솔케미칼 |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한화케미칼 | | F(무응답) | -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현대제철 | | F(무응답) | -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효성첨단소재 |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휴켄스 |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SKC | | Management B | F(무응답) | - | - | 9,114 | 3,205 | ○ |
| SK머티리얼즈 |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SK케미칼 | | F(무응답) | -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유틸리티 | | | | | | | | |
| 한국가스공사 | | F(무응답) | - | F(무응답) | - | | | |
| 한국남동발전 | | F(무응답) | - | - | F(무응답) | | | |
| 한국동서발전 | | Management B | - | - | F(무응답) | 12,544 | 2,431 | X |
| 한국서부발전 | | Management B- | Management B- | - | F(무응답) | 8,601 | 5,318 | X |
| 한국전력공사 | | F(무응답) | -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한국지역난방공사 | | F(무응답) | -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제약건강 | | | | | | | | |
| 녹십자 | | F(무응답) | - | - | - | | | |
| 대웅제약 |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셀트리온 |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셀트리온헬스케어 |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유한양행 |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일양약품 |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종근당 |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한미사이언스 |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한미약품 |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 | |
| 필수소비재 | | | | | | | | |
| 풀무원 | 우수 | Leadership A- | - | F(무응답) | Leadership A- | 6,291 | 5,736 | ○ |
| 대상 | | F(무응답) | -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롯데지주 | | F(무응답) | - | F(무응답) | - | | | |
| 롯데칠성 | | F(무응답) | -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아모레퍼시픽 | | F(무응답) | -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아모레퍼시픽그룹 | | F(무응답) | - | F(무응답) | - | | | |
| 오뚜기 | | F(무응답) | - | F(무응답) | - | | | |
| 오리온 홀딩스 | | F(무응답) | -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이마트 | | F(무응답) | - | F(무응답) | - | | | |
| 코스맥스 | | F(무응답) | - | - | - | | | |
| 하이트진로 | | F(무응답) | - | F(무응답) | F(무응답) | | | |
| CJ제일제당 | | Awareness C | Management B- | Management B- | Management B- | 49,336 | 45,427 | ○ |

| 기업명 | 수상 | 2021 밴드 | 2020 밴드 | 2019 밴드 | 2018 밴드 | 최소 기준 (ML/yr) | 최대 기준 (ML/yr) | 표 준 편 차 계 산 수 |
|-----------|------|---------------|---------------|---------------|---------------|---------------------|---------------------|---------------------------------|
| GS리테일 | | F(무응답) | - | - | - | | | |
| KT&G | | Management B | - | F(무응답) | - | 765,951 | 193,290 | ○ |
| LG생활건강 | | Management B | Management B | Management B- | Management B- | 3,726 | 1,651 | ○ |
| IT | | | | | | | | |
| 삼성전자 | 최우수 | Leadership A | Leadership A | Leadership A- | Leadership A- | 142,294 | 109,201 | ○ |
| LG이노텍 | 최우수 | Leadership A | Leadership A- | Leadership A- | Leadership A | 9,592 | 7,798 | ○ |
| LG디스플레이 | 우수 | Leadership A- | Leadership A | Management B | Leadership A | 94,140 | 83,713 | ○ |
| 삼성디스플레이 | 신규참여 | Management B | F(무응답) | - | - | 62,515 | 53,004 | ○ |
| 삼성SDI | | 응답 | 응답 | 응답 | 응답 | | | |
| 삼성전기 | | Awareness C | Management B | Management B- | Awareness C | 19,708 | 13,296 | ○ |
| SK실트론 | | Management B | F(무응답) | - | - | 14,927 | 14,370 | ○ |
| SK하이닉스 | | Management B | Leadership A | Leadership A | Management B | 93,077 | 80,742 | ○ |

CDP Contacts

Donald Chan

Managing Director, Asia Pacific

CDP

Level 3
4th Floor Plantation Place South
60 Great Tower Street London
EC3R 5AD

Tel: +44 (0)20 3818 3900

www.cdp.net

info@cdp.net

CDP 한국위원회 Contacts (사무국: KoSIF)

장지인

위원장

양춘승

상임부위원장

송호상

부위원장

이종오

사무국장

김태한

책임연구원

권정현

연구원

유진호

연구원

이다연

연구원

이성은

연구원

이준희

연구원

최인선

연구원

KoSIF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02

천마빌딩 707호

Tel: +82 (0)2 738 1142

www.kosif.org

kosif@kosif.org

EY한영 Contacts (한국 평가파트너)

장상훈

이사

박경상

파트너

EY한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1

태영빌딩 4-8F

Tel: +82 (0)2 3787 6600

www.ey.com

sangheon.jang@kr.ey.com

CDP 한국 자문위원회

장지인

위원장

전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CDP Climate Change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이병욱

세종대학교 교수

전 환경부 차관

전의찬

세종대학교 교수

허탁

건국대학교 교수

CDP Water

권춘택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이길재

서울대학교 객원연구원

전 수자원공사 부사장

정건용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CDP 실무위원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

박재흠

EY한영 파트너

정해봉

에코프론티어 대표